



3

1985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85. 3호

(루게 449)



◆◆◆◆◆◆◆◆ 차 례 ◆◆◆◆◆◆◆◆

나루터의 지름길	4
나의 서정시	4
위대한 김일성 주의	5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이시여.....	5
은하의 흐름 *외 1 편Ä.....	6
푸른 잔디 빨간 꽃	6
지 원	7
저녁노을 붉은 강반에서	8
철비단이 춤추며 흐른다	9
등 산 모.....	12
뜨락또르발동소리 울릴 때면.....	15
11년제의무교육의 첫걸음을 뗀 아동들의 생활에 대한 감동적인 화폭	16
시 한편 새겨놓고 *외 1 편Ä.....	20
《영옥》이들	20
투사들이 태어난 날을 읽으며 *외 1 편 +.....	21
청 춘.....	21
어디선가 낮익은 *외 1 편Ä.....	22

영웅들의 고향	22
기관사의 기쁨	23
세소어업 종구 좋아	23
아들문제	24
당을 따라 혁명의 길 끝까지 가리	31
철산봉에 올라	32
아기의 첫돌에	32
꽃다발의 향기	33
거룩한 그 자옥우에	36
돌파구에서	37
무산의 절경	39
내 마음엔	39
딸 령 이	39
너는 무엇을 바치려느냐 *외 1 편Ä.....	40
고향의 부두가에서	40
풍 년 숲.....	41
졸업논문	52
장편소설 《모란봉》의 형상세계	62
궁 지	68
낮도 없이 밤도 없이	75
인민의 학습당, 위대한 사랑의 집이여 !.....	76
온 공장이 너를 찾고있는데.....	77
어머니에게	77
바다가에 나와서	78

총과의 이야기	79
자유의 내 녀은 \tilde{A} 의 1 편+.....	80
생 일 연	80

나루터의 지름길

- 《배움의 천리길》로정을 따라-

리청남

떠나오신 포평은
여기서도 몇백리
가야 하실 만경대는
또 험한 몇백리

산굽이 하나 돌면
평탄한 길 가시련만
어이하여 어린시절 우리 수령님
이 길로 가셨던가
눈바람 맞받아 얼음장 타고

걸음걸음 가슴에 안으신
인민의 참상 생각하시면
빼앗긴 조국을 생각하시면
잠시도 지체할수 없는 길이어서

머나먼 천리길도

한걸음에 내짚으시며
깃뻘힌 강산에 새봄을 안아오실
크나큰 구상을 안고 가신 길
청천강나루터의 지름길이어

이 길이였구나
젖은 행진 잠시도 푸실 사이 없이
피의 준령 넘고넘어
세기를 당기시며 이 땅우에 펼치신
오늘의 모든 행복 안아오신 길

아 걸음 걸음
우리 따라 걷는 길은 천리여도
아버이수령님 한평생 헤쳐오신
그험한 눈길 만리 다 안고 걷는
충성의 천만리길
신념의 천만리길이어

나의 서정시

김재원

얼마나 많은 시를 쓰고
또 쓰고싶은 시절인가
오, 세월이여
해와 별 찬란한 나의 시대여

유서깊은 만경대사립문을 나서
혁명의 성지 백두령에 올랐고
다시 영광의 개선문을 지나
해빛밝은 만수대언덕에 오르니

아, 저앞에 높이 솟은
불멸의 주체사상탑
내 노래
시의 봉우리여

탑의 봉화 내여뿜는
천가닥 만가닥
주체의 그 빛발
줄기줄기 흘러가는곳

창조로 들끓는 이 땅 어딘들
내 가고싶지 않는곳 있으랴

자주의 노래높은 이 시대 누군들
내 만나보고싶지 않으랴

가는곳 어디나 환희의 노래요
만나면 누구나 기쁨의 웃음꽃인
내 태어난 주체의 조국이어
내 사는 주체의 시대여

금강산 묘향산 진주보석 다 캐여
황홀한 시의 메부리를 쌓고
동서해 물 다 기울여 노래를 지은들
주체의 내 시대를 다 노래힐수 있으랴

아아 아버지수령님 천만년 길이 모시고
당을 따라 인류의 리상세계로 나아갈
어머니 나의 조국은
영원한 나의 서정시 !

백번 목숨바쳐 뉘우침 없고
천번 죽었다도 그것만 깃들면
내 다시 살아나
목청껏 노래부를 나의 서정시 !

위대한 김일성주의

치팜바 제이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그이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선포하신분

인류가 칭송하는 **김일성** 주의
그것은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창시된 독창적인
사상
자주의 길을 밝혀주는 혁명의 지도사상
친애하는 그이께서 정식화하신
김일성주의는
그이의 정력적인 탐구와 혁명실천의 빛나는 결
실이여라

그이께서는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로 밝히시었나니
김일성주의는 불멸의 주체사상과
그에 기초한 혁명리론
령도방법의 총체

김일성주의는
세계인민들이 나이갈 길 밝혀주는 등대

싸우는 인민들의 투쟁의 기치
세계는 **김일성**주의가 밝혀준 길을 따라
자주의 새 역사를 창조하고있어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후계자
그이는 수령님의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력
고매한 덕성을 이어받으신
위대한 령도자
그이는 세계가 우러르는 향도의 별
그이께서 정식화하신 **김일성**주의는
세계혁명의 불멸의 기치로 영원히 나뭇기리라

세계는 믿고있노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정식화하신
김일성주의는
자본의 철쇄를 마스코
억압받고 천대받는 인민들을
김일성주의시대로 전변된 새세계에서 살게 하리
라고
위대한 **김일성**주의 만세 !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만세 !

(필자 짐바브웨 인민민병훈련소 5 중대
정치지도원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이시여

알베르토 느게마 온도 오보노

영명하신 지도자동지이시여
당신을 칭송하는 인민의 노래소리
여기 아프리카대륙의 천고밀림을 넘어
세차게 울려퍼집니다.

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이시여
당신은 남다른 총명성과 현명한 령도력
인민에 대한 헌신성으로

위대한 업적을 이룩하시었나니
그 업적에 위대한 주체사상의 숭고한 리념
찬란히 수놓아져있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이시여
당신은 인민에 대한 사랑을
따사로운 봄빛마냥 뿌리시여
인민의 희망을 가꾸어주시고

인민의 영원한 행복을 꽃피우십니다

수억만 사람들
오늘도 래일도 모래도
조선의 통일을 위하여
련대성의 목소리 높여나아가거니

오 통일된 주체조선의 기발
창공높이 휘날릴 그날
당신을 칭송하는 인민의 노래소리
산넘고 바다건너 지구의 끝까지
더욱 세차게 울려퍼질것입니다

조선의 허리를 휘감은 군사분계선을
영원히 가서버린 그날에
오 내 그날에 다시 당신께 새 노래를 드리렵
니다
조선의 아들딸들에게 영원한 축복의 노래를 보
내렵니다

(필자 적도기네교육문화체육부
문화예술총국장임)

은하의 흐름 외 1 편

장문필

밤이면 고느직한 물결우에
별들이 꼬리치련만
네 흐름엔 그 한점도 비길 틈이 없어라
강반의 무리들
층층높은 창가의 불빛들이 짝 차서...
그래서 물은 그대로 방울방울이 별!

강은 그대로 현란한 빛의 흐름!
아, 이 땅에 이룩한 당의 위업이 너로구나
보통강, 보통강 락원의 강이어
뉘라서 여기서 하늘나라 꿈꿀소냐
《천국》도 무색하여 자리내준 한복판에
은하의 물결- 네가 흐르고있는데야!

푸른 잔디 빨간 꽃

푸른 잔디
빨간 꽃...
보통강기슭은 아름다와
화력타빈공 젊은 총각
방직공처녀와 사랑을 맺네
송이송이 꽃속에서
붉은 한떨기 꺾어들고
-아무리 골라도
비단꽃보다 더 고운 꽃 못 찾겠소!
그 꽃 주는 총각의 손
담싹 쥐었다 열른 놓고
-아이참 동무 손엔

타빈의 전기가 흐르나봐!
내 기대 썩썩 돌려주는...
사랑에 겨운 처녀의 얼굴
비단꽃처럼 붉게 타고
행복에 겨운 총각의 가슴에
화력타빈은 뽐뽐 도네
파란 잔디
빨간 꽃...
보통강기슭은 아름다와
청준의 사랑도 아름다와

지 원

리 준

못잊을 봉화리
명신학교의 밝은 창가
그날의 학생들처럼
나는 처음으로 이 말을 배웠다
전후의 그날 인민학교의 책상우에서

송진내 풍기는 흑판우에 이 글을 쓰며
단발머리 너선생의 눈빛
별처럼 빛날 때
아득한 세월의 공간을 넘어
올려왔어라 명신학교의 종소리
철부지 내 가슴을 흔들며

창가로 흘러들던 바람결도
선생님의 숨결처럼 안겨지던 그날
내 뜨겁게 따라외우던
숭고한 그 뜻
오, 《지원》의 글발이여 !

락원의 강산에서
행복의 뜻을 올린 나의 삶
첫자욱부터
그 뜻을 안고
오늘로 이어오지 않았던가 !

잊을수 없어라
병사시절의 나날
맥전별의 수수발을 보시면서도
늘어갈 조선군사를 그리시던
선생님의 높으신 뜻
내 총창에 서러발 날렸고

선생님 존함으로 빛나는
대학의 층계를 오르던 그날에도

들끓는 조국땅 광산과 어촌을 찾아
시인의 열정쫓는 오늘에도
선생님 그 뜻으로 강산을 꽃피갈
한생각 내 심장에 불탔어라

오, 진하다진한 먹물
갈고 또 갈아
김형직선생님
한번 쓰신 《지원》의 글발
이렇듯 천만사람들 가슴에서
끓는 피로
영원한 생의 숨결로 되었구나

정녕 그래서
너선생이 처음 배워준 그 글발이
이리도 잊을수 없는것인가
해빛밝은 집집의 정가론 벽에
아름다운 명승지의 바위마다에
그 글발은 빛나고있는것인가

나라 없던 그날엔
찾아야 할 조국을 부르며
강토우에 빛발치던 글발
내 나라 다시 찾은 오늘엔
주체의 조국을 온 세상에 빛내이라고
세월과 더불어 깊어가는 뜻

내 언제나 그 뜻을 따르리라 !
어버이수령님을 더 잘 모시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길이 받들
아아 그 한뜻만을
한생 멀리 두고 살리라 !
한생 높이 두고 살리라 !

저녁노을 붉은 강반에서

박 철

노을속이다

시원한 강바람 옷자락 날린다

팔에는 좋아라 앞서 달리고

나는 걷는다 안해와 나란히

기다렸는가

푸른 물 아니 노을비껴 금빛물은

달려와 반기며 출렁인다

엇저녁 쓸어본 꽃망울

줄장미도 타오르며 미소짓는다

기쁨은 넘친다 가슴에

저 멀리 노을속에서

꽃인가 딸애가 손짓하며 웃는다

안해도 나를 보며...

얼마나 좋은가

이 저녁에 한생이 언약된듯

저 실실이 푸르른 아지새로

환히 빛나는 총각의 얼굴은

수집어 머리속인 처녀의 모습은

저기 보라 때마침

환호를 터치며

푸들쩍-살쥔 잉어가 물려나온다

억만진주알 쏟아지는 분수가에

노를 저어가는 행복을 저어가는

청춘남녀 백인가 천인가

노래의 물결이다

강도 드넓은 대동강은

꽃의 흐름이다

유보도도 끝없이 긴 대동강 유보도는

아 로동의 희열이

휴식의 기쁨으로 넘치는 강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퇴근길을 공원과 유보도에 잇대주시여

명절처럼 명절처럼 펼쳐진

저녁노을 붉은 대동강의 새 풍치여

나는 걷는다

안해도 딸애도 걷고 걷는다

풍치속에 풍치로 어울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은혜로운 품

보통날 퇴근길을 명절의 꽃길을

철비단이 춤추며 흐른다

안병모

드세찬 발파의 메아리를 들으며 철산봉을 떠난 우리의 기행길은 250리 정광수송관을 따라 북방의 굴지의 대야금기지-김책제철소로 이어졌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사업에서 오늘 우리앞에 나선 중요한 과업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치고 1980년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는것입니다.》

지난해 5월 15일 영광스럽게도 자기들의 일터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모시였던 크나큰 감격을 안고 《80년대속도》 창조투쟁의 앞장에 서서 조국해방 40돐과 당창건 40돐을 뜻깊게 맞이하기 위하여 뜨거운 열정으로 가슴불태우고있는 김철의 노동계급을 찾은 우리의 마음은 저으기 흥분되였다.

이 땅, 그 어디서나 거창한 전변과 놀라운 비약이 창조되듯이 돌이켜보면 주체공업의 역센 무쇠 기둥이 되어 조국을 떠받들고있는 현대적이며 종합적인 대야금기지 김책제철소의 자랑찬 력사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사랑이 얼마나 뜨겁게 깃들어있는것인가.

김철의 우안과 좌안을 가르며 구내 한복판으로 흐르는 강기슭에서 바라보노라니 대형용광로를 주봉으로 마치 그 옆봉우리마냥 1.2호용광로들과 련속식소결로들이 숲을 이루며 장엄히 솟아있고 다른 편으로는 십리 넓은 벌을 짝 메우며 눈뿌리 아득히 어깨걸고 일떠선 압연분공장 열간압연직장과 냉간압연직장이 가슴벅차게 안겨온다.

아직도 선기가 채 가시지 않은 북방의 봄대기를 한껏 들여마시는 우리의 가슴속에는 한없는 궁지가 용솟음쳐 뜨거운 감회를 금할수 없었다.

끝없는 철의 흐름을 이끌고 저 멀리 산기슭을 감도는 대형장거리정광수송관은 얼마나 회한하며 그와 직접 잇달린 현대적인 원료장은 또 얼마나 장관인가.

보이는것마다가 놀라운 전변의 위용을 그대로 보여주는 만년대계의 창조물이며 로동당시대가 이루어놓은 위대한 전변의 자랑찬 화폭이다.

정녕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된 이듬해 봄 천마산정에 오르시여 철의 기지 건설구상을 펼쳐주시고 그후 제철소를 수습차례 찾으시여 완성하신 웅대한 설계도가 오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빛나게 실현되고 그 강철기둥에 떠받들리어 우리 조국이 역세여지고있다고 생각하니 우리의 가슴은 후덥기만 하였다.

우리를 안내하기 위해 마중나온 압연분공장장 주춘섭동무는 흰철한 키에 비교적 말수더구가 적은 사람같았다.

제철소구내에 첫걸음을 내짚은 순간부터 감탄을 금치 못해하는 우리를 보면서 그는 싱긋이 웃음을 지을뿐 별로 말을 하지 않았다.

아스팔트로 알뜰하고 깨끗이 포장한 넓은 구내길을 지나 압연분공장의 열간압연직장 문어귀에 이르렀을 때에야 그는 낮으나 결결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그날은 유난히도 밝게 개인 봄날이었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바로 여기서 차에서 내리시여 우리 분공장을 현지지도해주셨지요. 그날의 감격을 말로는 이루 다 표현할수 없습니다. 하여간 현장을 돌아보면서 이야기합시다.》

그는 지난해 5월 15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몸소 다녀가신 로정을 따라 우리를 안내했다.

시원한 하늘색 압연기를 비롯한 번쩍이는 기계들이며 서너아름이 되고도 남을 둥그런 압연강재 통구리들이 줄지어 늘어선 깨끗한 철바닥, 그 어느 구석진곳이나 활것없이 정결한 일터... 쇠덩이를 다루는 야금공장치고는 누구나 다 놀랄정도다.

《생산문화수준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탄하자 옆에서 걸던 주춘섭동무는 영광의 그날을 돌이켜보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는것이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공장이 그전보다 깨끗해진 데 대하여 매우 만족해하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김책제철소가 1,500만톤 강철고지를 점령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하시면서 생산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여 당의 의도에 맞게 철강재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고 강철전사들에게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었다.

우리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몸소 보아주신 만능압연기앞에 이르니 조피공정에서 절단된 시벨건 평피덩이들이 구름로라에 자동적으로 실리우고 있었다.

압연공들은 유리창문을 단 조종실에 앉아 구름로라에 오른 육중한 평피덩이들을 능숙하게 조종하며 압연하고있었다.

만능압연기와 완성압연기들을 거처나온 강판들이 엽판대기처럼 쭉쭉 늘어나면서 뽀얀 안개마냥 김을 뿜어올리며 순식간에 굴음대우를 달려나가는 모습은 볼수록 장쾌하다.

너무도 황홀하던 나머지 춤추며 물결쳐흐르는 강판을 자세히 보고싶은 생각으로 우리는 그앞으로 다가섰다.

헌데 몇걸음 다가서지 못하고 급히 뒤걸음을 치고말았다. 뿔경계 달았던 철판이 겹스레해지기는 했으나 어찌나 뜨거운 열풍이 얼굴을 치는지 《흑흑》 흐느끼지경이었다.

우리를 말없이 보고있던 분공장장동무는 이윽하여 《그게 다 식은것 같아도 1,000도는 될겁니다.》라고 한마디 하는것이였다.

압연된 강판들은 권반기에서 천통구리처럼 둥글게 말리며 다음 공정인 산세직장으로 간다. 공급장치에 의하여 옮겨지는 이 강판통구리들은 여기서 곧게 펴지면서 맞뿔용접기에 의하여 필필이 이어져 산욕조에 흘러든다. 세척공정을 거쳐 때를 말끔히 벗은 깨끗한 강판은 다시 처리장으로 옮겨진다. 이 모든 과정은 눈감박할사이에 조종장치에 의해 진행된다.

우리가 랭간압연직장에 이르니 강판들을 더 얇게 밀어내는 작업이 한창이였다.

여러대의 랭간압연기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저마다 두터이가 다르게 강판을 밀어내고있었다.

불과 몇분새면 한통구리의 강판을 임의의 두터이

로 밀어내는 압연작업은 말그대로 신묘한 《재주》를 부리는 그 어떤 거인의 모습과도 같았다.

압연공들의 구리빛어린 얼굴들엔 희열이 넘쳐흐르고있었다. 한 압연공과 인사를 나눈 우리는 요즘 생산형편이 어떤가고 물었다.

그랬더니 그는 《우리 동무들은 모두 신이 나서 일한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셨는데 어찌 힘이 솟구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면서 설비관리와 기술관리가 개선되고 기대마다 만부하, 만가동을 보장하고있는데 대하여서와 강질도 높이고 규격도 높이면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있는데 대하여 말하였다.

인민경제의 생명선을 지켜가는 강철로동계급의 담찬 기상이 담긴 그의 말을 듣고난 우리는 아연도금직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아연도금직장에 이르니 희한한 전경이 우리를 맞아주었다.

운동장처럼 널찍한 장소에 다층아빠트처럼 육중하게 들어앉은 아연도금기가 웅글은 동음을 울리며 씩씩이 돌고있었다.

눈여겨살펴보니 티 한점없이 산세된 철판통구리가 물결쳐흘러 도금욕조를 거처나온다.

은백색으로 도금된 철판은 창문으로 흘러드는 햇빛을 받아 번쩍번쩍 빛을 뿌리며 2층으로 올라가 다시 비단필처럼 늠늠늠 춤을 추며 흘러서 권반기에 감겨든다.

기대앞에서 우리와 만난 랭간 압연직장 부직장장 남송규동무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자기들의 일터에 모셨던 그날의 감격이 되살아오는듯 영채도는 큰 눈을 약간 찡프리고 생각에 잠기더니 이어 흥분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그날은 류달리도 맑게 개인 따스한 봄날이었지요. 소문도 없이 찾아오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직장에 들어서시는 첫걸음으로 이 아연도금기앞에 서시여 도금공정을 보아주셨습니다. 도금된 철판이 햇빛을 떠시고 춤추며 흘러가는 광경을 이윽도록 보아주시던 그이께서는 만면에 환하신 웃음을 띄우시고 아연도금판을 감는것이 마치 방직공장에서 천필을 감는것 같다고, 아주 멋있다고 하시며 설비와 제품이 좋다고 매우 만족해하셨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굵이유지기며 2호권

판기, 고열을 뿜는 아연도금욕조며 파형기 그리고 아연도금제품들을 하나하나 다보아주셨다고 한다.

우리는 그의 안내를 받으며 아연도금공장들을 차례로 돌아보았다. 우리가 아연도금판통구리며 주름판이 주름이 놓인곳에 이르자 부직장장동무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공장에 찾아오시여 이 제품들이 아주 좋다고 하시고 다음날 한 일군에게 제품들이 너무 깨끗해서 손을 대게 안되더라고 말씀하시었다.

수천도의 열을 품은 용광로와 전로를 거쳐 나온 제품이고 우리 강철로동계급의 충성으로 끓는 심장을 거쳐 나온 제품이기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토록 귀중히 여기시는게 아니겠는가.

부직장장동무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다녀가신후부터 자기직장동무들은 아연도금판을 철비단이라고 부르면서 방직공들은 꽃비단을 짜서 사람들의 옷감을 마련하지만 자기들은 철비단을 뽑아내어 조국에 무쇠갑옷을 환하게 입혀간다고 자랑이 이만저만 아니라는것이였다.

그의 말을 들으며 해빛을 떠신고 춤추며 흐르는 아연도금판을 다시 보노라니 주변이 갑자기 더 환해진것 같고 저절로 흥이 나서 어깨가 들썩거릴 지경이였다.

마치도 자기들만이 이 세상 가장 큰 행복을 독차지한듯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자기들에게 그토록 아낌없이 베풀어주신 은덕이 고마와 자랑하지 않고는 배겨내지 못하는 김철의 로동계급.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품속에 자신들이 있고 그이의 믿음과 기대속에 일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비약의 나래를 펴고 혁신의 한길로 달음치는 그들이 한없이 부럽기만 하였다.

김철은 실로 정광의 예비처리로부터 제철, 제강, 압연 그리고 2차금속가공제품생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이 완비되고 자동화, 원격조종화된 현대적이며 종합적인 대야금기지이다. 김철은 곧 나라의 자랑이다.

사철 철비단이 춤추며 흘러흐르는 김철의 전변의 새 모습을 돌아보노라니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드시여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이어가시는 빛나는 령도의 나날이 되새겨진다.

사경에 처한 한 용해공을 위하여 평양으로부터 여기 김철로 은정깊은 비행기를 띄워보내신 《70일 전투》의 나날이며 김철확장공사를 위하여 힘있는 건설부대들을 무어주시고 건설장에 《속도전》의 우람찬 교향곡이 높이 울리게 하신 대건설의 그 력사의 나날들...

《80년대속도》 창조투쟁에 떨쳐나선 강철전사들에게 크나큰 신임을 안겨주시며 새로운 비약으로 불러주시고 무산의 광부들을 찾으시고서는 더 많은 정광을 생산하여 김철에 보내주라고 말씀하시고 룡성의 로동계급에게는 김철의 압연로라를 광광 놀러낼 1만톤프레스를 대담하고 통이 크게 만들도록 파업을 주신 그 사랑, 그 믿음...

그러시고도 못다주신 사랑이 있으신듯 김철의 로동계급의 수고를 깊이 헤아리시여 수많은 중기계들과 자동화설비들, 무선전화기와 지령전화기. 산업 텔레비존시설, 생산지휘용 승용차 등 여러가지 물질기술적수단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시지 않았던가!

하기에 김철로동계급은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는 길에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자기들의 영원한 행복이 있다는것을 심장으로 느끼고있으며 영광의 그 길에서 대를 이어 충성을다해가고 있는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실무지도에서 주신 말씀을 불타는 심장들에 새겨안고 여기 압연분공장은 물론 김철의 도처에서 날마다 시간마다 창조되는 기적과 혁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가 김철 구내를 나섰을 때는 저녁노을이 붉게 필 무렵이였다.

방금 들려온 압연분공장쪽을 바라보니 하늘높이 솟은 100톤전로의 굴뚝에선 흰연기가 솟아올라 바람에 날려 바다쪽으로 흘러간다.

그것은 마치도 그 어떤 거인이 노을이 붉게 된 하늘에 큰 붓을 들고 끊임없이 글을 써나가는듯싶었다.

그렇다!

김철의 강철로동계급은 날과 달을 이어 낮이나 밤이나 쇠물빛에 물든 드넓은 하늘에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령도의 서사시를 새겨나가고있는것이다.

등 산 모

박종렬

한스 클로스가 평양에 온지 벌써 사흘째였다. 길지 않은 시간이건만 이 사흘동안 그는 생각도 많았고 불안도 컸다. 귀밑머리에 하얗게 서리가 내리고 인생의 황혼길을 걷는 그에게 이제 남은것이란 인생의 보람도 그 어떤 신념도 아니고 골수를 썩이는 듯한 정신적인 방황과 암담한 회의뿐이었다. 유네스코의 한 친구로부터 출로를 찾을수 있는 길이 있으니 조선에 가보라는 권고를 받고 막연한 희망과 반신반의속에서 이번 려행길에 오른 그는 모든것을 안개속을 관망하듯 좀처럼 상념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만큼 그의 정신적고민은 컸던것이다. 평양... 여기서 그를 기다리는것이 무엇일까? 과연 출로일까? 아니면...

아침식사후에 잠시 쉬고난 그는 지금 호텔의 자기 방에 서서 창밖으로 후원을 내다보고있다. 찌는듯 무더운 한여름이라 벌써 하늘에서는 불비를 쏟아붓는듯하였다. 며칠째 계속되는 가물에 풀잎들은 시들시들 말라버린다.

나이에 비해 몸매가 놀라우리만큼 탄력있어보이는 중년이 훨씬 넘은 한 녀인이 고무호스로 잔디밭에 물을 뿌리고있다. 한스가 알기에 녀인은 호텔의 방청소를 맡은 청소부였다. 그런데 그는 어제도 잔디밭에 물을 주는 일을 하였었다. 그렇게 물을 주어서인지 나무들과 풀들은 더위와 가물에도 록음이 싱싱하였다.

녀인이 저 일까지? ... 돈을 더 받자고?... 자식들을 위해서인가, 자신의 말년을 위해서인가? 한스는 막연히 추측하였다. 그것을 위해 지금 남보다 더 애쓸수 있지. 하나 뜻대로 되지 않는것이 인생이지. 그리고 불행한것이 인생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한스에게는 헤여날수 없는 고뇌의 세계가 다시금 엄습해왔다.

한때는 앞날을 아침노을속에 꿈꾸며 자아완성과 자아수양을 제창하고 사회의 오염된 대기를 청신한 공기로 불어버리려는 불같은 열망으로 교육학연구에 일생을 바친 그였다. 그러나 그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날이 갈수록 사람들은, 아니 자기가 그토록 사랑을 기울여 옳바른 길을 걷도록 가르쳐온 젊은이들마저 천사사 아니라 악마로 화해가고있다. 패륜과 패덕, 사기와 협잡, 학대와 증오, 이것이 인간이었다.

그 최악은 칼날을 댈수 없는 악성종양처럼 부풀대로 부풀어 고름내를 풍긴다. 그토록 피터지게 절

규한 사랑과 정의와 량심의 목소리는 허허공간에서 공허하게 사라졌다. 그는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고 그의 안해가 다른데로 가버린 뒤 자기가 말하기르게 된 하나밖에 없는 손자 요하네스마저 할아버지의 뜻과는 너무도 어긋나게 자라 실망하게 된 뒤로부터는 모든 희망을 포기해버리고말았다.

어느날 구락부에서 한 명사는 이렇게 말하였다. 《인류는 문명도가 높아질수록 보다 완성된 죄악을 자체에 내포한다.》고...

그렇다면 인간은 멸망하여야 한다. 그 길밖에 없다. 그 어떤 량심의 절규가 무시되는것도, 그의 인생의 노력이 헛되이 되는것도 피할수 없는 일이다. 손자 요하네스도 사람과 화목의 상징으로 일생동안 집에 간직해오는 할머니의 약혼반지를 훔쳐내어 하루밤 환락에 탕진해버렸다...

상념에 지친 한스 클로스는 이 며칠이나마 모든것을 잊고 가벼운 마음으로 휴식을 하고싶어 천천히 후원으로 걸어나갔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일을 끝내고 물러서던 녀인이 능숙하지는 못하나 영어로 이렇게 인사를 건넸었다. 한스도 답례하였다.

《피곤하지 않습니까. 날씨가 무더운데?》

《잔디가 잘 사는걸 보니 여간 기쁘질 않습니까.》

놀라움게도 녀인은 조금도 그늘이 지지 않은, 그 어떤 보람과 희열조차 느끼는듯한 밝은 웃음속에 대답하였다.

《여기 앉아 좀 쉬시지요. 푸른색은 눈에 좋답니다.》

이렇게 말하는 녀인의 얼굴에는 어찌나 부드럽고 이룩찬 빛이 떠올랐던지 한스의 눈앞에는 문득 몇해전에 세상을 떠난 안해 라우라의 얼굴이 떠올랐다. 일생의 반려자로 곶은일, 마른일을 함께 다 겪으며 오로지 그에게 다정한 말을 해준것은 그 라우라뿐이었다. 이제는 그 다정한 목소리도 잊어 버린 그에게 녀인의 목소리는 가슴을 뜨겁게 해주었다.

한스는 녀인이 권하는대로 긴의자에 앉았다. 잔디밭을 내려다보았다. 티끌 하나 묻지 않고 물기가 반질거리는 연록색 풀잎들은 마음을 상쾌하게 해었다. 한스는 새삼스레 녀인이 고마운 생각이 들었다.

《당신은 이 일도 해야 합니까?》

그는 녀인에게 얼굴을 돌리며 말을 건넸었다. 벌

써부터 묻고싶었었다. 한순간 너인의 얼굴에 놀라는 빛이 스쳐지났다.

《아닙니다.》 너인은 웃으며 대답하였다.

《저는 아래층 관리원인걸요.》

《그럼... 이 일을 하면 돈을 더 받겠습니까.》

《그런것이 아닙니다. 풀밭이 마르면 안되겠기에... 싱싱한 풀밭을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한단지요.》

한스는 너인앞에 머리를 끄덕이였다. 그러나 그는 이해할수 없었다. 조선에 대하여서는 이곳에 오기전부터 글을 읽었었다.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것이 이 나라 정책이고 그것이 모든 생활의 기초이라고. 그러나 청소년녀인의 입에서 그런 말을 듣기란 참으로 놀라왔다.

어느 나라에 가보아도 이런 직업에 있는 하층 사람들이란 (그들은 그렇게 취급되었었다.) 남의 일에 아랑곳하는 법이 없고 그저 돈을 벌기 위해 일할뿐이다. 그런데 이 너인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한다.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자기에게 리해관계 없는 일을 제일처럼 나서서 한다.

한스는 생각을 가다듬으려고 지그시 눈을 감았다.

이때 《할머니 !》 하는 쉼쉼한 소년의 목소리에 그는 눈을 뜨고 얼굴을 돌렸다. 저앞 후원문에 한 소년이 나타났다. 두볼이 능금알처럼 통통하고 눈이 어글어글하게 생긴 열서너살 되었을 소년이였다. 그는 이 나라 소년들의 보통차림새대로 반소매사썸을 입고 앞가슴에 붉은벚타이를 드리웠는데 머리에는 산뜻한 등산모가 씌워져있었다.

소년은 너인을 보자 기쁜 일이라도 생긴듯이 달려오더니 발쑹발쑹 웃으며 이야기하였다.

너인은 대견스리운듯 소년을 마주보더니 한스쪽에 얼굴을 돌리며 뭐라고 하였다. 그러자 소년은 한스앞에 단정한 자세로 돌아서서 소년단정례를 하였다.

《하우두유두 독터 ! 》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 뜻밖에 인사를 받은 한스는 일순간 엉거주춤 일어서며 무슨 일이나고 너인의 얼굴부터 쳐다보았다.

《제 손자녀석입니다. 묘향산으로 소년단야영을 간답니다. 그래 저한테 인사를 하러 왔답니다.》

너인이 하는 말이였다.

《야,그렇습니까 ! 》

한스는 레절바른 소년이 기특하여 그를 돌아보며 머리를 끄덕였다.

《할머니에게 인사를 하러 일부러 왔습니까?... 교양을 잘했습니다.》

소년이 사랑스러웠다. 한스는 한걸음 가까이 다가서며 소년에게 말을 붙였다.

《아버지, 어머니는 뭘하시냐?》

《로동자들입니다. 기계공장에서 일합니다.》

소년은 류창한 영어발음을 하였다.

《로동자들이라...》

이렇게 혼자 되뇌인 한스는 다시 한마디 하였다.

《너 영어를 잘하는구나. 이디서 배웠느냐?》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아직 잘하지 못합니다.》

소년은 다시 나무랄데 없는 영어로 대답하였다.

《그래도 내 생각엔 썩 잘하는것 같다.》

《아닙니다. 선생님 ! 이번 학년말시험에서 문법이 틀리어 8점을 받았습시다. 학급의 절반이상 동무들이 10점을 받았는데 전...》

대체로 제자랑을 즐기는 이런 나이에 자기 결함을 솔직히 이야기한다는것은 티없이 깨끗한 량심을 가지지 않고서는 바랄수 없는 일이다.

한스는 소년의 솔직성이 더없이 마음에 들었다. 그는 사랑스레 소년의 어깨를 쓰다듬으며 유쾌하게 웃음지었다.

《그래? 선생님은 요구성이 높은분이신게로구나. 하지만 넌 다음번 시험에 꼭 10점을 받으리라 믿는다. 자기 부족점을 깨달은 사람은 발전하는 법이니까.》

《꼭 10점을 맞겠습니다.》

소년은 발쑹 웃으며 힘있게 대답하였다.

《전 이젠 가보겠습니다.》

소년은 한스와 할머니에게 머리숙여 인사를 하고는 돌아섰다.

한스는 소년의 뒤모습을 바라보며 그에게서 전에 느낄수 없던 생신함과 순결함을 감수하였다. 그 향기는 한스의 가슴속에 삶에 대한 의욕과 사랑의 감정을 소생시켜주는듯싶었다. 그는 소년과 헤어지는것이 아쉽기까지 하였다. 그는 소년을 불렀다.

《애야, 나도 저기까지 함께 가자.》

한스는 소년과 함께 거리에 나섰다. 해빛이 눈부셨다. 그러나 상념의 세계에서 헤매던 한스는 한동안 그것을 느낄수 없었다.

그는 고독한 사람이였다. 그에게 가까운 살붙이가 있다면 단 하나 손자가 있을뿐이였다. 그러나 그 손자는 할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렸다. 그의 벗이, 그의 힘이 되어줄 사람이 없었다. 몸이 피로울 때 따뜻한 물 한모금 떠다줄 사람이 없었다. 단 한사람 일망정 그의 마음을 알아주고 넋을 이어줄 사람이 있다면 비록 자기의 한생은 쓸쓸하게 끝날지라도 그는 행복할것이다.

멍들고 재가 앉은 그의 가슴에 이 조선소년은 잊혀진지 오랫동안 인간에 대한 순결한 마음을 봄날의 아지랑이처럼 아물아물 피워올렸다. 길건너 아이들이 떠들며 놀고있는 아동공원앞에 이르러 한스는 소년에게 부탁하였다.

《애, 너 내 안경을 좀 가져다주렴, 해빛에 눈이

부신데 색안경을 방에다 그냥두고왔구나.》

소년은 패치 응하고 되돌아 달려갔다.

한스는 아이들이 즐겁게 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서있었다. 물레바퀴를 타고 빙빙 돌아가며 좋아하고 깔깔 웃는 아이들의 모습이 재롱스러웠다.

갑자기 픽 돌개바람이 휘몰아쳤다. 공원에서 놀던 아이들의 모자가 나무잎처럼 날라졌다. 짹짹 따르며 까르르 웃는 소리가 터졌다. 그는 즐겁게 노는 아이들을 한동안 재미있게 바라보고있었다. 그런데 부탁받은 소년은 돌아오지 않았다 웬일일까? 그동안이면 뛰어간 소년이 돌아오고도 남을 시간이었다. 그는 호텔쪽을 눈여겨보았다. 소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할수없이 그는 되돌아 걸음을 옮겼다. 여러가지 추측을 해보았으나 소년이 오지 않는 이유를 알수 없었다.

혹시? 그의 머리에는 아름답지 못한 의혹이 떠올랐다. 그는 곧 머리를 흔들었다. 그럴수야 없겠지... 그러나 모른다... 그의 머리속 의혹은 다시 이렇게 말하였다. 인간세상의 악행에 그처럼 가슴을 찢기운 내가 어떻게 그런 아름다운 인간을 대뜸 기대할수 있느냐... 그는 어쩐지 방금 가슴에 품었던 아름다운 새를 놓친것만 같았다. 허전해진 가슴을 달랠길 없는 그의 발걸음은 자기도 모르게 무거워졌다. 호텔트락에 들어서서 사람의 그림자 하나 열씬하지 않는것 같은 고요한 후원쪽으로 걸어갈 때 한스의 생각은 더욱더 절망적인데로 흘렀다. 소년이 그것을 가지고 제갈데로 가버렸을수도 있지. 그것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물건이니까. 그것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인생에 가해진 상처가 불 치의 병임을 다시금 확인하는것 같아서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아니다. 그렇게까지는 될수 없다!...

그렇지만 생각해보라. 지체있는 로학자의, 로교육가의 손자가 집에서 소중히 간수하는 물건을 불순한 목적으로 서슴없이 훔쳐냈을진대 한갓 청소부의 손자가 그런 일을 했다고 별로 탓할것도 못되지 않는가!...

이미 실망해버린 한스는 힘없이 걸어갔다.

뜻밖에도 잔디밭앞에 소년이 서있는것이 보였다. 소년은 웬일인지 잔디밭 안쪽을 들여다보며 어쩔바를 몰라하듯 좌우로 왔다갔다하고있었다. 한스는 소년이 왜 그러는지 알수 없었다.

《무슨 일이나?》

그는 소리쳐 물었다.

그러자 소년은 얼핏 얼굴을 돌리더니 급히 한스의 앞으로 뛰어왔다.

《선생님, 기다리실걸 생각 못하고...》

소년은 당황한듯이 얼굴을 붉히고 손에 쥐고있던 안경집을 내밀었다.

《무슨 일이나?》

한스는 그것을 받으며 다시 물었다.

《바람에 모자가...》

소년은 손으로 잔디밭을 가리켰다. 파란 잔디밭 안쪽에 소년의 하얀 등산모가 동그라니 놓여있었다.

《아! 그럼...》

기쁨과 자책이 뒤엉킨 목소리가 한스의 입에서 새어나왔다. 그는 부지중 자기의 이마를 손바닥으로 때렸다. 얼마나 그릇된, 아니, 죄가 될 생각을 하였는지! 이 맑은 두눈을 가진 소년, 이 순진한 소년을 두고 그런 생각을 할수 없지. 아, 나의 생각은 이렇게도 이지러졌던가!...

《그럼 어서 꺼내자!》

한스는 소년의 손목을 쥐고 거침없이 잔디밭둘레의 생나무울타리를 뛰어넘으려 하였다.

그러자 소년은 한스의 손을 잡아당겼다.

《선생님, 잔디가...》

한스는 주춤 걸음을 멈추었다. 온몸이 굳어진듯 하였다. 그는 미처 생각을 못하였었다. 소년은 잔디를 밟을수 없어 모자를 꺼내지 못하고있었던것이다.

한스는 얼마나 사람처럼 소년의 얼굴을 물끄러미 마주보다가 잔디밭을 내려다보았다. 티끌 하나 묻지 않고 파랗게 자란 잔디밭, 그 깨끗한 잎사귀들이 미풍에 하느적거렸다. 거기서는 생신하고 향기로운 공기를 풍기며 한스의 가슴을 시원히 열어 주는 것 같았다.

이 공기를 그대로 한가슴에 안고 조국으로 돌아가고싶었다. 그곳에서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불구로 만드는 독기서린 공기를 몰아내고싶었다.

《그럼 이렇게 하자.》

한스는 단숨에 자기 방으로 달려올라가 낚시대를 들고 내려왔다. 고기를 낚아내듯 모자를 꺼냈다. 모자를 받아든 소년은 기뻐서 어쩔줄 모르듯 깡충뛰어오르기까지 하더니 굵적 허리굽혀 고맙다고 인사를 하였다. 한스는 습관처럼 품속에 소중히 간직하고다니던 수첩을 꺼냈다. 이 기특한 소년의 필적을 기념으로 남기고싶었다. 그러나 한스의 심정을 알리 없는 소년은 벌써 저만치 달려가고있었다. ...그에게는 차시간이 긴박했던것이다.

한스는 그 애의 이름과 주소조차 알지 못한것이 후회되었다.

그의 가슴속에는 난생처음 체험해보는, 뭐라고 이름할수 없는 숭고하고 정화된 감정이 그들먹이 고여올랐다. 그의 눈앞에는 안개가 걷히듯 깨끗하고 밝은 새세계가 뚜렷이 펼쳐지고있었다. 아, 만일에 요하네스가 이 땅에 태어났더라면 그 애는 분명 나를 행복하게 하였을것이다... 한스는 그렇게 확신되었다. 그는 숙연히 머리를 들었다. 그의 눈앞에는 평양의 하늘높이 장엄하게 솟아있는 주체사상탑의 봉화가 눈부시게 안겨왔다. 저 빛발아래 이 땅

의 모든 참된것은 이루어지는것이다.

그 깨달음으로 하여 그의 심장은 세차게 고동쳤다. 그는 누구든 붙들고 자기의 심장을 토로하고 싶

었다. 그러나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만년필을 힘주어 들어 쓴 그는 하얀 수첩장에 이렇게 썼다.

《인간 만세!》

뜨락또르발동소리 울릴 때면

-한 농촌 3대혁명소조원이 부른 노래-

신병윤

소조기간 끝나치고

너는 이 마을을 떠나갔어도

벌에 농장벌에

뜨락또르발동소리 울릴 때면

너의 웃는 얼굴 방금 달려올듯하다고

농장원들마다 그리워 못내 그리워

불러 부르는 이름이여

3대혁명소조원치너여

논김매던 휴식참 논머리에서

덧거름주던 밭머리에서

뜨락또르운전기술 어서 배워야 한다면

그리도 아글타글 애쓰던 네가 아니냐

보폭에 그림을 그려가며

뜨락또르기관원리 차근차근 알려줄 땐

너는 어찌보면

이 마을의 정다운 너선생같아

사람들은 말하더라

농촌기계화의 한길에

걸음걸음 앞서 걸으며

네가 선 교단은 언제나 논두렁

네가 정한 교실은 언제나

넓고넓은 온 농장벌이라고

하기에 농장원들

뜨락또르운전수 자격받는 그날엔

네가 먼저 받아야 할 꽃다발

네 너무 기뻐 너무 기뻐

오히려 그들의 가슴에 안겨줄 때

그만에야 농장원들

가슴뭉클 젖어들지 않았더라

정녕 농장에 오래 산다 해서

사람들의 기억속에 남는것이 아니구나

몇해 살다 떠나가도-

이 농장벌 이 농장원들속에

영원히 함께 사는 처녀여

3대혁명소조원치너여

아, 너는 그 어디 있어도

여기에 함께 있다 함께 산다

뜨락또르발동소리 높이 울리는

네가 양성한 농장벌 운전수들속에

불빛은 농업과학기술지식선전실

농장원들앞에

논에 들에 피어나는 웃음과 함께

내 무슨 꽃을 피우면

너처럼 아름답게 필수 있을가

너는 진정 3대혁명의 붉은꽃

꽃중에서도 영원히 그 향기 잃지 않는

우리 당의 붉은꽃

밤이나 낮이나

농장벌에 뜨락또르발동소리 울릴 때면

나도 너처럼 충성의 꽃을 피우기전엔

순간도 쏘지 말라

내 가슴에 울리는 발동소리

너는 우리앞에 걸어가고있다

전진하는 혁명의 전위

우리 3대혁명소조원들의 대오앞에

영원히 이 벌을 가꾸며

11년제의무교육의 첫걸음을 뗀 아동들의 생활에 대한 감동적인 화폭

-중편소설 《1학년생》에 대하여-

오정애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끊임없이 발전하고있는 우리 아동문학은 오늘 자기의 아름다운 빛깔과 고유한 향기로 어린이들의 사상정서적교양에 적극 이바지하면서 그 화원을 더욱 다양하고 풍만하게 가꾸어가고있다.

최근에 나온 중편소설 《1학년생》(김정)은 아이들의 생활에 대한 탐구정신과 문제성에 있어서, 우리 시대 아이들의 성격에 대한 깊이있는 리해에 있어서 작가의 깊은 사색과 새로운 주장이 느껴지는 작품이다.

중편소설 《1학년생》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11년제의무교육의 첫걸음을 뗀 인민학교 1학년시기 어린이들의 학습과 생활을 기본소재로 하고있다.

이 시기는 사람의 일생에서 다감하고 친진란만하며 또 인상깊고 귀중한 시기이다.

어미닭의 품속에 있던 병아리가 그 품에서 나와 처음으로 저 혼자 트랙과 마을길을 활개치며 다니듯이 가정과 어른들의 보호속에만있던 아이들은 자립적인 생활의 첫자욱을 옮기게 되는것이다.

인민학교 1학년생으로 지금 자라고있거나 이미 그 시절을 벗어난 아이들이거나 또는 학창시절을 떠난지 오랜 어른들이거나 할것없이 잊을수 없는 생활로,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되어있는 시절, 그 시절의 생활에 대한 예술적재현은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을 끈다.

지난 시기 우리 아동문학은 이 시기 어린이들의 생활에도 적지 않은 관심을 돌려왔다.

그러나 많은 경우 그가 반영한 생활들은 단편적인 이야기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중편소설 《1학년생》이 우리들을 기쁘게 하는 것은 인민학교 1학년시기 어린이들의 생활을 중편이라는 비교적 큰 형식에 담아 보여주고있는데 있다.

작품에서는 이제 제발로 걷기 시작한 어린이들, 구체적으로 11년제의무교육의 혜택을 받는 1학년생들은 어떤 어린이들인가, 그들의 심리정서 세계, 정신적높이는 어떠한가 그들의 성격은 어떤 환경속에서 이루어지고 발전하는가 하는 문제들을 제기하고 깊이있게 해명하고있다.

작품은 락아소와 유치원 과정을 마치고 11년제

의무교육의 첫걸음을 뗀 우리 어린이들은 지적면에 있어서나 도덕적면에 있어서 이전시기의 같은 연령기 아이들에게서는 찾아볼수 없었던 새로운 품모와 자질을 갖춘 어린이들이며 그들의 사고와 판단, 의식수준과 정신세계는 참으로 깊고 풍부하며 아름답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동시에 작품에서는 1학년생들과 주위환경과의 관계속에 그리고 다양한 인간관계를 통하여 우리 사회에서 어린이들은 가장 복받은 세대라는것, 배움에 대한 무한한 욕망, 진취적이고 아름답고 고상한 지적 및 도덕적 품성 등 모든 특성들은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만 이루어진다는것을 감동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이렇게 하여 작품은 인민학교 1학년생들의 일상적이며 평범한 그러나 비상히 다양하고 풍부한것으로 특징되는 생활들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11년제의무교육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예술적으로 힘있게 확인하고 어린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우며 그들을 위해 모든것을 다 돌려주고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격조높이 칭송하고있다.

바로 여기에 중편소설 《1학년생》의 높은 사상 예술적경지가 있으며 새로운 탐구와 창조적성과가 있다.중편소설 《1학년생》이 제기한 주제사상적 과제는 주인공 금동이를 비롯한 어린이들의 형상을 통하여 깊이있게 밝혀지고있다.

작품에서는 학교와 가정, 사회적환경속에 있는 금동이와 그의 반 동무들의 학습과 과외생활 그리고 그 연령기에 있을수 있는 다양한 생활들을 통하여 학교전교육을 통해 지적으로 발전된 우리 시대 새형의 어린이들의 사상정신적면모를 깊이있게 밝히고있다.

이것은 특히 주인공 금동의 형상을 통하여 집중적으로 밝혀지고있다.

금동의 성격에서 가장 특징적인것은 새것에 대한 강렬한 지향과 호기심이며 그로부터 오는 탐구적인 행동성이다.

호기심이 강하고 그 무엇인가 알고저하는 지향은 어린이일반에게 고유한 특성이다.

어린이들은 주위현실에 대하여 아는것이 적고 체험도 부족하기때문에 모든 사물현상에 대하여 강한

호기심을 나타내며 알고 싶어한다. 특히 어린이들 가운데서도 인민학교 1학년기는 지능발달이 제일 왕성한 시기이다.

락아소, 유치원 시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놀이감,그림, 공작을 통한 지능교육단계로부터 글을 통한 지능교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인민학교 1학년시기는 그 어느때보다 알고저하는 욕망이 앞서며 새것에 대한 지향이 남달리 강하다.

작품에서는 바로 1학년시기 어린이들의 이러한 특성에 맞게 주인공 금동의 성격을 창조함으로써 새것에 대한 지향과 호기심이 강한 우리 시대 어린이의 성격을 생동하게 창조할수 있었다.

금동의 생각 하나, 행동 하나는 다 이러한 남다른 호기심과 그 무엇인가 해보려는 욕망과 깊이 련결되어있다.

그에게는 해가 켠켠나는 날 아스팔트길은 왜 물렁물렁해지는지, 어항에 파자부스레기를 넣으면 금붕어가 왜 앓게 되는지, 누가 떠밀지도 않는데 전차들은 어떻게 앞으로 움직이는지, 대극장을 지은 아저씨의 손은 얼마만큼 큰지, 정말 알고싶은것이 많았다.

작품에서는 어린이들에게 고유한 이러한 특성을 구체적인 생활정황에서 나타나는 심리, 감정, 행동 등 여러 측면에서 깊이있게 그림으로써 주인공들을 그렇듯 생활에서와 같이 살아움직이는 생동한 성격으로 창조할수 있었다.

특히 작품에서는 금동이의 성격을 어린이들의 특성에 맞게 지적으로 발전되어가는 과정으로 그리고 있다.

금동이에게서 보는바와 같이 어린이다운 호기심은 그것을 직접 해보고싶은 충동으로 불타오르며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에 그의 자주적지향은 더욱 커진다.

금동이는 공중전화소에서 어른들처럼 전화도 걸어보며 평양이 얼마나 넓은가 알아보기 위해서 먼 교외까지 동무들을 이끌고 가보기도 한다.

금동이에게 있어서 새것에 대한 이러한 지향과 호기심은 행동을 낳는 기초로 되고있다.

사고가 단순하고 인식이 얕은 그들은 때로 엉뚱한 행동과 모험을 동반한다.

작품에서 금동이가 출장간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는 장면은 바로 주인공이 가졌던 호기심이 어떻게 자주적지향으로 발전되어가는가 하는것을 보여주는 생동한 실례이다.

《보고싶은 아버지에게

...내가 없는 사이에 차를 타고 출장간 아버지, 신발자면 온다구 하구서 왜 예순밤이 지나도 오지 않습니까...》

난생처음 쓰는 편지다. 비록 서투르나 1학년생인

금동이의 소박한 뜻이 그대로 담겨져있다.

그런데 어머니에게서 통을 맞았다. 편지라는건 문안부터 해야지. 그리하여 어머니가 다시 불러준다.

《...머나먼 객지에서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우리 세식구는 모두 별고없이 잘 있습니다.》

금동이에게는 이 말들이 귀에 설다. 객지가 뭔지, 별고란 무슨 말인지.

그리하여 금동이는 편지를 부치지 않고 다시 쓴다. 자기 식대로 아버지를 보고싶은 자기 심정대로...

간단한 이야기지만 여기서는 금동이의 자주적지향과 자립적행동이 생동하게 안겨온다.

작가는 어머니와 금동이사이에 벌어지는 크지 않은 이 한 장면을 통해서도 자기 주견을 세워갈줄 아는 주인공의 내면세계와 지적변화과정을 섬세하게 펼쳐보여주었다.

이처럼 자기 머리로 생각하고 자기 힘으로 해보려는 자주적지향은 주체교육을 받는 우리 시대 어린이들에게서 찾아볼수 있는 전형적특질이다.

작품에서는 사물현상에 대한 호기심으로부터 그것을 자기 힘으로 스스로 깨우치며 자주적으로 살아나가며 행동하려는 주인공 금동의 정신적장성과정을 통하여 11년제의무교육의 첫걸음을 뗀 1학년생들의 높은 의식수준, 지적세계의 새로운 면모를 깊이있게 일반화하였다.

금동의 성격에서 중요한 특징을 이루는것은 또한 그 나이때에 고유한 명랑하고 발랄한 동심이며 긍정도 있고 때로는 부정도 아직 가지고있는 어린이로서의 그의 산 개성이다.

어린이들에게는 어른들에게서는 볼수 없는 자기의 고유한 특성, 동심이 있다.

어린이들은 언제나 생기발랄하고 낙천적이며 장난을 즐기고 남의 모범을 따르기 좋아하며 모험심이 크고 환상이 풍부하며 그 무엇인가 엉뚱한것을 생각해내곤한다.

따라서 어린이의 성격창조에서 동심에 관한 문제는 필수적인 문제로 제기된다. 동심에 관한 문제를 단순히 어른들에 비한 어린이들의 연령상차이로서가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 그 나이에 고유한 심리정서적특성의 다양한 굴절과 발현으로 구체적으로 파고들 때 어린이들의 성격형상에서 참신성과 생동성, 진실성을 옹계 보장할수 있다.

중편소설 《1학년생》에서는 금동이의 성격에 그의 동심에 맞게 다양하고 풍부하게 파고들으로써 그를 집단과 동무들을 사랑하고 좋은 일을 스스로 하는 긍정도 있고 때로는 부정적측면도 있는 천진烂漫하면서도 속깊은 어린이로 생동하게 그리었다.

금동이는 세상에 부럼없이 행복밖에 모르고 자란

우리 시대 어린이로서 언제나 웃고 뛰놀며 엉뚱한 장난을 즐긴다.

그의 머리속에는 별의별 궁리가 다 떠오른다. 어른들의 흉내를 내어 같은 아빠트의 재수에게 편지를 써보내며 웃춤의 재수와 낚시줄로 먹을것을 연락하기도 한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대단하게 여기고 출장간다고 동무들앞에 우쭐렁거리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동무들에게 딱한 사정이 생기면 먼저 나서서 도와주기도 한다.

작가는 금동의 성격의 전모를 보여주는데서 서두르지 않는다.

부단한 변화발전과정에서 자라는 어린이들의 성격이란 어쩌면 복잡하기도 한것이기때문이다.

금동이는 암산시간에 남의 손가락을 빌리려다 망신도하며 의사선생님이 찾아와서 놓아주는 주사도 맞지 않고 그것으로 하여 속이 썩기여 학교까지 결석한다.

이것들은 물론 긍정적이라고는 볼수 없으나 그들의 생활에서는 흔히 있을수 있는 고유한 동심세계에서 흘러나온 행동들이다.

문제는 그의 이러한 동심을 형상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것이 중요하다.

작품에서는 금동이의 부정적측면을 형상하는 경우에도 그가 그것을 선생님과 동무들의 방조속에서 또 어른들의 충고를 받으면서 자기스스로의 느낌과 깨우침을 통하여 어떻게 극복해나가는가 하는것을 감명깊게 그리었다.

금동이가 자기의 긍정적측면을 더욱 발전시키면서 부족점을 극복해나가는 과정은 단순한 교양이나 개변의 과정이 아니라 지적, 도덕적 성장이 더욱 높고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과정, 사회와 집단, 동지들에 대한 리해가 깊어가는 과정이었다. 나아가서 그것은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에 대한 끝없는 고마움과 감사의 정, 흠모의 감정이 짙고 자라나며 승고하게 발현되는 과정이었다.

이것은 작품에서 아버지원수님에 대한 충성의 마음을 지니게 되기까지의 금동의 성격장성과정을 어린이들의 지적발전의 특성에 맞게 보다 단순한것으로부터 점차 복잡한것으로 부단한 변화발전과정으로 보여줌으로써 어린이들의 성격창조에서 전형화의 원칙을 훌륭히 구현한것으로 된다.

어린이들의 성격장성이나 지적발전과정은 단번에 이루어지거나 생기는것이 아니며 일정한 생활체험과 지적준비가 마련되네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특히 아버지원수님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의 정, 흠모심과 같은 고상한 감정은 어린이들의 연령심리적특성에 맞는 깊은 체험세계와 밀접히 연관되어있다.

금동이네들이 한두달밖에 안되는 학교생활과정에 자립적인 생활에 대한 강한 지향을 가지게 되었으며 아버지원수님에 대한 뜨거운 흠모와 감사의 마음을 뜨겁게 지닐수 있게 된것은 이미 학교 전교육을 통하여 그 모든것을 감수할수 있는 정신적 및 지적 준비를 초보적으로 갖추었기때문이었다.

유치원시절부터 조국의 큰 뜻을 가슴에 한가득 안고 학교생활의 첫 대문에 들어섰기에 그들은 매일 차례지는 우유는 어떻게 마련되는것인지, 의사 선생은 왜 집에까지 따라와서 주사를 놓아주는지, 한시간이라도 공부시간에 빠지면 안타까와 어쩔줄 모르는 선생님들과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직장사람들과 아빠트의 친절한 아주머니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깃들어있는지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깨닫게 되는것이다. 자기들에게 차례지는 모든 사랑과 혜택이 다 아버지원수님의 뜨거운 손길아래 마련된것임을 알게 된 금동이네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원수님에 대한 감사의 정과 흠모심은 산정의 정같은 샘처럼 쉽없이 솟고 고이며 넘쳐나는것으로 되었다. 마침내 그들은 그 절절한 심정을 안고 원수님의 동상주변에 제일 고운 차돌을 끌라 정성껏 놓는것이며 공부 잘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여 아버지원수님을 꼭 만나뵈옵고싶은 강렬한 열망으로 가슴불태우는것이다.

이것은 우리 시대 어린이들의 모든 긍정적자질의 형성과 발전은 궁극에 가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혁명적수령관의 구현에서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것을 형상적으로 힘있게 확인하여주고있다. 이 작품이 우리 시대 어린이들의 성격창조에서 이룩한 가장 귀중한 성과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작품에서는 주인공뿐아니라 그의 반동무들의 형상도 다양하고 개성적인 성격으로 훌륭히 창조하였다.

찌바르고 정직한 효남이, 먹기 좋아하며 남을 잘 도와주는 어진 순일이, 별명 잘부르는 《남북골》동학이, 입이 험프고 덤비기 잘하는 재수 등 모두다 장난을 즐기는 어린이들이나 제나름의 개성적특성을 가진 사랑스러운 인물들로 안겨온다.

작품에서는 얼굴과 성미와 행동이 서로 다른 뚜렷한 특징을 가진 이들의 형상을 통하여 우리 시대 어린이들의 생기발랄하고 천진한, 그러면서도 지적높이와 다양성을 지닌 모습을 감동적으로 보여주고있으며 아버지원수님의 사랑속에 배움의 나이를 한살 앞당기게 되는 6살내기들이 인생의 첫 걸음을 능히 자립적으로 뻗수 있다는것을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보여주었다.

중편소설 《1학년생》의 사상주제적과제는 또한 어린이들의 연령심리적특성에 맞는 구성과 인간관계조직, 지문과 대화 등 예술적형상에 의해서도 깊

이있게 해결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아이들을 가르치는것도 어디까지나 그들의 나이와 심리적특성에 맞게 하여야 합니다.》

어린이들의 나이와 심리적특성에 맞게 가르치는 것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문학창작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적요구이다.

아동문학창작에서 어린이들의 특성이 잘 고려되지 않고 씌여진다면 그 작품은 내용이 아무리 훌륭하고 문제성이 있더라도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고 그들의 심금을 울릴수 없으며 따라서 교양적의의도 가질수 없게 된다.

이 작품의 구성상특성은 하나의 일관한 사건줄거리를 가지지 않고 다양한 인간관계를 통하여 이러저러한 생활적인 이야기들을 다양하게 펼쳐보이고 있는것이다. 말하자면 작품에서는 독자들에게 잠시도 실름을 주지 않고 이야기가 흥미있게 전개되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의 끝은 줄거리를 따라가는 사건이 아니라 주인공 금동이와 그의 동무들이 그 연령기에 체험하는 이러저러한 사건들의 연속으로 이야기가 꾸며져있는것이다. 따라서 구성의 중심에는 금동이가 확고히 서있으며 모든 사건들, 모든 일화들은 금동의 《참가》 밑에 그와의 관계속에서 벌어지며 이렇게 함으로써 작품에서 각양한 사건들이 하나의 유기적인 련관을 가진 이야기로 판통될수 있게 되었던것이다.

이로부터 이 작품에서는 아이들뿐아니라 어른들도 포함하여 비교적 많은 인물이 등장하고있으며 인간관계도 마치 부채살처럼 금동이와 1학년생들을 가운데 놓고 많은 갈래로 뻗어져있는 반면에 어른들호상간의 관계는 구체적으로 주어져있지 않는것이 특징이다.

금동이를 중심에 세우고 그와 같은 학급동무들인 1학년생들, 영실을 비롯한 중학교학생들, 그들을 따듯이 돌봐주고 이끌어주는 어머니와 아버지, 학교선생님과 의사선생님, 식물학연구소 연구사선생님들과 평양주변농장의 부부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간관계가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작품에서 이러한 인간관계는 금동이와 1학년생들의 다양하고 풍부한 내면세계와 자연과 사회, 생활에 대한 인식의 폭과 깊이를 각이한 측면에서 보여주며 나아가서 그들이 모든 사람들의 사회적 관심과 배려속에서 성장하고있는 가장 행복한 어린이들이라는것을 형상적으로 천명하는데 효과적으로 이바지하고있다. 작품에서는 이러한 인간관계를 설정함으로써 특히 우리 나라 어린이들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사랑과 배려, 사람들사이에서 서로 돕고 위하는 고상한 풍모가 지배하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소설은 또한 동심에 맞는 사건조직을 통하여 어린이들의 극적흥미를 불러일으키고있으며 그들의 성격을 감명깊게 부각시키고있다.

《학교길》, 《다시 쓴 편지》, 《손가락과 속셈》, 《평양은 얼마나 넓은가》, 《아버지》, 《큰심부름》 등 22개의 분제목까지 달고있는 작품은 아이들이 명백하게 이해할수 있도록 벌어지는 사건들을 한자리에서가 아니라 생활의 다양한 공간과 사건의 부단한 변화와 발전속에서 명백하게 주고있다.

그리하여 한 사건이 끝나면 그와의 련속으로서 다음 사건을 가슴조이며 기다릴수 있게, 속도가 빠르게 이야기가 엮여지고있다.

이 소설에서 사건에 대한 흥미, 작품의 속도감은 사건전개가 성격발전과정과 밀착되어있는 측면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아동소설에서 장소와 무대의 평면적인 변화만으로는 아이들의 요구를 충족시킬수 없다. 사건발전에 따르는 흥미진진한 생활들이 펼쳐져야 하며 그 과정을 통하여 성격발전과정이 안겨와야 사건이 참으로 흥미있고 교훈적인것으로 될수 있다.

작품에서는 학교길로부터 시작한 1학년생들의 생활과 그 변화과정이 흥미있는 사건속에서 특색있게 그려지고있다.

학교길이 너무 짧아 에돌아가던 1학년생들로부터 암산시간의 잘못을 뉘우치며 자기 힘으로 편지를 다시 쓰고 숙제도 하며 자기들을 그토록 사랑하는 당의 고마움을 느끼며 생활의 진리를 스스로 깨우쳐내도록 사건이 전개되고있다. 이러한 다양한 사건은 복반은 1학년생들의 학교길로부터 시작되어 6살내기 금동이네들을 그토록 훌륭하게 키워낸 김향선생이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버지수령님께 충성의 보고를 드리러 가는데서 절정을 이루고있다.

이처럼 작품은 시건을 성격장성과정과의 통일속에서 그림으로써 아이들이 사회와 생활에 대하여 깊이 인식하며 세계관의 골격을 세워나가는 과정을 명백하고 깊이있게 밝혀내고있다.

소설에서는 또한 동심에 맞는 생동하고 특색있는 지문과 대화들을 잘 살려쓰고있다.

동심적이며 생동한 언어표현들은 작품의 예술적 향기를 더욱 짙게 하여주고있다.

하나의 실례를 들어보자.

《수자들이 사는 집은 정말 많다. 시계처럼 생긴 둥그런 집도 있고 담벽처럼 생긴 〈아베트〉도 있다.

돈, 신발, 출생증, 성적증, 석유공급카드…

수자는 어디에나 다 있다.

그리고 수자에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

수자에 대한 금동이의 심정을 보여주는 서술이다.

어찌보면 금동의 내면독백같기도 하고 어찌보면 아이들에게 하는 작가의 설명같기도 하다. 어쨌든 생활적인 말들이고 긴 설명 없이도 간단명료하게 된 문장이어서 얼마나 좋은가, 비록 몇줄밖에 되지 않는 짧은 글이나 여기에서 우리는 학교에 갓 입학하여 수자에 대한 지식을 넓혀가는 금동의 내면세계를 충분히 감득할수 있다.

작품에서는 이와 함께 어린이들의 동심에 맞는 대화들을 기발하게 씌으로써 성격의 생동성을 더욱 진하게 하고있다.

작품에서 대화는 성격적이고 생동하고 진실한것으로하여 살아움직이는, 마치도 자기 눈앞에서 즐겁게 뛰놀며 공부하는 귀여운 어린이들을 보며 그

들속에 있는것과 같은 깊은 인상을 준다.

참으로 중편소설 《1학년생》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11년제의무교육의 꽃대문에 들어선 우리 시대 어린이들의 생활에 대한 깊이있는 탐구와 형상화의 높은 수준으로 하여 우리 어린이들의 교양에 힘있게 이바지하고있다.

우리 아동문학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밝히신 주체적인 아동문학건설에 관한 방침을 높이 받들고 아이들의 나이와 심리정서적특성에 맞으며 그들의 학습과 생활을 더 깊고 다양하게, 아름답게 하는데 이바지하는 훌륭한 소설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할것이다.

시 한편 새겨놓고 외 1편

오필천

걸어서 가자니 백리가 넘는 길을
차를 타고 돌자니 다 밟고싶어
솟는 해를 마주하고 떠난 걸음
원두봉 마루에서 해지우고 쉴네

한걸음 옮기고 그 자욱 새겨보며
수령님 세여주신 꽃순 나도 세여보고
한릉선 넘어서서 걸음 다시 멈추고
수령님 끌어주신 나무 나도 끌어보고

밟는 땅 이랑마다 못잇을 이야기로
안아보는 아지마다 사랑의 전설로
수령님 뜻 전하고 당의 은덕 노래하는
백리라 과일군 사랑의 과원이여

아, 뜨겁게 달아오른 가슴에 붓을 적시여
이랑마다 사적이고 나무마다 유래비라
시 한편 새겨놓고
래일 다시 밝아오를 신대등을 바라보네

《영옥》 이들

알구말구 겨울이면 굳잠든 사과나무에
밀거름 듬북주며 알았노라고

알구말구 봄이면 사과꽃 하얀가지에
꽃가루 묻혀주며 알았노라고

알구말구 알았지 가을이면 무르익은 파일을
알알이 따들이며 알았노라고

이 땅의 푸른 숲 한줄 흙을 소중히 다루어
무릉도원 가꿔가는 파원의 딸들아

너희는야 정녕 오늘의 《영옥》 이들
《영옥》 이들 많아서 내 나라는 딸자랑도 많아
-과일군에서-

투사들이 태어난 날을 읽으며 외 1 편

리종덕

어느 투사의 반신상앞에서도
가슴속 시를 불러내는
선렬들의 생년월일

인생이 돌덩이같던 세월
태줄을 끊은곳 어데이고
태어난 날은 언제더냐

바람찬 남의 집 헛간일수도 있으리
문풍지 울던 오막살이 그 밤일수도 있으리
피약별 뜨거운 어느 발머리
오랑캐령을 넘던 그 길가는 아닌지

태어난곳 태어난 날은 같지 않아도
한사람같이 눈물속에
생을 받았던 사람들
아, 위대한 장군님의 품에
혁명전사로 다시 태어나던
감격의 그날들은 언제더냐

어느날이더냐
적후의 한 전사의 생일날을 그리시며
아버이수령님께서
수저를 들지 못하시던 날은

어느날이더냐
전투의 그 어려운 속에서도
김정숙어머님 차리신 생일상앞에서
뜨거움을 삼키던 전사의 생일날은

불비가 내리고 눈비가 사나운
세월의 락엽속에서도
투사들의 생일날은
단 하루도 지워지지 않았으니

아, 여기 적혀져 있는
태어난 날은 같지 않아도
영원한 삶의 한 나이로
투사들은 살고있구나
위대한 사랑의 한품에 안겨

청 춘

-리순희동지의 반신상앞에서-

나이를 세여보니
열여덟살
살아야 할 나이를 몇갑절두고
투사는 갔구나

투사의 그 맑은 눈에 그려안고
가슴이 부풀도록 안아보던
희망은 무엇이였더냐

하늘같은 희망
바다같은 포부
내 가슴에 다 없어주고
투사는 갔으니

노래를 불러도
투사의 뒤편까지 불러야 하리
간석지로 달려가도
더멀리 제방을 쌓아야 하리

못다피운 선렬들의 청춘까지도
꽃피워야 할 청춘이여
누리지 못한 그 행복까지도
아름이 넘치도록 알아야 할
청춘이여

가슴은 얼마나 넓어지는것이나
투사가 안았던 그 희망까지도
함쳐 안을 가슴이니
어깨는 얼마나 역세여지는것이나
투사가 하고싶던 일감까지
목직이 실리거니

아 세월이 흘러도 흘러도
변함없을 꽃망울 나이로
수천만 청춘을 갑절로 빛내여줄
이세상 아름다운
청춘이여 청춘이여 !

어디선가 낯익은 외 1 편

박웅전

풀색 배낭을
논머리에 벗어놓고
프락포르 타고서 찌레질하는 사람
등그런 농림모밀에 땀흘리는 얼굴
어디선가 낯이 익은듯...

버들꽃 날리는 봄들판에서
분조 오락회로 벌이 돌썩한데
배당에서 꺼먼 하모니카 불며
선동원 나를 불러
부르고싶은 노래 청해준 사람
어디선가 인상도 깊은듯...

일마치고 돌아오는
저녁노을 비낀 들길우에서
그의 이야긴 또 얼마나 뜨거웠던가
...땅은 준것만큼 낼줄 아는
진실만을 받아들인다고
우리 성실한 노력 아낌없이 바쳐
아버이수령님께 만풍의 기쁨드리자고...
어디선가 그 목소리도 귀에 익은듯...

볼수록 만날수록 반가이 이끌리고
모르는새 힘과 용기 안겨주는 사람

언제 우리 그와 함께
떠들썩 웃으며 희망찬 이야기 나누었고
어디서 사람들 그와 함께
서로 얼싸안고 기쁨의 환호 올렸던가

더더욱 진하디진하게 불타는 노을속에
문뜩 잊지 못할 그 화면들이 떠오른다
새마을 원두막에서 지게를 벗이놓고
백두의 큰별이야기 농부들과 나누던 김혁
로동자와 얼싸안고 빙빙 돌며
성공의 기쁨 호탕하게 터치던
차석빈의 그 웃음, 그 얼굴이...

정녕 그래서였구나
우리 수령님과 당중앙에서
청년공산주의자들처럼, 차석빈이처럼
인민의 참된 총북으로
하나같이 키우시는 미더운 일꾼들이어서
하나같이 낯이 익었구나

배낭지고 온 사람
아 알고보니
새로 온 우리 군당지도원

영웅들의 고향

나는 아직 모른다
산원에서 난 아이들
출생지를 어떻게 적는지?
혹여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어느 군 어느 읍 몇반이라고
부모들의 주소를 따라 적지 않는지?...

허나 사람들은 부르더라
노래처럼 전설처럼
이 애는 평양산원에서 낳다고
아이들도 똑똑히 대답하더라
나서 처음 배운 말로
저들은 평양산원에서 낳다고

이제 아이들 커서 학교갈적에

선생님들 물으면
이제 아이들 다 자라 군대갈적에
초소의 젊은 중대장들 물으면
자랑넘쳐 대답하는 그들의 출생지를 두고
얼마나 얼마나 뜨거운 생각들을 하라

아 평양산원 솟아나
벌써 태어난 아이들 수만명
세월이 흐르면
수십만, 수백만이 되리니

그들이 다 자라면
우리네 산원태생이라고
얼마나 멋진 시들을 쓰랴
새시대의 영웅들과 위훈자들의 수기를 쓰며

신문기자들은 잊지 않으리라
《산원태생》이란 소제목을 다는것도

하거니 적어달라
그들의 출생증에도 공민증에도
출생지는 《평양산원》이라고
그러면 그것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향도의 해발속에
가장 복받은 세세대로 태어난

영광의 징표로 되리니

산원이여, 평양산원이여
너는 영원히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이 사랑, 이 은덕에 위훈으로 보답해가는
이 나라 영웅들의 출생지
영웅들의 고향으로 솟아 빛나라 !

기관사의 기쁨

정영호

기적소리도 드높이
층층 구름안개를 헤쳐오르는
험한 령 구배길
울렁이는 이 마음을 조이며
지그시 가감변을 당기는데

아득히 이끌려오는 화차행렬의 한끝
차장차에서 흔들어주는
푸른 신호기의 춤추는 모습
-이상 없음 이상 없음
새 견인초과 돌파 !

가슴 가득히 밀물쳐오는 기쁨이여 !
한대의 화차라도 더 끌어가자고
철길우에 방울지는 새벽이슬
한밤에 내리는 안개발의 미끄럼까지
하나하나 몸에 배도록 익혀가며
밤도와 걸어보고 헤아려보던 자욱자욱들이
이렇듯 크나큰 환희로움으로 안겨오는가

끝없이 미끄러져 나오누나
아름드리 갱목을 실어올리며

탄뎁은 더 많이 밀어달라던 벌목부들의 그
당부
쏟아지는 비료폭포를
그대로 다는 실어못가느냐고
따라오며 바래주던 하조장 처녀들의 명랑한
웃음소리...

하늘 가득 불노을을 태우며
소리치는 야금기지
연기 뿜어올리는 화력발전소
설레이는 황금벌...
두줄기 은빛 철길우에
들끓는 온 나라가
다 실리였거니

아, 눈비가 앞을 가리랴
사나운 폭풍이 막아나서랴
험한령 구배길도 단숨에 날아넘어
천리를 주름잡고 만리를 주름잡는
기관사의 마음은 온 나라의 마음
기관사의 기쁨은 온 나라의 기쁨

가사

세소어업 좋구 좋아

리수덕

이른아침 노을실고 떠나간 낚시배
배진 가득 기쁨실고 포구로 돌아오네
세소어업 좋구좋아 오늘도 만선이랴
갈매기도 춤을추며 우리를 반겨주네

나가면서 그물치고 돌아오며 그물당겨
큰 고기 작은 고기 어장마다 넘친다네

세소어업 좋구좋아 풍어기 날리니
고기푸는 처녀들의 노래도 풍년일세

백사장의 해당화는 한철만 피고져도
포구에는 사시장철 웃음꽃 만발하네
세소어업 좋구좋아 언제나 만선이랴
인민생활 꽃피우는 이자랑 끝없어라

아들문제

김문창

려객렬차는 광산역에서 1분간 정차했다가 총총히 떠나갔다.

무겁게 내려앉은 하늘에서 찐득눈이 흩날렸다. 상급차에서 내린 최석태는 사람들의 뒤에 묻어서 표반는곳을 나가며 아들의 모습을 찾았다. 안해가 전보를 쳤다고 했으니 아들은 틀림없이 예까지 마중나왔을것이었다. 그런데 아들은 보이지 않고 퇴색한 군대숨저고리를 입은 날렵하게 생긴 젊은이가 느닷없이 다가와 차렷자세를 하며 물었다.

《국에서 오시는 국장동지가 아닙니까?》

《그렇소. 그런데 동무는 누구요?》

《지배인동지가 마중나가라고 해서 승용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 그렇구만!》

저녁에 있는 통근렬차를 기다릴것도 없이 광산까지 20리길을 걸어올라갈 마음이었던 석태는 얼마나 반가운지 몰랐다. 그는 눈썹락들이 미끄러볼지도 못할 정도로 반들거리는 밤빛의혁가방을 운전사에게 맡기고 그를 따라 승용차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승용차는 그가 발을 올려놓자 금시 비명같은 소리를 지르며 넘어질듯이 기우뚱했다가 가까스로 균형을 잡았다.

승용차는 쾌속으로 달렸다. 눈썹락들이 안겨들듯이 돌진해오고 가로수들이 가지들을 손처럼 흔들었다. 차바퀴밑에서는 경쾌한 음악이 연주되었다.

10여년만에 채광장을 찾는 석태에게는 모든것이 자기를 반겨 인사를 보내주는것만 같았다.

《그래 채광생산이 어떻소. 연간계획을 할것 같소?》

마음이 사뭇 들썩해진 석태는 구면친구이기라도 한듯이 운전사를 돌아보며 빙시하니 웃었다.

《하지 않구요. 모두 지원해주는데 못하고 됩니까. 이달 계획두 110프로는 할것 같습니다.》

《그렇겠지. 채광장이니까...참, 그런데 동무는 어떻게 나를 그렇게 인차 알아보았소?》

《그거야 뭘... 옷이 말해주던데요.》

운전사는 앞에 눈길을 준채 싱긋 웃었다.

(웃을 보구?)

그제야 석태는 자기의 옷차림을 새삼스럽게 보았다.

밤색 반의투머 수달피모자... 평양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옷차림이었으나 광산지대에서는 유평하게

눈에 뵈수 있는 모습이였다. 석태는 눈치가 빠른 젊은이를 자못 굶뜨고 둔한 자기 차 운전사와 부지중 대비해보며 시뭇이 미소를 던지고나서 창밖의 풍경으로 눈길을 돌리였다.

승용차는 어느덧 채광장으로 올라가는 산턱길에 잡아들였다.

눈발속으로 띠처럼 뻗어나간 무수한 채굴계단들과 똥기적거리며 움직이는 대형자동차들, 하늘을 찌르고 선 착정기들이 어렴풋이 바라보였다.

《국장동지는 우리 광산에 처음 오시지 않습니까?》 밖에 눈길을 끌고있는 석태를 보고 운전사가 물었다.

《왜, 그런것 같소?》

《네, 그렇지 않습니까?》

석태는 대답대신 어이없는 웃음을 지었다. 부에 소화되기전까지 15년이나 광산에 있으면서 채광사업소의 광구장만도 10년이나 한 사람을 보고 처음이라니 그는 어쩐지 허구쁜 마음을 견잡을수가 없었다.

《그래 동무는 광산에 있는지 오래오?》

《뭘 제대된지 3년밖에 안됩니다.》

석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해보면 광산에 온지 겨우 세해가 되는 운전사가 10여년전에 떠난 자기를 모른다고 해서 서운해할건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석태는 자기의 생애에서 것처럼 중요했던 광산시절이 새사람들에 의해 무시되어 버리고 영영 묻혀버린것만 같아 알찼해지는 마음을 누를길 없었다.

석태는 담배를 꺼내 피워물고 운전사에게도 권했다. 그리고는 운전사에 대해 이것저것 물었다. 그가 아직 총각이고 합숙에 있다는것을 알고는 혹시 아들에 대해 말해줄수 있을것 같아 물었다.

《합숙에 있으면 혹시 최경철이라구 모르겠소?》

《어느 최경철말입니까? 채굴중대 최경철이도 있고 발파공 최경철이도 있고 운광에도 또 있는데...》

《평양에서 온 경철이말ियो.》

《네-에 그치》 운전사는 알아도 잘 안다는듯 머리를 끄덕이고는 호기심 여러 물었다. 《그를 어떻게 아십니까?》

석태는 운전사의 말투에서 아들의 일이 시원치 않음을 대번에 느꼈다. 그는 어쩐지 자기가 그의 아

버지라는것을 사실대로 밝힐수가 없어 그저 한 아 파트에서 같이 사는 집 아들이라고 우물우물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다.

《그렇습니까? 그럼 이제 평양에 돌아가면 단단히 얘기해주시시오. 말을 들으니 경찰의 아버지도 무슨 간부인가 한데 어떻게 되어 아들을 우리 광산에 보냈는지... 하여튼 자식교양은 잘못된것 같습니다. 그따위들을 광산에 보내서 뭘합니까. 말썽이나 부리고 애나 먹이는걸...》

《그 애가 그렇게도 말밥에 올라있소?》

《우리 1호합숙에서 제일가는 말썽군이었습니다.

회작기운전공을 하면서 식권이 남아돌아가니까 찍하면 일을 꾸며먹고 호실에서 기타나 똥땡대면서 평양에 갈 생각이나 하고... 그런걸 왜 광산에 보냈는지 내 참... 저만 그랬으면 또 모르겠습니다. 호실 다른 사람한테까지 물을 들이고있지요.

정말 골치를 아프게 하던 동무입니다. 우리는 생각다못해 그를 채광장에 있는 합숙으로 쫓아보내는 조치까지 취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호실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그렇게 말썽을 부려야 광산에서 보기 싫다고 내놓아 평양집으로 돌아갈수 있다고 그런다는데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운전사의 말은 석태에게 모닥불을 뒤집어씌우는 것 같았다. 경찰이가 그렇게까지 너절하게 살고있으리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었다. 그는 치미는 격분때문에 운전사의 말을 끝까지 다 들을수가 없었다. 석태는 앞의 손잡이를 짊 움켜쥔채 운전사를 외면하여 옆창만 내다보며 입술을 고통스럽게 깨물었다. 그는 운전사를 더는 볼수도, 그와 아무 말도 건할수도 없었다. 자기가 바로 그 말썽군의 아버지라는것을 그가 안다면 얼마나 놀라고 뺨소를 던질것인가. 석태에게는 운전사와 같이 앉아가는 한초한 초가 무서운 고문같이 느껴졌다. 그럴수록 마음속에서는 아들에 대한 불만이 건잡을수 없게 타버져 올랐다.

경찰은 그의 외아들이었다. 그런것만큼 아들에 대한 그의 사랑과 기대는 남달리 컸다. 그는 2년전에 아들이 고등중학교를 졸업하였을 때 그의 앞날을 두고 여러가지로 깊이 생각해보던 끝에 지난날 자기가 일했던 광산으로 보낼것을 결심했다. 2~3년간 광산에서 로동을 시켜가지고 대학공부를 시키리라 마음먹은것이였다. 물론 평양에서 고이 자란 아들한테는 그 몇해가 무척 힘들것이지만 그 대신 채광장에서 단련되고 리력서에 광부경력을 가지게 될것이다. 그러면 대학 입학시에나 졸업후 배치받을 때 아주 유리할것이였다. 그리고 자기가 있었던 광산에 보내면 대학추천을 받는데서도 더 좋으리라 생각했다. 경찰이가 이 석태의 아들임을 알기만 하면 전화로 부탁만해도 자기 자식처럼 대학에 보내 줄것이였다.

그런데 아들은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내가 뭇때문에 그 먼 광산채광장에 가요? 정작장에 다니라면 여기 평양에서 다니겠어요.》

석태는 아들한테 자기의 의도를 다 말해주고싶었지만 그것만은 끝까지 비밀로 지키었다.

그것은 그가 자기의 의도를 알면 광산을 생활로 정의 그 어떤 유리한 중간역으로 여기고 광산에 가서 그저 건들치며 시간이나 보낼수 있었고 그러면 도리어 사람들의 말밥에 올라 대학을 추천받지 못할수도 있는것이였다. 그래서 그는 이런 식으로만 계속 타일렀다.

《탄소리 말구 이 아버지가 하라는대로 해라. 다 너의 장래발전을 생각해서 그러는거다. 이다음 때가 지나면 왜 이 아버지가 광산에 가라고 했는지 알게 될게다.》

하여 아들은 자기를 광산에 보낸 아버지의 깊은 속심을 모른채 강압에 못이겨 억지로 떠나갔다. 광산에 간 아들은 예견했던바대로 채광장에 마음을 붙이지 못하였다. 힘들어 못하겠다는것, 아버지가 원망스럽다는것, 광산에 와서 빨리 자기를 빼내주지 않으면 아버지라는 소리도 안하겠다는 등의 편지가 연방 날아왔다. 처음에는 웃었다. 백번도 그럴수가 있었다. 단련된 체대군인들속에서도 안착을 못하고 들떠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평양에서 웅석반이로 자란 경찰임에랴. 그러나 같은 편지가 계속 오자 석태는 엄한 욕설이 찬 회답을 아들에게 띄웠다. 채광사람들한테서 이 아버지의 망신을 시키지 말라고 된으름장까지 놓았다. 회답편지를 받고 아들은 더는 편지를 쓰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는 광산일의 첫시련을 이겨내고 제 궤도에 들어선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경찰은 한해가 지나자 휴가를 받고 집에 나타났다. 그런데 기대했던바와는 달랐다. 지배인한테 말해서 평양에 오게 해달라는것이였다.

꺼칠하니 살이 빠지고 저으기 맥이 없어 아픈듯이 보이는 아들의 모습에 석태는 속이 아프고 (내가 괜히 보낸것이나 아닌가)하는 후회까지 들었다. 그러나 이제야 광산에 적을 붙인 이상 달리 어쩔수가 없었다.

《그래 네가 누구의 아들이라는걸 채광장사람들이 알고있느냐?》

《몰라요.》

《왜 묻지도 않더냐?》

《처음엔 묻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지만 난 체대로 대답 안했어요, 아버지가 부에서 국장하는걸 알면 광산에서 빠지자는 말을 하기도 힘들것 같구 해서...》

석태는 광산사람들이 아직 경찰이가 자기의 아들임을 모르고있다는데 안도의 숨을 내쉬며 잘 타일렀다. 물론 이번에도 경찰을 왜 광산에 보냈는가 하

는 속심은 비치지 않고 사람은 젊어서 어렵고 힘든 일을 해보야 한다는 것과 마음을 붙이고 일단 잘하면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다는 데 대해 알려주었다.

《이자 겨우 한해를 일해보구 광산을 뜨겠다 어찌겠다 해서야 안되지. 난 거기서 15년이나 일했다. 몇해만 더 채심해서 잘 일해봐라. 그러면 내가 왜 너를 그 광산에 보냈는지 알게 될게다.》

경찰은 어깨가 처저가지고 돌아갔다.

광산에 간 아들은 한번도 편지를 쓰지 않았다. 그는 경찰이가 집에 다녀간 후 마음을 단단히 다잡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번에 광산채광장 확장건설과 관련하여 국에서 토론이 있을 때 겸사해서 광산에 내려가보겠다고 나섰다. 광산사람들한테 다음해 아들 대학추천문제도 부탁할겸 해서 ...

그런데 경찰이가 여전히 말썽군으로 남아있더니 석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이제와서는 광산으로 출장온 것이 후회되기만 했다.

운전사는 입을 꼭 다물고있는 그의 침묵에서 무언을 느꼈는지 더 말을 꺼내지 않았다. 석태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다.

(참 일두... 광산사람들이 그 말썽군녀석이 누구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나 있으면 어쩐다? 제발 몰랐으면 좋겠는데... 알고있다면 그들과 어떻게 얼굴을 마주하고 사업하겠는가. 부국장동무를 보내고 떠나오지 말았을 걸 참...)

아들문제도 하여 머리가 철추같이 무거워진 석태는 승용차가 어느새 광산사무실앞에 와 멎었는지도 몰랐다. 그는 10년 사이에 몰라보게 변한 채광장의 전경을 바라볼 마음의 여유도 생기지 않았다.

최석태는 오후시간을 분광산지배인방에서 보냈다. 지배인과 기사장, 설계일꾼들이 길다란 용접탁에 도면을 펴놓고 둘러앉아 그와 진지하게 협의했다. 새로 확장하는 광구건설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담배연기를 안개처럼 피워올리며 의견들을 나누었다.

석태는 저녁 6시가 지나서야 지배인실을 나섰다. 숙소인 외래자합숙으로 가던 그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 아들이 쫓겨왔다는 채광장합숙을 먼저 찾았다. 숙시원히 아들을 만나보지 않고는 숙소에 가도 잠이 올 것 같지 않았다.

그가 접수에 물어 경찰네 호실에 이르니 안에서 기타소리가 났다. 석태는 손가락도 내지 않고 벌떡 문을 밀고 들어갔다. 그런데 아들은 없고 앞머리칼을 이마에 찰싹 가져다붙인 경찰이 포대의 한 젊은이가 기타줄에 손가락을 건채 놀랍게 쳐다보았다.

《누굴 찾아오셨습니까?》

《이 방에 최경찰이라고 있지?》 석태는 문가에 섰채 무뚝뚝하게 물었다. 그에게는 기타를 붙잡고 있는 그 젊은이도 말썽군처럼 느껴졌다.

《네,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십니까? 저...혹시

경찰동무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그렇소. 그 애가 들어오면 외래자합숙으로 올라다라구 하오.》

석태는 언짢은 눈으로 방안을 휘 둘러보고 복도로 나왔다.

문을 닫고 몇 걸음 내짚었을 때 그는 앞선 청년을 푸쩍없이 대한 방금전의 자기 행동이 스스로도 나 무렵게 생각되었다.

외래자합숙에 돌아온 그는 저녁식사를 대충 하고 호실에 들어와 저고리를 입은채 침대에 누워 아들이 나타날 때를 기다렸다. 아들을 만나 타일러줄 말들을 두루 생각하며 담배를 석태나 연거퍼 피웠다. 누군가 복도에서 나직이 문을 두드렸다.

(이자식이 이제야 나타나는군) 하고 생각한 그는 침대에 누운채 들어오라고 대답했다.

그런데 들어선 사람은 아들이 아니라 뜻밖에도 리봉술아바이였다.

《봉술아바이!》 석태는 화닥닥 일어나 상대방의 손을 두손으로 싸잡으며 반갑게 흔들었다.

《이거 참, 이렇게 올 줄은... 이제 얼마만인가!》 리봉술은 석태의 손에 잡혀 따듯한 호실 아래목으로 끌려가며 기쁨에 어깨를 들썩거렸다.

석태는 봉술과 무릎을 대고 마주앉으며 담배부터 권했다. 리봉술은 끝날같은 손톱눈으로 러파지를 툭 따버리고 물부리에 끼워물었다.

《아니 그런데 이렇게 왔으면 우리 집에 가야지 이런 법두 있나?》 리봉술은 담배연기를 물썬하니 내보내면서 반가운 미소를 가지지 않은채 질책하듯 말했다.

《낮에 도착해서 여태까지 사업토론을 하더니... 래일 찾아가자구 했됐습니다.》

《그저 반가운김에 해보는 소리지, 뭘. 그런데 왜 그렇게 그새 꿈쩍 안했나? 하긴 외국에랑 다닌다는 소리는 들었네만-》

《광산건설부문을 맡아보다니나니 그렇게 됐습니다.》

석태는 인정에 넘치는 봉술을 보며 그새 편지 한 장 없이 지낸 자신을 아프게 뉘우쳤다.

광산채광장의 산 력사라고도 할 수 있는 리봉술은 석태에게 있어서 만형파도 같은 사람이었다. 1957년에 제대된 석태는 광부의 첫걸음을 리봉술종합작업반장실에서 시작하였다. 리봉술은 일욕심이 남다른 석태에게 굴착기운전의 온갖 미립과 경험을 아낌없이 대주었고 폭격에 부모를 다 잃은 그의 결혼식도 자기 집에서 치르어주었다. 어찌 그 뿐이라. 그때 봉술은 석태와 팔씨름도 얼마나 허물없이 해주었는지 모른다. 석태는 굴착기 무한계도우에서까지 팔씨름판을 벌리곤하던 먼 어제날이 감회깊게 되살아나 그 시절에 대한 애뜻한 그리움에 젖어들었다.

《참! 지금도 팔씨름을 합니까?》

《팔씨름? 그래 해보자나? 허허... 이젠 막내하구나 가끔 집에서 해본다네. 그런데 이제는 젊은것들을 이기지 못하겠어. 글썄 요먼전 경찰이가 다 해보자구 덤벼들지 않겠나.》

《네?》

석태는 금시 몸이 굳어졌다. 그러니 봉술이도 경찰을 알고있는것이다. 반가움에 젖어 봉술을 보던 그의 눈길이 어느새 방바닥으로 떨어지고 입술이 게면쩍게 실룩거렸다.

《글썄 그너석이 이젠 다... 참 그런데 그 애를 광산에 보내면서 어쩌면 그렇게 편지 한장두 보내지 않을수 있나? 난 얼마전에야 그 애가 경장네 경찰이란걸 알았구만.》

《그 애가 와서 애만 맥인다니 정말 면목이 없게 뻘었습니다.》 석태는 고개를 숙인채 소가죽같이 굳어지는 입술을 간신히 움직여 대답했다.

《아직 나이 어린것이 처음엔 그럴수 있지 뭘... 하지만 이젠 마음을 놓으라구.다 제대로 돼가네.》

석태는 봉술의 위안의 말이 고맙긴 하였지만 믿지는 않았다. 그는 그가 왜 그렇게 말하는가를 너무나도 잘 알았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때문에 근심할 자기의 무거운 마음을 다소나마 가셔주려고 그러는것이였다. 석태는 경찰에 대한 이야기가 더 전개될것 같아 화제를 일른 다른데로 가져갔다.

《영수가 군대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언제 제대됐습니까?》

영수란 방금전에 봉술이가 팔씨름을 한다던 그의 막내아들이였다.

《이젠 달포가 넘었네. 박토에서 일하지.》

《인민학교때부터 공부를 잘했는데 제대될 때 왜 대학에 추천받지 못했답니까?》

《허, 추천받고 시험까지 치렀다네. 무슨 평양경공업대학이라나. 그런걸 내가 싹싸우듯해서 끝어왔다네, 참 지금 젊은 애들이란... 글썄 나중에는 그 애한테 경찰이야기까지 다 해주지 않았겠나. 경찰이 아버지는 평양에 가있으면서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광산에 다 보냈는데 광산에 집이 있구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자식들이 대를 이어 광산을 지켜나갈 생각은 았구 다 너처럼 다른데 가서 일할 생각만 하면 어떻게 하겠는가구...》

석태는 아무런 말도 할수가 없었다. 승용차에서 느꼈던 정신적압박감이 그를 다시금 휩쌌다. 석태가 경찰을 광산에 보낸것을 봉술은 너무나도 왕창같이 생각하고있지 않는가, 석태는 봉술이앞에 그대로 앉아있을수가 없어 몹시 더운듯이 저고리를 벗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창가에 있는 원탁으로 다가가 보온병에서 물을 따라 꿀꺽꿀꺽 소리가 나게 마시였다.

《허허, 물 마시는 솜씨는 갱에 있을 때나 같구

만.》

리봉술이도 소리내어 웃으며 따라일어섰다. 그는 벽장에 다가가 문을 열어보더니 거기서 석태의 윤기나는 의력려행용가방을 꺼내들고 집으로 내려가자고 했다.

《저... 밤에 할 일두 있구해서 그러는데 후에 가지요.》 석태는 당황하니 변명이라도 하듯 말했다.

《그럼 래일은 집에 꼭 내려가세. 난 인차 시간이 돼서 가겠네.》

리봉술은 아쉬운듯 가방을 도로 벽장안에 넣고 방에서 나갔다.

석태는 폭풍이라도 치른듯 길다란 한숨을 내쉬며 침대우에 힘없이 앉았다.

X

광산에 온지도 사흘이 지났다. 그사이 석태는 새로 광구를 확장하는 지구에 가서 살았다. 도면들을 현지에서 확인하고 협의도 여러번 하였다. 그는 면목이 있는 광산일군들과 마주했을 때마다 아들의 문제가 화제에 오를가보아 은근히 신경을 썼다. 그래서 사업이외의 여담은 일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광산사람들도 그의 심정을 헤아렸는지 경찰에 대해서는 모르쇠를 하였다. 하긴 아버지한테 말썽군 아들에 대해 말하려는 사람이 어데 있을것인가. 더군다나 아버지가 부에서 내려온 국장임에랴.

석태는 사흘동안에 출장왔던 일을 기본적으로 훌륭히 끝을 맺었다.

광구확장건설에서 투자를 10프로나 절약할수 있는 예비와 공사기일을 3개월이나 단축할수 있는 예비를 찾았다. 이제는 경찰이나 조용히 만나보면 되였다.

그러나 경찰은 그사이 밤마다 남몰래 기다렸지만 한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찾아오지 않는 아들이 여간 고깝게 생각되지 않았으나 한편 리해되기도 했다. 그가 욕이나 먹자고 얼굴을 보이지는 않을것이다. 그렇다고 아들을 만나보지도 았고 그냥 갈수는 없었다.

석태가 저녁을 먹고 아들한테 주려고 가지고 온 겨울내의들과 사랑과자꾸레미를 들고 숙소를 나서려던 때였다.

봉술이가 찾아왔다. 그는 웬일인지 작업복차림이였다.

《허참, 사람두... 로친네한테서 팔시를 받게 해두 분수가 있어야지. 이렇게 그냥 있으면서 하루밤두 집에 내려가서 자주지 않다니...》

문턱을 넘어서면서 이런 소리부터 꺼내던 리봉술은 방바닥에 내놓은 려행용가방과 꾸레미를 보고 놀란듯이 물었다.

《이거 떠나자는게 아닌가?》

《래일쯤 떠나려고 합니다.》

《왔던 일을 다 끝낸 모양이구만. 그래 잘됐나?》

《건설투자를 10프로쯤 절약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거 대단하구만!》 봉술은 흡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경찰은 만나봤나?》

《아직 못만났습니다.》

《거 안했는걸...》

《그녀석이 찾아오지 않는걸 보면 욕을 먹을가봐 그런것 같습니다. 오늘밤까지 만나지 못하면 그냥 가겠습니다. 그 애를 아무렇게 해두 좋으니 집의 영수라고 생각하구 사람으로 잘 만들어주십시오.》 석태는 눈길을 들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허, 그 애가 어떻다구...》

봉술은 웃음어린 소리로 대답을 하다가 중도에서 말을 끊고 잠시 무엇인가 생각하더니 석태의 팔을 끌며 말했다.

《여기 그냥 있다가 경찰을 정말 못만날수 있으 나하구 같이 가세.

이렇게 왔다가 만나지 않구 그냥 가면 그 애가 얼마나 섭섭해하겠나.

오늘밤 개조한 정머리로 마지막시운전을 한다고 했어.》

《시운전이요?》

《경찰이네가 한다네.》

석태는 봉술의 권고를 따랐다.

두사람이 5호회차기에 이르렀을 때는 바야흐로 시운전을 하려던 참이었다. 분광산지배인과 기사장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와있었다. 회차기운전 공들이 기대의 여기저기에 붙어있었으므로 경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기대를 책임진 초소장이 머리부쪽에 모여선 지휘성원들한테로 다가와 시운전을 시작하겠다고 힘차게 보고했다. 그러고는 지배인이 승인하자 기대 뒤쪽에 대고 경찰의 이름을 크게 불렀다.

경찰이가 나는데 앞으로 뛰어나왔다. 그는 몰려선 간부들속에서 석태를 보자 흠칫하니 눈을 크게 떴다가 빙그레 웃음을 보내고 초소장앞으로 갔다.

《경찰이, 오늘은 동무가 스위치를 넣소. 그새 밥잡도 안자면서 수태 뛰여다녔는데-》

석태는 초소장의 말에 자기의 귀를 의심했다. 아들이 스위치를 넣다니... 시운전스위치를 넣는다는 것이 아무한테나 다 차례지는 영광이 아님을 석태는 너무나도 잘 알고있었다. 그러니 이제는 경찰이가 말썽을 부리지 않고 자기의 궤도에 들어섰단말이 아닌가. 석태는 일시에 하늘로 솟구쳐오를듯한

가벼움과 기쁨을 소리치고싶게 느꼈다. 머리를 그로록 무겁혔던 아들문제가 이렇듯 쉽게 풀릴줄은 참말 꿈에도 생각 못했었다. 그는 당장 달려나가 아들을 얼싸 껴안아주고싶어 건딜수가 없었다. 그는 자꾸만 나가려는 발걸음을 강인히 참고서서 시운전의 첫 스위치를 사양하는 아들을 환희에 젖어 바라보았다.

《그래 어떤가. 이젠 우리 경찰이가 괜찮지?》

봉술이가 아들한테서 눈을 떼지 못하고있는 석태의 옆구리를 슬쩍 찌르며 빙글썩 웃었다.

《난 이러리라고는 정말... 아버이가 그저 나를 위안해서 해주는 말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두사람이 이런 말을 주고받는 사이 경찰이가 초소장한테 등을 떠밀리워 스위치 있는곳으로 갔다.

회차기가 금시 비행기발동소리와도 같은 굉음을 지르며 요동을 쓰기 시작했다. 주변이 지진때처럼 흔들렸다. 맹렬하게 암반을 뚫고 들어가는 정대소리가 귀를 멍하게 했다.

운전대에 거인처럼 서서 돌아가는 정대에 눈길을 꼭 박고있는 아들에게 은근한 미소를 남몰래 보내고있던 석태는 가슴을 펴며 채광장을 둘러보았다.

밤의 채광장은 전광어룡선들이 짝 깔린 밤바다를 연상시켰다. 눈길이 닿는곳마다에서 광석을 퍼담는 굴착기들이 채광장을 통째로 허물어내는듯한 장쾌한 소리를 내었고 착공기들이 합창하듯 가락을 맞추었다. 그런가 하면 탐조등같은 불빛으로 어둠을 찌며 꼬리를 물고 달리는 대형자동차들의 거센 저음이 사방에서 들려왔다.

온 채광장이 그대로 대교향곡을 연주하는것 같았다. 멀리 산아래에서는 광부도시의 수많은 불빛들이 채광장을 향해 웃음들을 보내주고있었다.

시운전은 2시간나마 했다.

석태는 아들곁에 마지막까지 남아있고싶었지만 광산일꾼들이 자리를 뜰 때 함께 떠나지 않을수 없었다. 그는 아들에게 래일 떠나겠다는 말만 하였다.

X

다음날 아침이었다. 분광산사무실현관앞에서 지배인승용차가 석태를 기다리고있었다. 겉레로 차체를 닦고있던 승용차운전사가 려행용밤빛의헝가방을 들고 현관에서 나오는 경찰을 보고 놀랍게 물었다.

《여,광산을 떠나는 길이야?》

《아니, 아버지를 배웅하자구...》

《아버지?》

그때 현관에서 석태와 지배인이 웃으며 나왔다.

운전사는 알겠다는듯 《그러니 내 예견이 맞았던 말이지.》 하고 중얼거리며 재빨리 차에 올라가 발동을 걸었다.

석태는 승용차를 사양하였다. 그는 경찰이와 함께 나란히 채광장을 내려갔다.

바람한점 없었다. 유리관같이 말쑥한 하늘에서 태양이 해염을 찢고 길에 깔린 눈이 해빛을 바늘처럼 발산했다. 발밑에선 상쾌한 빠그득소리가 경음악같이 울렸다.

두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채광장의 설경에 눈을 팔면서 걸었다.

경찰은 밤일을 한 피곤도 모르고 걸음걸음을 열병식에 나선 때처럼 힘있게 내디었다. 승용차에 버릇된 석태는 아들의 빠른 걸음에 보조를 맞추기가 땀났지만 그대로 걸었다. 잔등이 축축해나고 발목이 시큰거리기 시작했지만 마음은 하늘로 날아오를 것만 같았다.

《애야, 너 지배인승용차운전사를 잘 아니?》 석태는 불현듯 며칠전에 승용차를 타고오던 때의 일이 떠올라 넋지시 웃으며 물었다.

《시내 1호합숙에 있을 때 옆호실에 있었는데 생활위원회 부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도 엇저녁에 네가 시운전스위치를 넣는걸 봤으면 좋았겠다.》

《예?》 경찰은 의아해서 석태를 보았다.

석태는 소리내어 웃으며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렸다.

《채광장에 오던 날 얼마나 머리가 아프던지...》

경찰은 아버지의 말뒤에 숨은 내용을 헤아려보듯 잠시 생각에 잠겨 걸더니 유쾌히 웃으며 말했다.

《저에 대해서 좋지 않은 얘기를 많이 했던 모양이구만요?... 그럴만도 했어요.》

시내 1호합숙에 있을 때 실지 그랬으니깐요. 여북하면 여기 현장합숙으로 다 추방되었겠습니까.》

《그래 어떻게 마음을 다잡게 됐니?》

《봉술아바이한테 걸렸습시다.》

《봉술아바이말이나?》

《네, 정말 보통아바이가 아닙니다. 그 아바이한테 걸리기만 하면 누구나 혼이 나겠더군요.》

경찰은 벅룩 웃더니 즐거운 일이라도 회상하듯 리봉술과 있었던 사실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공훈광부아바이가 우리 중대에온건 새로 개조한 정머리를 가지고 시험을 시작하던 지난 여름부터였습니다. 아바이가 온지 며칠 안된 때인데 하루는 밤에 아바이가 시내에 있는 집에도 가지 않고 우리 합숙호실로 찾아왔습니다. 전 아바이가 왜 왔는지 대뜸 짐작하고 불손하게도 《아바이, 왜 왔습니까? 나를 교양해보자구요? 공연한 헛수고를 마시고 집에 가서 폭 쉬거나 하는게 좋을겁니다.》 하고 돌아앉아 기타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전 그거라도 타면 아바이가 후끈해서 욕을 퍼붓고 갈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바이는 닥할 대신 그냥 앉아 시물시물

웃으며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밤낮 기타를 붙들고있다는 녀석이 그따위걸 가지구... 하긴 그래. 내 예순네살을 살도록 술한 사람들을 봤지만 일에서 빼돌이치는 사람이 다른걸 잘하는걸 못봤어.》 저는 흥하고 코를 내뿔었습니다. 그랬는데도 아바이는 계속 웃기만 하면서 묻더군요. 집이 평양에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무슨 일을 하는가구. 전 시끄러워 아버지는 리발사를 하구 어머니는 구두수리공을 한다구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들은 훌륭한 사람들 같은데 아들은 그렇지 못한것 같다고 고개를 가로 젖더군요...

그날부터 아바이는 그림자처럼 저한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중대대렬점검을 할 때는 뒤에 딱 붙어서 줄을 잘 맞추라고 어깨를 치는가 하면 현장에 나가서도 다른 기대엔 가지 않고 붙어돌아갔습니다.

그렇게 한 보름쯤 지났는데 아바이가 합숙호실로 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데서 얻었는지 천으로 썩우개까지 한 새 기타를 가지고왔습니다. 아바이는 자 어디 한번 진짜 솜씨를 보자고 하면서 기타를 저한테 안겨주었습니다. 전 기본이 나서 몇 곡을 탔습니다. 한창 타는데 아바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가만 내가 아는 노래를 타야 알지, 그걸 타, 거 있지 않아? 우리내 광산은 나라의 보배산 하는 거.》 하고 아바이가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전 그 노래를 잘 모르고있어 대충 줄을 튕겼습니다. 그랬더니 아바이는 실망해서 손을 뱉 내저었습니다. 《제일 잘 타야 할 노래를 그렇게 못타다니. 글렀어... 이 기타는 경찰이한테 주자구 구해온거니 이제부터는 그 노래를 잘 연습해. 채광사람들이 네 기타소리를 좋아하게말이야.》 그러면서 아바이는 호실을 둘러보았는데 구석쪽에 눈이 가자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구석에는 제가 되는데로 쓰다던진 광부광주리모자가 처박혀있었습니다. 그안에는 신다 버린 양말짝과 빈 담배갑들이 있었습니다. 아바이는 그것들을 집어내고 손바닥으로 먼지를 쓸면서 광부모자를 그렇게 건사해서야 되겠는가구 말했습니다. 그런데 전 잘못했다고 할 대신 《그 잘난 것 봐두십시오. 보기두 싫습시다!》 하고 내뺐습니다. 그러자 아바이는 저를 처음 대하기라도 하듯 뚫어지게 보더니 쓸어 만지던 모자를 제 가슴에 탁 안기며 《뭐 그 잘난 모자라다구?》 하고 입술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전 아바이가 별난데 다 신경을 쓴다고 속으로 웃으며 광주리모자를 이번에는 책상우에다 되는데로 던졌습니다. 그러자 아바이가 낮으나 엄한 목소리로 《정말 그 모자를 그렇게 건사할테냐? 예잇, 못된 자식! 석태광구장이 있었다면 그 모자를 그렇게 팔시한 너를 빼도 못찾게 했을거다!》 하고는 방에서 나갔습니다.

그런 일이 있던 다음다음날이었습니다, 그날 전

감기에 걸려 함숙호실에 누워있었습니다. 온 하루 누구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잠자리만 열 어놓은 창문턱에 날아와앉아 꼬리를 달싹대군 활뽀 이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한 때에 식당 아주머니가 밥을 가지고 나타났는데 글썽 웃으며 또 피병을 하는게 아닌가고 하지 않았습니까. 전화가 나서 벽쪽으로 책 돌아놓고말았습니다. 얼마나 집생각이 나는지 몰랐습니다. 전 그날 어떻게하면 집으로 빨리 돌아갈수 있을가고 생각하면서 더 말썽을 부릴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광산을 떠날 것 같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그런 생각이 이처럼 쉽게 허물어질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해질녘에 글썽 봉술아바이가 뜻밖에도 시원한 얼음을 박은 농마국수를 보자기에 싸들고 찾아왔습니다. 전 정말 놀랐습니다. 그 전날 그런 욕까지 하고 갔으니 다시는 함숙호실에 나타나지 않으리라 생각했었습니다. 전 얼음이 뜬 농마국수를 보고 저도 모르게 이불을 뒤집어썼습니다. 전 아바이가 얼마나 진실한본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아바이는 한동안 가만 있더니 저를 흔들며 얼음이 다 녹는데 빨리 일어나 먹으라고 했습니다. 전 이불을 젖히고 일어나 그새 불손하게 굴었던 자기를 용서 빌었습니다. 아바이는 제손에 저가락을 쥐여주고 제가 다 먹을 때까지 입을 다물고있다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저먼저날 내가 노여움을 내구 훌쩍 나간걸 나뻐 생각 말어. 내가 잘못했어. 갑자기 석 태광구장생각이 나서 그랬어. 경찰은 모르겠지만 이전에 우리 채광장에 최석태라구 참말 훌륭한 광구장이 있었어. 지금 평양에서 국장을 하구있는데 광부모자를 허슬히 여기는 사람만 보면 무섭게 다구어댔지...〉 그러면서 아바이는 13호굴착기를 서곡 채굴장으로 내려갈 때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뭘, 서곡채굴장? 그게 어느때 있는 일이라구...》

석태는 기억을 더듬어 그때의 일을 돌이켜보았다. 그것은 품위높은 정광을 생산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교시를 관철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대형굴착기를 수천메터나 되는 서곡채굴장으로 옮겨가던 때의 일이었다. 당시까지만 하여도 중량이 250여톤이나 되는 대형굴착기를 그렇게 먼 거리를 그것도 자동차나 다니는 좁은 내리막길을 자체로 넓혀가며 이동한다는것은 전혀 불가능한것으로 여기고있던 때였다.

석태가 서곡으로 내려갈것을 발기하였을 때 대부분사람들이 굴착기를 굴러서 박산을 내자고 그러는가고 필쩍 뛰었다.

《무슨 무서운 일을 저지르자구 그러나? 내리막길은 절대 못가네!》 하고 봉술이도 만류했다. 그러나 석태는 물려설수가 없었다. 선광장에서 품위높은 조광을 공급해주지 않는 한 수령님의 현지교시

를 관철하기가 곤란하다고 하는터에 그대로 해보지도 않고 주저앉을순 없었다.

첫 3일동안 석태는 굴착기를 자신이 직접 운전하였다. 만약경우를 생각하여 다른 사람은 일체 굴착기에 올려놓지 않았다.

굴착기가 굴게 되면 자기만 굴착기와 함께 아슬한 벼랑아래에 떨어질 각오를 가졌다.

그때에 있는 일이었다.

하루는 운전공이 광부모자에 기름묻은 굴착기 부속품을 무겁게 담아들었다가 석태에게 걸려들었다.

석태는 단번에 고향을 쳤다.

《이건 뭐야?》

《헤헤...9호에 가서 겨우 빼앗아오는길입니다.》

운전공은 광구장이 왜 소리치는지도 모르고 자랑하듯 말했다.

《당장 내려놓지 못하겠어? 이 모자꼴이 뭐야?》

《그까짓것 버들광주리모자 뭐랍니까?》

《뭘 그까짓것?》 석태는 무섭게 눈을 부라렸다.

《보자보자하니깐 동문 대갈통이 정말 틀려먹었어! 다른 부문 사람들이 모자에다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걸 봤어? 채굴장에서 쓰는 모자라구 그렇게두 허줄하게 보여? 채광에서 일하는 궁지가 없으니 그 모양이지 뭐야? 보면 다 알아. 군회관에 가서 두 광산 사람과 같이 앉지 않구. 약혼하러 가서두 뭐 광산에서 일하지 않구 무슨 수매사업소 지도원을 한다고 했다면서? 그러니 광부한테 딸을 못주겠다는 소리를 듣구두 너절하게 빌붙어가지구 광부 망신을 다시키지. 도대체 광부의 영예는 어디다 췌던졌어?》

봉술이가 뒤에서 석태의 옷자락을 툭툭 채며 그만하라고 암시했다. 석태는 돌아다보고 봉술임을 알고는 더 말을 앓고 샴바람인 자기 가슴에다 부속품을 걸어안고서 운전대로 올라갔다...

《그래 봉술아바이가 그때의 얘기를 했던말이지.》 석태는 지나간 시절에 대한 궁지와 자부심을 가슴 벅차게 느끼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아바이한테서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된저는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광구장이 아버지라는것을 실토했습니다. 아바이는 저의 말을 듣자 다시금 이자 무슨 소리를 했는가구 물어보더니

〈이게 무슨 일이나. 네가 정말 석태광구장의 아들이란말이지!〉 하고 저를 와락 끌어안아주었습니다. 그날 아바이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래도록 해주었습니다. 전 그날 아버지가 광부의 존엄을 얼마나 귀중히 여겼으며 해마다 광구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기 위해 어떻게 일했는가 하는것을 들으며 정말 많은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왜 광산에 보냈는가 하는것도 깨닫기 시작하구요.》 경찰은 존경에 넘친 눈으로 아버지를 쳐다보며 말했다.

석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리봉술한테서 칭찬의 소리를 듣던 때와도 같은 정신적 압박감이 그의 마음을 다시금 옥죄어왔다. 그는 자기를 보는 아들의 존경 어린 눈길을 그대로 받을수가 없어 슬며시 외면하였다. 그러고보니 경찰이도 자기를 광산에 보낸 이 아버지의 의도를 리봉술처럼 생각하고있는것이 아닌가.

《아버지, 갑자기 왜 그러니까. 어디 아릅니까?》 경찰이가 심각해진 석태의 얼굴을 보고 걱정스레 물었다.

석태는 애써 입가에 웃음을 지었으나 뭐라고 말했으면 좋을지 몰랐다.

경찰은 아버지의 침묵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죄스러운 목소리로 사과하듯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 몇달전까지만 해도 전 그렇게 잘못 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젠 근심 마십시오. 아버지가 저를 왜 광산에 보냈는지 알게 된 이상 아버지한테 절대 흠칠을 하지 않게 살겠습니다. 전 이미 광산에서 일생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명년에 영수형님과 같이 대학통신학부에 가겠습니다.》

《...》

《어머니한테 잘 말씀해주시요. 어머니는 저를 김책공대에서 공부시킬걸 늘 얘기해왔었는데 제가 가면 안된다고말입니다. 제가 가면 갱사람들이 아버지를 달리 생각하게 될겁니다. 지금 봉술아바이랑 갱사람들이 저를 광산에 보낸것을 두고 아버지를 얼마나 존경하는지 압니까. 그런데 제가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전에 도에서 한 간부가 우리 채광에 와서 동무들이 지켜선 전선이 중요하다라는 강연을 하고 자기 조카를 뽑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 간부에 대해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는지 압니까. 그런데 제가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석태는 아들의 말을 심각하게 들으며 경찰의 놀

라운 변화를 두고 다시금 생각했다. 경찰은 자신보다 아버지에 대해 더 걱정하고 생각하고있는것이였다. 이 아버지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지 않도록, 어제날의 존경받는 광구장으로 영원히 남아있도록 하기 위해 아들로서 해야 할바를 잘 알고있는것이였다. 광산에 뿌리내릴것을 결심함으로써 자기가 걸어갈 길을 찾는것이였다. 그런데 자신은 어떤가. 아직까지도 아들을 김책공대에 데려갈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있지 않는가. 만일 경찰이가 그것을 안다면... 그리고 자기를 광산에 보낸 이 아버지의 숨은 진짜의도를 안다면 얼마나 놀라고 실망할것인가.

석태는 낮이 화끈 달아올랐다. 아들곁에 나란히 붙어서 걸어가기가 창피스러웠다.

그는 어느새 자기가 그렇게 탈선되어 자기자신과 가정적리기를 추구하는 인간으로 되어버렸는지 놀랍기만 하였다. 그는 심장신경증이 발작한 때처럼 호흡이 가쁘고 가슴이 답답했다.

(그렇다. 난 광산에 와서 애군질을 했던 아들때문에 머리를 앓았을것이 아니라 나자신에 대해 알았어야 했다. 경찰을 광산에 보내기전에 벌써... 해결해야 할 문제는 바로 나자신한테 있었다.)

석태는 이번에 광산에 오으로써 지난날의 자기를 다시 찾은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기쁜지 몰랐다.

몇걸음앞에서 나직이 《...우리네 광산은 나라의 보배산...》 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걷던 경찰이가 돌아다보며 말했다.

《아버지, 시간이 늦지 않겠습니까? 빨리 갑시다.》

(그래 빨리 가자.)

석태는 속으로 부르짖으며 걸음에 박차를 가했다. 인차 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였다.

눈팔린 길우에서는 해빛이 눈부시었다.

가 사

당을 따라 혁명의 길 끝까지 가리

최준경

요람을 흔들며 키워준 손길
보람찬 대오에 나를 세웠네
아 당을 따라서
혁명의 한길을 끝까지 가리

친근한 그 손길 따르는 길에
가슴속 신념은 변함없어라
아 당이 펼친 길
멀어도 험해도 웃으며 가리

혁명의 붉은기 들고나가다
내 심장 뛰어도 한이 없으리
아 당을 받들어
이 한몸 바침은 행복이여라

아 주체의 위업
빛내는 한길에 영생하리라

철산봉에 올라

한원희

여기선 하늘이 가까웁고
여기선 조국땅이 다 보인다
철산봉 쇠돌의 산악이여
나는 너의 산정에 서있다

동쪽을 바라보아도
거창한 광채의 줄기
서쪽을 굽어보아도
층층이 파도쳐간 광맥의 흐름

사방 그 어디에나
눈길 아득히 솟아 빛난다
쇠돌의 장엄한 산발들이
쇠돌의 아아한 련봉들이

나는 묻지 않는다
허물어낸 쇠돌량에 대하여
온 나라에 숲처럼 일어난
강철의 기둥들이 말해주거니

너의 높이가 낮아졌다고
그 누가 말하던가
세기의 령마루에 조국을 받들어올린
그 높이에 네가 솟아있다

아, 너 억만재부의 산악이여
이 가슴에도 마음의 산악이 일어선다
너처럼 조국을 받들고저 !
너처럼 이 몸을 높이 세우고저 !

아기의 첫돌에

박희구

제대군인 광부네 첫돌맞는 첫 아기앞에
자라 무엇이 되려나 묻는듯 속삭이는듯
가지가지 놀이감들 다 놓여있는데
은빛금빛 유난히도 번쩍이는
한덩이의 쇠돌도 놓였구나

광산마을 그 어디나
흔하디흔한 쇠돌
날마다 땅속에서 캐어내는
금골땅 어디서나 보는 쇠돌

번쩍이는 저 쇠돌처럼
굳세고 빛나라고
아들의 앞날을 축복하는
부모의 그 심정
그대로 담겨졌는가

보아라
비행기며 자동차 그 갖가지에
새별눈 반짝이며 웃는 아기
덥석 쥐는구나
쇠돌부터 먼저 !

순간 떠들썩 터치는 웃음소리
아버지도 너무 기뻐서
어머니도 너무 기뻐서
장하다고 아기를 머리우에 안아올리네

그 마음들에 받들려
쇠돌을 안고 달덩이처럼 웃는 아기야
너는 벌써 광부의 첫걸음을 떼었구나 !
너는 벌써 금골을 안고 온 나라앞에 나섰
구나 !

꽃다발의 향기

심승묵

나는 당일근으로 사업하면서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높은 뜻을 받들고 배낭을 메고 아래에 내려가 군중속에 들어갈 때마다 참으로 가슴뜨거운 일들이 많이 보게 된다.

유색금속광물생산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킬데 대한 당의 초소를 심장으로 받들고 펼쳐나선 광부들속에는 《80년대속도》를 창조하면서 놀라운 위훈과 더불어 우리 시대 인간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엮여지고 있다.

지금도 나의 눈앞에는 한 굴진공아바이의 모습이 선히 떠오른다.

해발 1,200미터가 넘는 마천령산줄기의 한끝,

흰구름도 쉬어간다는 《백금산》마루에 색깔은 병사 배낭을 벗어놓은 때로부터 30년세월을 광산에서 굴진공으로 일해온 그가 바로 룡양광산 청년갱 황룡운아바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유색금속고지를 점령하는것은 인민경제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유색금속광물생산을 높이데 대한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펼쳐나선 광부들속에는 60고개를 바라보는 오늘에도 젊음이 넘치던 그 시절처럼 심부굴진막장에서 보람찬 하루하루를 위훈으로 빛내이고 있는 황룡운아바이를 찾아볼수 있었다. 가렬 처절한 전쟁의 나날 락동강도하전투와 1211고지방위전투에서 목숨으로 조국을 지켜온 황룡운아바이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교시를 받들고 《백금산》을 지쳐나가는 충성의 대오속에서 천리마대고조의 년대들을 빛내여왔으며 오늘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높은 뜻 받들고 젊은이의 열정을 안고 속도전을 벌려왔다. 광산초급당위원회에서는 얼마전에 《80년대속도》창조에서 위훈을 세운 로력 혁신자들을 축하하는 모임에서 황룡운아바이와 그의 가족들에게 축하의 꽃다발을 안겨주기로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더 많은광석을 캐내기 위해 펼쳐나선 광산은 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고있었다. 그중에서도 황룡운아바이가 일하는 심부굴진막장은 승리의 진격로를 열어가는 돌파구라고 볼수 있었다. 이곳 광부들은 굴진속도를 2~3배로 높여 심부굴진막장 1계단공사를 끝냄으로써 수백미터에 달하는 심부사갱경사벨트

콘베아로 품위높은 광석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리게 하였다. 이 벅찬 투쟁의 대오앞에는 언제나 황룡운아바이와 그의 림름한 아들들이 서있었다.

축하모임을 하게 된 바로 그날 오후 차편으로 광산을 떠나게 된 나는 청년갱부문당위원회사무실에서 총화자료를 묶고있었다.

한창 펜을 달리고있는데 손기척소리가 들려왔다.

이윽고 출입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방안에 안전모를 쓰고 작업복차림을 한 황룡운아바이가 들어섰다.

나는 그에게 자리를 권하면서 물었다.

《오늘저녁 축하무대에 황아바이네가 오른다는것을 전달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그리구 소대장인 맏아들이 결의토론을 하게 된다는것두 알고있겠지요?》

《알고있습니다.》

황룡운아바이는 웬일인지 풀기없는 표정으로 덤덤히 대답하였다.

그때까지 전화를 받고있던 부문당비서가 수화기를 놓고 황룡운아바이쪽으로 몸을 돌렸다.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할말이 있어서...》

황룡운아바이는 고개를 떨구면서 말꼬리를 흐렸다.

필경 심각한 문제인듯싶었다.

나도 쓰던 글을 멈추고 그에게로 눈길을 돌렸다. 별안간 방안의 분위기가 무거워졌다. 나이지숙한 부문당비서는 오랜 당일근답게 너그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여유있게 물었다.

《시당지도원동무와 할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그럼 저의 사업에 도움이 된 말씀인것 같은데 기란없이 제기해주시시오.》

《...》

황룡운아바이는 나를 슬쩍 결눈질해보며 인차 말을 꺼내지 못하였다.

그는 말하기 딱한듯 버릇처럼 들고온 간데라를 매만지는것이였다.

보매 지도원인 내가 있으니 할말을 못하는것 같았다.

《허허, 이거 내가 있으니 마음을 열어놓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나는 책상우에 퍼놓은 서류를 주섬주섬 거두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황룡운아바이는 나의 손을 잡으면서 만류하였다.

《왜 이러십니까? 지도원동무도 함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방해되지 않는다면 들어봅시다.》

자리를 피하려던 나는 그의 요구가 진정이라는 것을 알고 제자리에 눌러앉았다.

《그럼 어서 말씀하십시오.》

《이왕 내친 걸음이니 말하지요.》

이렇게 허두를 뻔 황룡운아바이는 부문당비서를 바라보며 말끝을 이었다.

《당조직에서는 우리가 별로 한일도 없는데 축하 모임까지 조직했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축하를 받을 자격이 못됩니다. 취소해주시우.》

《아니 그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룡담은 아니겠지요?》

부문당비서는 놀라운 눈길로 쳐다보며 물었다. 나 역시 뜻밖의 일에 아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바이, 그건 지나친 겸손이 아닌가요?》

당황해진 나는 부문당비서가 할 말을 가로채서 이야기판에 끼여들었다.

황룡운아바이와 그의 아들들의 모범을 일반화하기 위하여 축하무대에 오르도록 광산초급당위원회에 의견을 준것도 나였기때문이다. 정색해진 나는 그를 설복시키려고 애썼다.

《공연히 그러지 말아주십시오. 오늘저녁에 조직된 축하무대는 광산당위원회일정에 맞물려진 사업입니다.》

《저도 알고있수다, 하지만 꽃다발을 받을 체면이 없는거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집의 애들을 채심해서 일하도록 잘 일깨워주지 못하다나니 축하를 받기는커녕 죄를 지었수다.》

황룡운아바이의 목소리는 무겁게 울렸다.

순간 나의 가슴은 뜨끔했다. 제판엔 긍정적모범을 내세우고 일반화하려 했는데 도리어 본인이 죄를 지었다니 할말이 없었다. 그러나 부문당비서는 믿을수 없다는듯 성급하게 물었다.

《사곤가요?》

《사고라구 말할수도 있지요...》

《일이 별스럽게 꼬이누만.》

부문당비서의 얼굴도 어두워졌다.

심부막장에는 지압과 지질구조에 의한 변화로 뜻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테이라 그럴만도 하였다.

탁상우에 팔굽을 세우고 이마를 싸쥐고 앉아있던 황룡운아바이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풀이 죽은 그의 신색이 말이 아니었다. 얼굴에는 잔주름이 한결 더 많아졌고 늘 정기돌던 눈은 꼭 꺼진듯 깊어진 눈확에서 빛을 잃었다.

《부탁합니다. 축하무대를 취소해주시우.》

그는 애원하듯 이렇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무엇에 쫓기우기라도 하듯 다급히 문밖을 나섰다.

나와 부문당비서는 한동안 움직일줄 몰랐다.

황룡운아바이네가 빠진다고 해서 축하모임이 안될것도 없지만 나의 마음속은 개운치 않았다.

나는 섭섭한 마음을 금치 못해 아무말도 못하고 앉아있었다.

이제 무엇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매사에 침착한 부문당비서는 송수화기를 들고 막장지휘초소를 찾아 43호채굴장에서 사고났는가고 묻고있었다. 저편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보고를 받은 일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지령전화의 고성기에서는 막장에서 들려나오는 말이 찌렁찌렁 울리었다.

나는 깊어지는 갯도와 넓어지는 채광장을 한눈으로 바라보듯 전화소리에 귀를 강구었다.

온 나라 근로자들의 지원의 손길에 고무되어 부글부글 끓고있는 광산이다.

광부들의 억센 숨결도 예술인들의 힘있는 노래소리도 전류를 타고 흘러오는듯싶었다.

얼마전에 완성된 심부사갱의 수백미터의 대형벨트콘베아를 타고 품위높은 광석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리는 장쾌한 모습이 그대로 눈앞에 펼쳐지는듯싶었다.

부문당비서는 리해되지 않는듯 머리를 기웃거리다가 가볍게 힐책하였다.

《동무네들은 막장에 가깝게 있으면서두 모르구있구만. 됐소, 내가 들어가보겠소.》

그는 수화기를 놓고 작업복을 주섬주섬 꺼입었다.

나도 간데라를 들고 그를 따라나섰다.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청청하게 맑던 날씨가 어느새 흐려져 금시 눈꽃이 떨어질것 같았다. 나는 무거운 기분을 돌리지 못한채 부문당비서의 뒤를 따라 말없이 걸었다.

아쉬운 생각을 지워버릴수가 없었다.

황룡운아바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돌려온 나로서는 공든 탑이 무너진듯 여간만 섭섭하지 않았다. 내가 그를 깊이 알게 된것은 몇해전 여름이었다.

그날 나는 광산마을 큰길에서 나들이옷을 입고 정거장으로 가는 황룡운아바이를 만났다.

《오래간만에 려행을 떠나셨군요.》

《예, 이번 나들이길에 함흥에 있는 머느리감도 좀 보고 오겠수다 하하하...》

《좋은 일이지요.》

하긴 노상 극성스럽게 일만 하는 아바이를 쉬워

보려고 갱에서 억지로 등을 밀어 오래간만에 나들
이를 보냈던것이다.

《그럼 어서 가보십시오.》

나는 아바이의 걸음을 오래 지체시킬수 없어 먼
저 손을 내밀고 작별인사를 청하였다.

《일근심은 말고 잘 다녀오십시오.》

《예, 그럼...》

황룡운아바이는 나의 손을 뜨겁게 잡고나서 기분
 좋게 성큼성큼 걸어갔다.

이튿날 나는 작업복차림으로 청년갱을 찾아 떠났
다. 갱입구의 징검다리를 건널 때 앞에서 정대를 메
고 걸어가는 사람의 뒤모습이 어쩐지 황룡운아바이
의 모습과 비슷하였다.

나는 걸음을 다그쳐 앞서가는 사람을 따라잡았다.
나의 짐작은 틀리지 않았다.

《아니, 황아바이가 어떻게?...》

《예, 어제밤에 되돌아섰지요.》

《떠나던길에 넷째며느리 뵈워 쳐녀도 한번 보시겠
다더니...》

《당자들끼리 좋아하니 내가 비치지 않아도 될
일이지요. 내가 괜히 나서서 춤을 춘다는 생각이 들
니다. 허허허...》

《아바이두 참...》

《지도원동지, 사실 나는 정거장에서 광산 당비
서동무를 만났습니다. 평양에 회의갔다가 돌아오는
길이더군요. 어버이수령님께서 단천지구광업문제
를 푸시려고 커다란 배려를 돌려주셨다는 이야기를
전달받았지요. 나는 더없이 기쁘기도 하고 죄송스
럽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늘 배려만 받고 광부된 도리
를 다하지 못한것 같기도 하고...》

《...》

나도 그만 뜨거운것을 삼키었다.

150만톤유색금속고지점령의 휘황한 설계도를 펼
쳐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
명한 령도를 충성의 마음으로 받들어나가는 전사의
깨끗한 마음앞에서 눈시울이 뜨거워진 나였다.

나는 그날의 아바이를 돌이켜보면서 부문당비서
와 함께 갱안에 들어섰다.

갱도안에서는 돌벽을 두드리는 착암기의 타격소
리며 지심을 울리는 남포소리며 전차들이 달리는
소리며가 한데 어울려 여간만 요란스럽지 않았다.

어디를 보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바라시는
대로 더 많은 유색광물을 생산하기 위해 부글부글
들끓고있었다.

이제 심부굴진막장에서 2계단공사만 끝나게 되
면 품위높은 광석들이 또 얼마나 많이 폭포처럼 쏟아
져내리겠는가, 생각만해도 가슴벅차오르는 일이다.

참으로 당의 결정 관철으로 한결같이 펼쳐나선

이곳 광부들은 가슴마다에 불타는 충성의 열정으로
막아서는 암벽을 밀어제끼고 승리의 돌과구를 힘
있게 열어나가고있는것이였다.

언제나 보람찬 투쟁의 앞장에 서나가던 황아바이
의 미더운 모습을 돌이켜보느라니 어느덧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하나 이런 생각은 43호인도수직갱밑에 뻗은 수
평갱도에 들어섰을 때 깨여지고말았다. 황룡운아바
이의 성난 목소리가 들려왔던것이다.

우리는 걸음을 멈추고 먼발치에서 넷째아들 황하
익을 책망하는 아바이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이녀석, 아직도 갱도에 흘린 광석을 밟고 다니
느냐. 이게 어떤 광석이나.》

《아버지, 일을 빨리 하자구 광석을 많이 담다나
니 좀 흘린건데 그쯤한걸 가지구 뭘 그리 야단입니
까?》

하기야 굴진속도를 2~3배로 부쩍 높이느라고 뛰
고 또 뛰는 일욕심 많은 젊은이로서는 몇개 흘린
광석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상실기도 했다.

그러나 황아바이의 추상같은 목소리는 더 높아
졌다.

《이녀석, 어디 한번 더 말해봐... 이걸 보구서 그
쯤한거라구? 요즈음 네 일본새가 그렇게 거칠어졌
기때문에 나는 부문당위원회에 찾아가서 우리가 축
하모임에 참가하는걸 취소하기로 제기했다.》

황하익은 가슴을 움켜쥐고 원망어린 눈길로 아버
지를 쳐다보고있었다.

《그래 얼마 안되는 이 광석때문에 축하모임을
취소시켰단말입니까? 일을 많이 하다가 이쯤 흘린
걸 누가 탓하겠어요. 아버지는 공연히 불집을 일으
켜가지고 축하무대에도 못오르게 하니...》

그는 안타까이 호소하였다. 뒤따라 황룡운아바이
의 낮은 저력있는 목소리가 간간히 들려왔다.

《그래 우리가 명예를 바라구 애써 일했더니? 랑
심을 속이구 축하의 꽃다발을 받아? 얼굴이 간지럽
지 않으면 혼자 축하무대에 올라 꽃다발을 받아라.
사람이 그렇게 살아선 못쓴다. 네가 얼마안되는 광
석을 흘린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이젠 네 충
성심에 티가 끼었다는것을 말하는거다.》

황룡운아바이가 여기까지 이야기하자 넷째아들
은 흘린 광석을 하나하나 줏기 시작하였다. 그의 말
 한마디한마디는 황하익의 가슴에 파고들어 드세게
울려주었던것이다. 두손에 광석을 든 황하익은 아
버지의 품에 와락 안기며 어깨를 들먹거리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저를 아프게 매질 하
십시오.》

《너보다 자식을 잘 이끌어주지 못한 이 아버지의
죄가 더 크다.》

황룡운아바이의 목소리는 퍼그나 젖어있었다.

이 순간 나는 코마루가 저리고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바로 그래서 축하무대에 오르는것을 취소해달라구 하였구나.)

나는 아버지의 높은 충성심에 감동되어 존경과 신뢰의 정이 어린 눈길로 간데라의 불빛에 얼른거리는 낯익은 얼굴을 오래도록 지켜보았다. 커다란 충격을 받은것은 나만이 아니었다. 부문당비서도 뜨거운것을 삼키며 말없이 깊은 생각에 잠겨있었다. 자신과 가족들에게 날과 더불어 충실성의 높은 요구를 제기하고 무조건 실천해나가는 황룡운아버이의 그 마음속에는 한생을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깨끗이 바쳐가는 혁명전사의 숭고한 뜻이 담겨져있다.

그렇다. 이런 깨끗한 충성심을 지닌 미더운 광부들이 150만톤유색금속고지점령을 위한 채굴전선을 지키고있기에 유색금속광물생산에서는 날마다 시간마다 새로운 비약이 나래치는것이다.

황룡운아버이의 말마디가 가슴뜨겁게 젖어드는 나의 마음은 더없이 흐뭇해졌다.

이튿날 황룡운아버이는 역홀에서 나를 내려워주었다.

《또 와서 도와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꼭 오겠습니다. 다음번엔 아버지네를 축하모임의 무대에서 만나리라고 믿습니다.》

한 광부의 심장속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된 궁지와 행복감을 지니고 렬차에 오른 나는 아버이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오래도록 창가에 서있었다.

거룩한 그 자욱우에

조 빈

한순간 정적이 깃들던 진수장에
산악이 떠밀린듯
우뢰치며 검푸른 물결을 차며
배가 동실 뿔다

철의 동체를 무겁게 흔드니
바다가 온통 기우뚱거리는듯
거연히 배머리 높이 드니
수평선이 들리며 열려오는듯

이 가슴에 열려온다, 수평선 한끝이...
파도 높은 대양 만리
수평선 너머로
우리의 배길이 열린다

불탄 바다가 모래불우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첫 자욱 찍으시며
안겨주신 그 담력으로
《오산덕》 《령군봉》 호... 배를 무어 몇해던가

우리의 타는 눈빛, 우리의 심장은
밤모르는 용접의 불꽃 날렸고
배무이철관을 단숨에 휘여가며
프레스의 숨결로 뜨거웠거니

바람찬 바다가에 다시 오시여
그이께서 보아주신 철배를 띄웠노라
또다시 안겨주신 그이의 담력으로
우리의 가슴은 대양을 안았노라

아, 갈매기도 선체우를 감돌며
해종일 떠날줄 모르누나
밀려오는 억만파도 은물결 금물결로
치절씩 배전을 안고 설레이누나

바다가에 새기신 그 자욱에서
대양도 안을 우리의 가슴들이 열렸고
창창한 우리의 배길
거룩한 자욱으로 찍혀져 만리에 닿았어라

-청진조선소에서-

돌파구에서

리희남

무산이 돌파구라는것은 누구나 다 알고있다. 그 때문에 아마도 사람들은 무산이란 말을 들을 때마다 먼저 벽차고 들끓는 생활과 투쟁과 위훈에 대한 영웅적인 화폭을 표상하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표상은 무산에 와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떠오를수 있다는것을 나는 잘 알고있다.

만일 그 누구든 지금 무산에 와 본다면 충격적인 감정을 느끼게 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무산광산은 우리 나라의 보배입니다. 우리는 이 광산을 가지고 앞으로 원대한 계획을 실현할 수 있게 될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원대한 구상은 오늘 80년대에 이르러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의하여 더욱 활짝 꽃피나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지난해 5월 16일에도 무산광산을 실무지도하시면서 나라의 강철공업을 믿음직하게 뒷받침해주고있는 우리 나라 굴지의 대철광기지로서의 무산광산의 지위와 역할에 대하여 밝혀주시면서 총력량을 집중하여 쇠돌생산을 높일데 대하여 강력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하여 온 나라가 더더욱 무산광산지원에 떨쳐나섰고 수많은 사람들이 철산봉으로 달려와 자기의 청춘과 사랑 그리고 모든것을 바쳐가면서 영웅적인 위훈을 세우고있다.

차령고개를 넘어오는 무산행렬차가 언제나 초만원을 이루고있다는 이 하나의 사실만을 통해서도 무산으로 얼마나 많은 지원자들이 모여드는가를 알수 있다. 각이한 차림새의 그 사람들은 역시 각이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다.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과학자가 있는가 하면 생각

깊은 표정을 담은 당일군들과 왕성한 패기와 정열에 넘쳐있는 경제지도일군들, 그리고 기계조립공이며 전공, 굴진공이며 선반공, 도색공, 각이한 직업의 사람들로 붐비고있다.

그들에게 무엇때문에 무산으로 왔는가 물으면 한결같이 돌파구를 열어제끼기 위해 왔다고 대답한다.

무산땅의 한쪽 변두리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배려에 의하여 생겨난 《천세대마을》이란 주택지구가 있다. 말그대로 천세대의 살림집이 들어앉았기때문에 천세대마을이라고 하는것만은 사실이다. 하지만 광산예술선전대원들의 재담극에서는 천세대마을이라는 이름이 그렇게만 생각할수 없다고 하였다. 천개의 고장에서 천가지 성과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와 살기때문에 천세대마을이라고 한다는것이다. 이것 역시 무산땅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있는 오늘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이라고 할수 있겠다.

여기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다.

무산광산의 채굴장에 올라와보면 은률광산과 두만강지질탐사대와 무산광산사람들이 한덩어리가 되어 회전식착정기를 돌리는 모습을 흔히 볼수 있다. 얼핏 생각하면 서로 다른고장들에서 낫도 이름도 모르던 사람들이 한기대에 달라붙었기때문에 일이 잘 안되리라고 생각할수 있을것이다. 그런데 이런 기대들이 실통히도 일이 더 잘되어 제1차 전국 회전식착정기 굴뚝기경기에서 영예의 앞선 자리를 차지했던것이다.

이들은 모두가 광산에 대해서 생소한 사람들이였다. 그러나 이들은 광산에 오자마자 자기 할 일을 찾아낼줄 알았고 자기의 정력을 바칠줄 알았다.

함남도의 어느 한 배전소에서 온 전공은 여기에

오면 광산일을 몰라 찢찢 땀줄 알았는데 와보니 자기가 할일이 대단히 많다고 하면서 이 기대 저 기대를 찾아다니며 전기설비들을 손질해주었고 그것으로 돌파구에서 일하고있는 긍지를 느끼고 있는것이다. 광산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어느 한 조선소에서 온 도색공 역시 채굴장의 기대들을 끈게 칠해주면서 자기도 돌파구의 생활을 체험한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는것이였다.

무산광산의 채굴장에서 6개월동안이나 살고있는 어느 한 과학자는 자기는 벌써 무산사람이 다되었다고 진심으로 말한바 있었다.

이 과학자뿐아니라 여기서 한달을 살았거나 지어는 단 하루밤을 자고가는 사람들도 무산사람처럼 행세하고있는것이다. 억양이 센 무산의 그 특이한 사투리까지 본따가면서...

무산이 살기좋아서인가? 결코 그런것만은 아니다.

무산에는 두만강바람에 황소대거리가 터지고 철산봉바람에 쇠돌바위가 터진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이들은 웬일인지 《에 추워》, 《무산추위가 지독한데》 하면서도 무산땅을 좀처럼 뜨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다.

청진에서 온 어느 한 처녀는 석달동안 철산봉에서 사귀여온 굴착기운전공과 작별하기 위해 채굴장 인차머리에서 만났다.

석달! 이것은 정말 인생의 한순간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은 이 석달동안에 철산봉의 바람도 함께 맞았고 굴착기를 운전하는 멋도 함께 나누었고 청춘을 빚내임이 무엇인가 하는것도 함께 느끼며 한생을 체험한듯한 추억을 남겼다.

그러나 인제는 남모르게 깊어진 정들은 가슴속에 깊숙이 숨겨둔채 어차피 헤어져야만했다. 그런데 처녀는 뜻밖에도 떠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잘 있으라는 처녀의 부드러운 말을 들을줄 알았던 총각은 그만 어리둥절해지고말았다.

《전 떠날수 없어요.》

처녀는 또한번 말하며 부끄러운듯 눈을 내리깔았다.

그제야 총각은 처녀의 그 말이 은폐된 사랑의 고백임을 알고 그 처녀의 손을 잡았다.

이렇게 이들의 사랑은 맺어졌다.

처녀는 돌파구에서 자기들의 인연이 맺어졌으니 자기들의 사랑 역시 돌파구의 생활처럼 적극적이고 정열적인 사랑으로 될것이라고 행복한 웃음을 지었다.

쇠돌! 이것이 과연 무엇이기에 사람들의 운명을 이렇게도 아름답게 이렇게도 뜨겁게 얹혀놓는단말인가!

무산! 여기에 바로 인민경제의 돌파구로 내세워 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원대한 뜻을 심장으로 받들어가는 온 나라의 뜨거운 숨결이 하나로 맥박치고있기때문이다.

하기에 언젠가 이리로 찾아왔던 한 시인은 철산봉에 서서 마치 온 나라의 숨결을 느끼는것 같다고 하면서 이렇게 웨쳤다.

오, 철산봉!

너는 결코

너만의 숨결로만 약동하는것이 아니구나

시대의 박동 하나로 이어져

창조의 열풍 높은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이다.

하나의 위대한 뜻을 위해 하나의 숨결, 하나의 파장, 하나의 지향점을 향해 돌진하는 시대! 그래서 혁신이 이룩되고 기적이 창조되고 비약이 나래치고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 또하나의 위대한 력사의 한페지를 기록하는 시대!

우리를 안아 키워주었고 우리에게 참다운 삶과 미래를 안겨준 우리 시대란 이처럼 위대한 시대이다.

이런 시대에 살고있다는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무산의 절경

김경준

하늘의 불구름
타래쳐 내리는가
보배산이 통채로
녹아내리는가
무산의 쇠돌폭포

아아한 철산봉마루에서
수천길 뛰어내리는
네 흐름 용용해
온 세상이 바라보고
네 기상 줄기차
만사람의 심장 격동시키누나

대자연의 폭포들이여
네 아무리 신비로운들
네 아무리 황홀경인들

당초 견줄 생각도 말어라
여기 위대한 인간들이 낳은 극치앞에
오히려 무색하리니

오, 장하다
네 흐름의 시원은
열정에 끓는 광부들의 심장
네 흐름의 한끝은
거창한 쇠물바다 강철의 산악

아, 이세상 명승의 폭포
천만을 준대도
바꾸지 않으리라
이내 삶 다 바쳐
영원이 펼쳐갈
보화의 이 흐름과

내 마음엔

신형길

막장이 메도록
탄이 쏟아질 때면
버릇처럼 쥐여보는
탄, 이 탄

교대전 이 한때
광차에 실리는 탄
다시금 한줌 쥐여드니
마치 공원의 꽃송이 안아들듯
그리도 소중히 안아보는가고
운전공처녀 웃으며 하는 말

그말
레사롭지 않아라
누구나 탄부라면

이렇듯 소중히 안아보지 않고
이렇듯 빛같이며 냄새까지
여겨보지 않고서는
쉬이 광차에 떠신지 않는 마음

아, 탄부의 그 마음은
온 나라에 타번지는 창조의 불꽃
온 가정에 차넘치는 행복의 웃음꽃
다 안아보는 마음이어서

다정히 안아보고
소중히 가늠하는
탄, 이 탄의 빛같은
내 진정 꽃향진줄 아오

딸 랭 이

문기창

딸뱅이
너를 흔들어주던
아기는 어디에 가고

너만 진렬장안에 놓여있느냐
어디에 갔느냐
고사리같은 손으로

너를 흔들며 흔들며
새물새물 웃어주던
그 아기는 어디…?

아, 딸랭이 딸랭이
이제라도 너를 들어 흔들면
딸랑딸랑 은방울소리는
이 가슴에
행복의 웃음꽃 피워줄듯하건만…

울리지 못하는 네 앞에선
이 가슴에 울려오는 소리는
너의 전진하고 아름다운
은방울 소리가 아니구나

딸랑딸랑
황금로적가리 높이 솟은
달밝은 명석우에 올려주던

행복의 웃음소리가 아니구나
어머니의 젖을 빨던
천진한 눈동자에
휘발유를 퍼붓고 불을 지른
악귀같은 미제원썹들을 향해
어머니를 부르는 아기의 울음소리
아 피타는 부르짖음소리

울려오누나
울리지 못하는 네 앞에선
그 까만 눈동자들에 새겨안고 간
푸른 하늘 푸른 들에 사무친
원한의 웨침소리…

아, 딸랭이 딸랭이
흘러간 세월은 아득한데
너만 여기에 남아 이 가슴에 올려주는
그 아기는 어디…

너는 무엇을 바치려느냐 외 1편

문동식

이랑이랑 밀려오는
호수의 물결은
기슭에 바치누나
아름다운 노래를

너는 무엇을 바치려느냐?

닐닐이 늘어선
버드나무 숲은
강반에 바치누나
서느러운 그늘을

너는 무엇을 바치려느냐?
푸른 산 바위우에
피여웃는 꽃들은
오솔길에 바치누나
그윽한 꽃향기

너는 무엇을 바치려느냐?

아, 나는 바치련다
내 사랑의 성스러운 땀
호수의 물노래, 그윽한 꽃향기…
언제든 이 땅에 피어나도록

고향의 부두가에서

황혼이 깃드는 포구의 저녁
해풍 시원한 부두가에 나서니
저멀리 수평선을 넘어오누나
새별 이고 고기잡이 떠났던 배들이

건착선, 뜨랄선…
배는 서로 다르건만
한결같이 하나의 이름으로 불리워라
풍어기 휘날리는 만선배라고

언제나 빈배로 포구를 떠났다고
어장이 넘치게 고기를 떠실고
어항의 품으로 돌아오는 배
풍어배 마중으로 부두는 설레거니

아, 나는 묻는다 나의 심장에
너는 고향에 무얼 안고 왔느냐
낳아서 키워준 어머니 이 땅에
저 풍어배처럼 돌아왔느냐?

풍년숲

김명희

1

어찌된 영문인지 량재섭분장장은 최근에 와서 정충국로인의 조언을 그전날처럼 귀담아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전날 같으면 그에게 분장장의 직책을 넘겨준 정충국로인이 동지선달에 씨불임을 하자고 해도 군소리없이 팔걷고 나섰을 그였다. 그러나 지금은 확실히 처지가 달라졌다. 정로인이 무슨 문제든지 귀뜸을 주면 량재섭은 들은듯만들 하기가 일쑤였고 고작 수궁한다는것이 참고해보겠습니다 하는 정도였다.

정로인은 그가 왜 그러는지 몰라서 안타까웠다. 안타까움이 계선을 넘어 그는 요즘 자기의 말이 젊은 분장장에게 씨가 잘 먹지 않을 때면 내가 이젠 성쌍고 남은 돌이 되게 아닐가, 그런 주제에 괜히 젊은이들 일에 참견하면서… 하는 맥적은 생각까지 하곤 했다. 그러나 그 시간만 지나면 곧 로인은 분장장의 사업에는 물론 분장안의 크고작은 일들에도 무시로 끼여들어 감놔라 배놔라 혼수를 들곤 한다.

어느 가을날 저녁무렵이었다.

삽으로 포전과 바람막이숲사이의 넓지 않은 공지를 교통호처럼 파나가던 정충국로인은 삽자루를 짚고 웅덩이에서 나와 손을 툭툭 털었다. 그러면서 웅덩이안에서 맛꼭팽이질하는 만손자 철우와 그 또래인 《풍년》호프락포르운전수에게 혼연히 말하였다.

《됐어, 이젠 그만하면 확신을 가짐즉하다! 너희들은 밭에 들어가서 캐던 감자나 마저 캐여라. 난 분장장을 만나러 가야겠다.》

철우가 웅덩이안에서 엉거주춤 허리를 펴며 미려한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쳐다보았다.

《할아버지, 분장장아저씨가 이 공사를 정말 벌리라고 할가요?》

《원 녀석두, 별 걱정을 다 하고있다. 좀 좋아서 안하겠니.》

로인은 손자의 말에 갑자기 량재섭의 우유부단한 표정이 상기되어 가슴이 서늘했다. 그러나 철우들에게 힘을 줘야겠고 또 자기자신도 기어이 공사를 착수해야 한다는 확신을 다지고싶어 내색하지 않고 좀 좋아서 안하겠니 하고 말한것이였다.

두 청년은 공처럼 웅덩이에서 튀어나와 발가운데서 툭툭거리는 프락포르에로 살같이 달려갔다. 하늘에라도 닿을듯한 기세였다.

정충국로인은 그들의 뒤모습을 흐뭇한 마음으로 지켜보다가 바람막이숲을 따라 신작로쪽으로 스적

스적 걸어갔다. 젊은이들처럼 생기가 넘치는 눈으로 사위를 서서히 돌아보며 그는 주름투성이의 입가에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가없이 트인 백두삼천리벌 여기저기에서 마가울의 저녁대기를 흔들어놓으며 경쾌한 프락포르소리가 들려왔다. 발 들여놓을 자리 없이 디글디글하게 감자알들이 한벌 쪽 깔린 포전들과 수확기들이 캐여놓은 그 감자를 자농차와 프락포르들에 실어주는 노동자들의 모습 그리고 드넓은 대지를 규모있게 가로세로 막아놓은 바람막이숲의 울긋불긋한 단풍… 눈에 띄는것마다가 로인에게는 모두 기쁨이 되고 힘이 되는것이였다.

분장과 분장을 연결한 골계 뻗은 신작로에 들어선 로인은 감자를 싣고 뽕양게 길던지를 일으키며 오가는 차들에도 길을 비켜주며 못내 미소를 금치 못했다. 풍년은 감자를 린근 린산사업소들은 두말할것 없고 멀리 광산지구와 도소재지 주민들에게까지 《배를 두드리며 실컷 잡수어들 보소!》 하고 보내고도 남음이 있어 저렇게 농마가루공장으로 실어나르는것이였다.

뽕뽕-차창에 식양을 번쩍 반사하며 지나가는 어느 한 자동차에는 쏘나무단이 산더미처럼 쌓였다. 황급히 길을 비켜선 로인은 차창의 눈부신 반사광 때문에 운전칸안의 사람들을 볼수 없었다. 그런데 웬일인지 경적까지 울리며 지나가던 그 차는 얼마안가서 갑작스레 멈춰섰다. 뒤따르던 길먼지가 확 밀려나가 몽롱하게 차체를 감쌌다. 운전칸 문이 벌럭 열리더니 회색작업복차림의 젊은이가 디딤판위에 성큼 나섰다. 그는 느닷없이 뒤컨을 향해 손짓까지 하며 소리쳤다.

《정아바이, 빨리 오십시오!》

《어 분장장동무로구만, 거 마침 잘됐네!》

정충국로인은 활달한 걸음으로 격실격실 운전칸 앞에 갔다.

《아바이두 원… 또 밭일 나가셨됐나요! 프락에 앉아 감자삼태기나 결으라고 그만큼 당부했는데… 어서 들어가 앉으십시오!》

긴장한 량재섭분장장은 땅에 내려서서 로인을 부축하여 제 앉았던 자리에 앉히려 했다. 그자신은 아마도 덩실하게 쌓아올린 쏘나무짐우에 올라가 앉을 잡도리같았다. 로인은 그의 팔을 덥석 되잡았다.

《아니, 집에 들어가는길이 아닐세. 임잘 만나려 구 가됐는데 마침… 나하구 저리 좀 가세나!》

량재섭은 조향륜을 붙잡고 앉아있는 운전사의 눈

치를 얼핏 살피고 로인더러 물었다.

《어데말입니까?》

《잠간 가보면 알게 될거네. 내 임자한테 좋은걸 하나 선물하지!》

량재섭은 그 말에 이마살이 찌프러졌으나 선뜻 응했다. 운전사가 보는데서 로인이 또 웅색하게 무슨 혼시를 할가봐 자리를 피하려는것이였다.

《운전사동무, 먼저 들어가오. 가서 혼자 부리우느라 말고 보육원들을 불러내어 함께 부리우라구!》

자동차에 실린것은 탁아소 겨울나이 땔나무였다. 이해의 마지막 거두매 작물인 감자가율이 바야흐로 끝나가게 되자 량재섭분장장은 비생산부문 로력들을 동원하여 탁아소, 유치원을 비롯한 공공건물들의 겨울나이 준비를 동시에 벌려놓았다. 지난 시기 한공정의 농사일이 끝난 뒤에야 새 공정 작업을 착수하곤하던, 탕개가 약간 풀리던 공간을 메꾸기 위하여 량재섭분장장으로선 매우 예견성있게 짜고든 작업조직이였다. 했건만 정충국로인은 며칠전 여기에도 췌기들 박으려들었다. 자동차 한대를 고정 나무운반에 돌리지 말고 왜 농마가루공장 감자실이 차들을 리용하지 못하느냐는것이였다. 그때 량재섭은 그렇게 하면 운전사들이 복잡성을 느껴서 어느 일이든 모나게 해결되지 않을수 있다고 듣기 좋은 말로 거절해버렸다. 내심은 자기가 술선 앞장 선 일 때까지 정로인이 필요이상 간섭한다는 꼬인 심사에 서였지만...

이윽고 정로인은 분장장을 데리고 방금전에 파놓은 웅덩이옆으로 왔다. 그들의 머리우에서는 밀원을 잃은 꿀벌들이 석양에 빨강게 타는 단풍잎들을 꽃으로 착각하고 왔다가 실망하여 구슬픈 소리를 내며 날아갔다.

《이게 뭘고 하니...》

정충국로인은 더 실감있게 설명하려고 웅덩이안에 내려섰다. 먼발치로 감자를 캐며 지나가는 감자수확기우에서 철우가 무시로 이쪽에 힐끔힐끔 곁눈을 판다.

정로인은 삽날에 잘린 가느다란 나무뿌리의 하얀 절단면들을 손가락으로 건드리며 말을 이었다.

《그참 이것들이 곡식에 해를 끼치는게 아니겠나. 철우녀석이 감자를 캐다가 미심결에 나와서 파본거라는데! 발가덕수확고가 씨원칠 않아서말이네.》

그것은 사실이였다. 세력이 왕성한 나무뿌리들이 땅속으로 무수히 뻗어나와 영양물질을 빼앗아 먹고 또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무성해지는 바람막이 숲에 물이 많이 고여서 이즈막엔 발가덕의 곡식들은 확실히 기를 펴고 자라지 못했다. 물론 발가운데 보다 가덕들에 비료를 더 주었지만 무성한 나무들의 《식성》과 랭습의 침습은 막아낼수 없는것이여서 가덕의 손실은 의견 불가피한것으로 치부되어

왔다. 바람막이숲이 어느 한두군데만이 아니라 수천정보를 헤아리는 백두삼천리벌의 드넓은 포전들에 연장길이 천수백여리나 뻗어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이것은 결코 소홀히 여길 손실이 아니였다.

정충국로인은 굵혔던 몸을 일으키며 결연히 말했다.

《그래서 발가덕에다 이렇게 도랑을 치려는거네. 나무뿌리가 뻗어나가지 못하게스려. 그런대서 나무에는 지장이 없을거구, 또 장마철에 고인물이 빠져나갈게니 아무튼 유익할걸세!》

심드렁한 표정으로 묵묵히 웅덩이를 굽어보고있던 량재섭은 부지중 혼연한 미소를 지으며 파제긴 흙무더기우에 걸상다리를 하고 앉았다. 길고 술진 눈섭밑에서 무엇인가를 꿰뚫어보는듯 치며보는 로인의 눈길과 부딪친것이였다. 그 눈길에는 언제나와 같이 부드러운 타이름만이 아닌 엄한 요구도 포함되어있었다. 량재섭은 부자연스러운 손놀림으로 담배갑은 꺼내어 로인에게 한대 권하고 자기 입에도 붙여물며 짐짓 머리를 끄덕이였다.

《좋을듯하긴 한데요.》

좋을듯하긴 하다. 허, 아주 좋진 않구? 정로인은 분장장의 대답이 뜨뜨미지근해서 슬렁슬렁 부채질 해주었다.

《좋을듯한 정도겠나, 오는해부터 수확고가 꺾충 뛰여오를거네! 그뿐 아니지. 다른 분장장들이 견학두 올게구. 그렇지 않나?》

량재섭은 입가에 느슨히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다.

《자부간 일꾼들과 토론해보겠습니다.》

2

알른거리리는 노란 장판방에 불이 밝았다.

정충국로인은 돋보기를 끼고앉아 텔레비존강의를 귀담아듣고있었다. 구수란 고기국냄새가 밀려드는 부엌칸에서는 부산스레 그릇소리를 내며 로친네와 머느리가 저녁동자질을 하고있었다.

한쪽 불이 툭 빼여져나온 철진이가 방에 들어와서 무턱대고 할아버지의 무릎에 올라앉았다. 로인은 조용하라는 암시로 어린 손자를 지그시 껴안았다. 하지만 철진이는 텔레비존화면을 모조리 삼킨 칠판의 분수식에는 아랑곳없이 뒤통수를 간지럽히는 할아버지의 턱수염을 매만지며 히히덕거린다.

《헤, 아부진 수염 없던데...》

이녀석이 애비를 그리는데. 하고 로인은 공산대학재직반에 간 아들을 생각하며 철진이의 허벅다리를 췌질렀다.

《잠자꾸 있어. 저길 좀 듣자꾸나!》

철진이 역시 할아버지에게 할기죽 눈을 흘기며 응알거렸다.

《피, 재미두 없는...》

한쪽 불을 톱 빼여져나오게 만든 알사탕이 입에서 빠져나가려 하여 그는 웅알거리는 소리마저 마무리지 못했다. 할아버지는 통을 놓았다.

《왜 재미 없어? 저것두 공분데!》

철진은 말을 방해하는 알사탕을 아삭아삭 깨물어서 꿀까닥 삼키고 총 휘두르는 시늉을 했다.

《난 푸루룩 땅땅... 이렇게 젤 재밌어! 고슴도치네부대 축제비대장놈 혼썰내는거!》

할아버지는 무뚝뚝하게 반복했다.

《공부라는데두!》

철진은 드디어 암전해진듯싶다. 하지만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그는 조금 지나서 다시 얼굴을 쳐들었다. 할아버지가 흥미없는 산수문제풀이를 열심히 듣는것이 궁금한 모양이었다.

《할아버진 왜 산수공부 하나?》

《농사일에 소용되니 하는거지!》

《거짓부리, 산수가 어쩔 쌀 내는데 소용되나?》

《거짓부리라... 그럼 할아버이가 산수문젠 하나 내볼가?》

《응!》

손자는 자신있게 발췌 웃었다. 할아버지는 손자의 정신을 집중시키느라 일부터 늑장부리며 떠엄떠엄 말했다.

《저 발가운데선 감자가... 정보당 5톤이 난다고 하자. 5톤! 들었지?》

《응!》

《그런데 가녁에선 2톤밖에 안나는구나...가녁에선 가운데보다 몇톤이 적게 나지? 어디 맞혀봐!》

정로인의 턱수염밑에서 까만 두눈알이 영민하게 덩굴다가 반짝 빛났다. 이어 포동포동한 세 손가락이 로인의 눈을 향해 불쑥 솟아올랐다.

《3톤!》

로인은 힘껏 머리를 뒤젓으며 손자녀석의 엉덩이를 두드려주었다.

《그렇지! 바로 그걸 알아야 가녁에서도 3톤이 더 나게끔 대책을 취할게 아니냐. 우리 철진이가 참 말 용커던! 용타니까!!》

《해해해!》

이때 부엌문소리가 났다. 정충국로인은 기다렸던 듯 머리를 돌려 부엌칸을 내려다보았다. 멧부리느라 눈두덩에까지 엇비듬히 손가락빛질해 내리운 머리에다 작업모를 빼투름하니 제껴쓴 철우가 봉당에 들어섰다. 먼지진 그의 얼굴에서 윤희하게 눈에 띄는것은 수염많은 사람처럼 새까맣게 된 입언저리다. 아마도 저녁늦게 일을 다그치느라 감자개나 잘 구워먹은 모양이었다.

《너 인제 오느냐?》

철우는 할아버지의 물음에는 대꾸를 않고 분장장 아저씨가 뭐라더냐고 그 일부터 성급히 되물었다. 아까 감자수확기우에 앉아나가며 결눈을 판 밑천으

로선 발가녁웅덩이에 대한 량재섭의 견해를 료량하기 까리까리했던 모양이다.

할아버지의 관심이 형에게 다 쏠리자 철진이는 난딱 일어서서 아슬랑아슬랑 정지칸으로 나갔다.

《허, 그녀석 급하진 콩밭에 서술치겠다. 어서 세수를 하고 올라오너라.》

정충국로인은 사뭇 철우가 대견했다. 어린것이 발가녁의 높지 않은 수확고를 두고 머리를 쓰기 시작하였다는것만으로도 로인은 그가 기특하고 무척 대견스러웠던것이다. 불모의 이 대지에 바람막이숲을 세우고 농장을 건설한 자기들 세대는 어언 머리에 송라같은 백발이 내렸지만 봄 풀싹과도 같은 희망찬 새세대가 곳곳이 솟아난다는 긍지가 새삼스레 느껴졌던것이다.

이윽고 철우가 물기있는 머리를 빗질하며 방안에 들어왔다. 할아버지는 손자를 손잡아 옆에 앉히었다.

《분장장어른두 좋다고 하더라. 그러니 네가 주동이 되어 청년들 힘으루 그 일을 한번 본때있게 내밀어보거라! 해냄죽싶으냐?》

로인은 이제금 량재섭분장장의 립장이 석연치는 않았으나 손자의 솟된 지향에 서리를 끼얹지 않으려고 분장장도 좋다더라고 제나름으로 말한것이였다.

철우는 어깨를 으쓱했다.

《해내쥬구요. 까짓거!》

《깡포는 놓지 말구.》

《행!》

《그래 뭘루 어떻게 하려니?》

《〈풍년〉 호에다 배수로기겔 달고 냇다 달리지요 뭐!》

《허허... 과시 련결농기계조종수로다! 하지만 그렇게 안돼.》

《왜요?》

《이녀석봐라, 할애빌 보는 눈이 그게 뭐냐? 꼭 쌈군같다니까! 자, 눈을 순하게 뜨구서 내 얘기대루 그 눈앞에 그려보거라. 배수로기게야 보습날개가 이렇게(로인은 두팔을 벌려보았다.)뽀지 않니? 도랑을 넓게 치면 괜히 발이랑이 한두개는 잡힐게구 또 숲에두 지장이 있을게 아니냐?》

철우는 입귀로 히죽이 웃으며 뒤통수를 긁적이였다. 그러다가 문득 얼굴을 들었다.

《그걸 개조해서 보습날개를 좁히면 되겠군요!》

《그렇지. 바로 그거다!》

로인은 무릎을 들썩거리며 대범하게 웃었다. 그것은 이미 그가 포전머리에서 머리속에 설계하고 방송대학 녀교원의 분수식장의를 들으면서 력학적 작용원리까지를 충분히 타산해본 기계모형이였다. 그랬으니만큼 무슨 일에도 일단 마음이 쏠리기만

하면 가랑이에 달린 불적인 그는 이미 수리소에 가 있었을수도 있다. 그러나 여직껏 가지 않은것은 농사의 주인으로 등장한 새세대에게 사소한것으로부터 큰것에 이르기까지 모든걸 제힘으로 해내도록 신발을 똑바로 신겨내세우기 위해서였다.

3

정충국로인은 이른새벽에 집을 나섰다. 분장장네 집으로 가는길이었다. 그러나 곧장 가지 않고 탁아소에 들어서 염소들을 개울가에 내다매고난 뒤에야 그리로 향했다. 고양이 손도 빌려쓰고싶다는 계절이라 이즈막엔 보육원들의 일손을 도와서 새벽마다 이렇게 염소들을 건사해주는 그였다.

그는 누르스름히 색갈이 바래여가는 풀밭에다 돌멩이로 염소말뚝을 쳐박으면서도, 예순다섯 그 나이답지 않게 개울을 훌쩍 건너뛰면서도 노상 알찌근한 생각에 시달리고있었다. 분장사무실에서는 하루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발가늑도랑문제 해답이 나오지 않았던것이다. 분장장이 바빠 지나다보니 훌쩍 까먹고 토론에 붙이지 않았는지 아니면 일꾼들이 모여앉아 옥신각신하다가 단념해버리고 말았는지 정로인은 그 내막을 알수 없어 몸살이 날 지경이었다. 그리하여 속시원히 알아보려고 이렇게 일찌감치 집을 나선것이다.

때마침 벨트오라기로 굴레를 만들어써운 양을 끌고 느릿느릿 마주오는 제섭의 아버지 량기백을 그는 마을길에서 만났다. 26년간 기계화작업반장으로 일해오다가 나이 《대접》을 받고 지난해부터 수리공으로 일하고있는 량기백이긴 하지만 그 역시 아직 기력이 왕성하여 정충국라인 못지않게 마을일을 주관하고있다.

《저 형님이 말손자를 썩 잘 두었습데다!》

아닌밤중에 흥두개식으로 불쑥 내대는 량기백의 말이였다. 타고난 성미란 어쩔수 없는것이여서 머리에 허영게 파뿌리를 엮고서도 다감한 멧은 털끝만도 없는 그였다. 어깨 나란히 인생의 황혼길을 걸어가는 처지에 밤 편히 지냈느냐는 인사도 없이 건네는 그의 말을 정충국로인은 제성미 떼여서 개울에 던졌으랴싶어 탓하진 않았지만 무슨 리유로 손자를 잘 두었다는것인지 몰라 롱조로 물음을 표시했다.

《허, 정충국이 손자 잘 둔걸 이제 알았소? 젊은이들식으로 말하면 감도가뜨기를...》

그래 요새 지내는 일은 어떻게소?

량기백은 짐짓 코허리를 찡그리고 도리를 저었다.

《말도 마시우. 이틀밤을 뜬눈으로 새웠더니 머릿속에서 모터소리만 요란소!》

정로인은 흠칫 그를 쳐다보았다.

《저런 무슨 일에 그렇게?》

《그제밤이었수다!》 하고 량기백은 조금전과는 달리 점잖게 말을 이었다.

《저녁후에 바람을 좀 쏘이느라고 밖에 나섰는데 수리소에서 푹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질 않았겠소. 어느 운전수녀석이 기결 마사먹구 와서 저러나보다 하고 미심결에 건너가보니 아 글썽 철우녀석이, 아차 철우 그 사람이 제동무 돌 데리구 와서 소란을 피우는거지요. 폐기처분이 된 배수로 기결 몇대가저다놓고말ियो.》

흔한게 배수로기결인데 하필 그건 고쳐서 뭘 하려느냐고 내가 썩 소리쳤수다. 두 청년이 와뜰 놀라며 일어서는데 철우 그사람은 배포가 유하게 허리를 펴며 할아버지 나오셨습니까! 우리는 이 기계를 개조해서 발가늑도랑치는 기계를 만들렵니다.수리공 창남동무가 함께 일한다고만 생각하고 할아버지의 승인이 없이 기대들을 돌려서 미안합니다. 하고 사과하더란말이외다. 엄한 늙은이를 모신 집젊은이가 다르다 했습지요!》

정충국로인은 너부죽한 얼굴의 주름살들을 서서히 움직이며 시물시물 웃었다. 철우가 집에서는 응석을 버리지 못해도 동네에 나가서는 어른들을 존대한다니 어지간히 마음이 놓였던것이다.

《그건 그렇구...》

량기백은 철우네가 만든 기계의 사명을 혼연히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도 그 기특한 소행에 감동되어 이틀밤을 동무해주었다는것이였다. 정로인은 내심 량기백이 고마왔다. 하지만 그는 철우들 뒤에 자기가 서있음을 드러내기 웅색해서 금시초문이라는 듯한 표정을 짓고있다가 태연히 물었다.

《분장장어른이 집에 있소?》

《어른은 무슨 어른... 왜 그러시오?》

《좀 조용히 의논할게 있소.》

《의논두 의논이겠지만 드리는 일이 있으면 제때에 바로잡아주오다. 성미 고약한 애빌 님아서 그런지 그녀석두고집이 여간 아닌것 같수다...그나저나 있긴 사무실에 있을거웨다. 오늘렐사이 감자가율이 끝난다구 아마도 새땅찾기계획을 검토하나봘데다! 책임기사와 이말 맞대고 앉아서.》

분장사무실로 향한 정충국로인의 발걸음에는 활기가 넘치였다. 새땅찾기계획을 검토하는것 같다는 말에 구미가 돌았다. 그러지 않아도 올해 계획에 반영된 새땅찾기를 한해 농사일이 마무리되는 이즈음에 본격적으로 냅다 밀게 하자고 속구구를 해오던 그였다. ...

아닌게아니라 량재섭분장장과 책임기사는 이마를 맞대고 앉아 부르고 쓰고 하노라 날뛴는줄도 아는것 같지 않았다. 문소리에 서류철의 수자를 물려주고있던 량재섭이 서서히 눈길을 들다가 자세를 고치며 알은체물 했다.

《아바이가 이거... 일찍 들어오셨수다.》

하고 그는 의자를 권했다. 정로인은 그에게서 서류철우에 수그렸던 머리를 들며 안경을 벗어주는 책임기사에게로 눈길을 옮기었다.

《그참 수고들 하누만! 환절기에 몸을 돌보면서 일들 하라구.》

무시로 찾아와 이것을 바로 잡아라, 저것을 놓치지 말아라 하고 혼시를 하는 정로인임을 잘 아는 량재섭이어서 그는 이 늙은이가 무슨 일로 또 왔을까 하고 생각하며 책상우에 널린 서류들을 주섬주섬 거두었다. 정로인은 눈을 가느스름히 뜨고 잠시 분장장책상을 지켜보았다. 크지 않은 저 량수책상 앞에 앉아서 4년전까지만 해도 바로 자기자신이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맞아주지 않았던가. 그는 그때에 왜 지금 자신이 안고 온 문제를 설계하지 못했던가 싶은 후회가 들어 가슴이 아릿했다.

량재섭분장장이 서류를 거두는 일을 끝내자 《저어...》하고 허두를 땀 정충국로인은 혹시 거절이나 당하지 않을까 하는 위구를 감추지 못하며 전번날 이야기 있던 문제는 어떻게 토론이 되었느냐고 물었다. 량재섭은 충혈진 눈을 들어 정로인을 뜨아히 바라보았다.

《어느 문제던가요?》

정로인은 아빨싸! 이 랑반이 감감 잊었됐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일이 바뀐 사람이나 혹시 토론을 하고도 선뜻 떠오르지 않아 그럴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짝어 말했다.

《발가녁도랑문제말일세!》

《에 에 ...》

량재섭은 얼퍼름하게 대꾸하며 난처한 기색을 지었다. 그리고는 로인이 의자에 앉아 담배를 붙이는 사이에 얼른 책임기사의 눈길을 붙잡고 자리를 피해달라는 눈짓을 했다.

책임기사가 나가자 량재섭분장장을 책상우에 두 팔굽을 박으며 실하고 몽롱한 손가락들을 째지켰다.

《물론 아바이가 제기하신 문제는 좋은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당장은 거게 관심할 제제가 못됩니다.》

정로인의 일가에 문득 벗어나버린 고불통에서 삼오래기같은 연기가 감기며 풀리며 몽롱하게 피여 올랐다. 량재섭은 단호히 덧붙였다.

《우린 땅이 열기전에 25정보의 새땅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러니 그전 새해 봄에나 가서 봅시다.》

(우리라... 그럼 난 그 계열에 속하지 않는단말이지? 여보게 나도 엄연하게 이 분장 노동자일세!) 이렇게 생각하며 정로인은 재털이에다 고물통을 털어서 염낭에 훌쩍 집어넣고 말했다.

《여보게 분장장, 물론 새땅찾기를 해야 하지. 그러기에 내 전체로력은 거기에 집중하고 <풍년호> 한때만 기결 달아서 발가녁도랑지기에 내보내자는

게 아닌가? 우리가 그 일을 착실히 하지 않으면 찾아놓은 새땅을 또 잃는셈으로 된단말일세.》

량재섭은 책상우에 실었던 몸을 서서히 뒤로 제끼며 말했다.

《아바이, 기대와 로력은 짜낸다 칩시다. 그런데 계획외 작업에 쓸 기름은 어데 가서 받아오겠습니까?》

정로인은 땀나무운반에 따로 돌려진 차기름은 어데서 나왔느냐는 말이 허끝까지 밀려나온걸 가까스로 삼켰다. 사업토의를 그런 식으로 하고싶지 않아서였다. 야박해서이기도 하지만 젊은 일군을 애정을 가지고 일깨워줘야 한다는 본의의 심정에서였다. 그는 그냥 탕개를 틀었다.

《여느 일에서 절약하면 안되겠소? 수확고를 높이자는 일이고, 무엇보다도 바람막이숲에서 흙집을 지워버리자는건데!》

량재섭은 절약소리에 가슴이 켕기는지 대꾸를 안했다. 정로인은 이제야 마음이 움직이나부다 하고 력점을 찍어 말했다.

《임자두 아다싶이 저 숲이 어떤 숲인가?... 저 숲에 흙집이 있다는건 바로 나나 임자의 가슴에 병집이 있음을 의미하느거네!》

량재섭은 저으기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다. 힌동안 무엇인가를 망설이는듯하다가 무겁게 모두숨을 내쉬며 말했다.

《아바이, 제 진작부터 진심으로 권고드렸었는데... 정말 이젠 좀 쉬는게 어떻겠습니까?》

정로인은 물끄러미 그를 바라보았다. 생각해볼 여유를 달라는것인지 아니면 60뿔상을 물린 자기더러 이젠 아주 일손을 놓고 쉬라는 소리인지 그의도가 십분 이해되지 않았다.

량재섭분장장은 자못 너그러운 어조로 덧붙였다.

《솔직히 말해서 아바이야 이 농장을 위해 일을 좀 많이 하셨습니까? 반생을 바치셨지요. 그리고 또 60이 지난지 오래오니 이젠 일손을 놓으신다 해도 시비할 사람은 없을겁니다.》

《...?!》

정충국로인은 부르르 아래턱을 떨었다. 그답지 않게 눈살이 쏸뚱해졌다. 그의 체내에서는 피가 온통 거꾸로 흐르는것 같았다. 몇해전에 자식들과 친지들이 옥박지르며 차려준 60뿔 생일상이어서 어망결에 받아넘기긴 했었지만 인생의 마지막 성찬과도 같은 그 상뒤에 이렇듯 서글픈 선교가 이어질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그는 분명히 늙음이라는 피치 못할 자연법칙에 항거하여 노기던 소리를 내질렀다.

《임자, 그게 진심으로 날 위해서 하는 말인가?》

부리부리한 로인의 두눈이 그런 말을 내친 자기

의 속심을 꿰뚫어보는것 같아 재섭은 얼굴이 지지 벌개졌다. 그는 허가 굳어져 간신히 한마디 더 열버 무렸다.

《아니 왜 그러십니까? 정말 난 진심으로...》

《걸어치우게. 임자, 사람을 너무 속보지 말라구 !》

정충국로인은 벌떡 일어서서 밖으로 나갔다. 여닫긴 문소리에 마당가의 황철나무에 앉았던 까치들까지 놀래여 날아났지만 로인은 그 문소리를 의식하지 못했다.

4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3대혁명붉은기새덕분장에서는...》

문화회관 마당앞에 멈춰선 방송차우에 땡그랗게 올라앉은 은백색고성기들이 벌을 향해 힘껏 뻗쳐 대고있었다.

자동차의 적재함우에 앉아 노래높이 마을로 돌아오던 처녀들이 갑작스레 죄없는 운전칸지붕에다 무리주먹을 들썩웠다. 패속으로 달리던 자동차가 길바닥을 긁으며 불시에 멎었다. 운전칸문이 벌컥 열리며 만만치 않게 생긴 고수머리가 불쑥 솟구쳤다.

《뭐야 이건? ...》

《췌, 저 소릴 듣자요!》

내키지 않게 귀를 기울이던 운전사의 얼굴에서 붉은 녹듯 노기가 사라졌다.

《...끝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새덕분장에서는 오늘 열여섯시 현재 농장안에서 제일 선참으로 감자가을걷이를 전부 끝냈습니다! 당위원회와 3대혁명소조의 지도밑에 새덕의 로동자들과 지원자들은...》

이때 정충국로인은 퇴근길에 수리소에 들렀다가 랑기백이 도색까지 산뜻하게 해놓은 기계옆에 앉아 그 소식을 듣고있었다. 그는 머리를 끄덕이며 장단지같은 고불통에다 터발에 심어말리온 잎담배를 듬뿍 장여가지고 풀썩풀썩 피웠다. 온종일 이루 형언키 어렵게 시달려오던 무거운 생각에서 이제야 웬간히 풀려나는듯싶었다. 사실상 성미가 피뻗하기로 갈범같은 랑기백이긴 하지만 정의감은 예이제 변함이 없어 그와 답답한 마음속이라도 헤쳐보려고 기계를 등대고 여기에 들린 충국이였다. 아직 랑기백이와는 말쑥지를 떼다만 정도였으나 방송원이 떠들어대는 저 자랑찬 소식에 어찌 십년묵은 체중인들 풀리지 않을수 있으랴! 모름지기 그 성과속에는 남의 살이 되는듯한 허리를 주먹으로 두드려가며 포기포기에 쏟아부은 자기의 뼈심도, 철을 놓치면 감자를 눈밑에 넣고만다면서 젊은이들 등을 떠밀어주던 원심도 깃들어있을것이였다. ...

그는 문득 아침에 분장사무실에서 있었던 사실에

가슴이 저렸다.

그렇게 분별없이 화를 내며 외람된 행동을 할진 뭐람? 그게 바로 로망이 아닐가. 젊은 일군이 그 못된 말을 하였으면 도리로 보고 그를 더 실속있게 도와주었어야 했을게 아니겠는가. 뭇나무조직이라든가 감지가을뒤에 새땅찾기전투를 련속 들이대려는 잡도리로 보아 랑재섭이 일을 하려고 드는 분장장임에는 틀림이 없지 않는가!

생각하면 할수록 정로인은 자신의 행동이 너무나 지나쳤다고 후회되였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자기비판적견지에선 지금에도 받기억도랑문제를 머느리고금 대하듯하는 랑재섭의 립장만은 좀처럼 리해되지 않았다. 실지 기름이 걸려서 그러는지, 아니면 새땅찾기계획이 아름답차서 그러는지 분장일을 손금 꺾듯 꺾고있는 그로선 도저히 리해되지를 않았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불현듯 로인의 눈앞에는 미더운 반장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함께 일하던 지난날의 경우에 비추어 반장들은 모두 그 일을 당장 해야 한다고 호응해나설것 같았다.

그러나 로인은 서둘러 반장들에게로 쏠리는 마음을 억제시켰다. 분장장을 제껴놓고 다름아닌 이전 분장장인 자기가 반장들과의 사업을 해선 안된다는 자각에서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녀방송원의 목소리가 이미 장쾌한 행진곡으로 바뀐 뒤에도 여직껏 귀를 강구고앉아 담배연기를 풀풀 날리고있는 랑기백이 짚었다. 그의 도움을 받아 아들을 움직일수 있지 않을가 하는 대책안이 선것이였다. 하지만 아쉽게도 또다시 그 생각을 지워버리지 않으면 안되였다. 지금도 찍하면 덕대같은 아들을 앉혀놓고 이놈저놈 하며 닦아세우는 그의 피뻗한 성미가 꺼져져서였다. 그렇게 닦아세우면 랑재섭이 강요에 못이겨 그 일은 해결할지 모르나 분장을 책임진 일군으로서서는 체모를 원만히 갖추지 못할것이기때문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단말인가...

이때 벼락치는듯한 문소리가 났다. 두 로인은 반사적으로 문쪽에 머리를 돌렸다. 세명의 청년이 건성부르르 수리소에 들어섰다. 철우와 그의 감자수확기를 끌던 《풍년》호 운전수 그리고 수리공청년이였다. 철우는 기대옆에 앉아있는 자기 할아버지더러 들으라 해서인지 그를 흘깃 바라보고 랑기백이 앞에 와서 그루박듯 벗어나며 볼부은 소리를 터뜨렸다.

《수리공할아버지, 이 기계들을 창고에 내다 걸어놓고말겠어요!》

그 말에 랑기백이 벌떡 일어서며 눈을 홑떴다.

《그건 왜?》

《우릴 농마가루공장에 가래요. 우리가 없으면...》

《뭐라구? 누가 그따위 얼빠진 지실 내렸어. 엉?》

량기백은 채 타지 않은 담배가치를 콩크리트바닥에 휩 던지고 금시 철우의 목살이라도 움켜쥔듯이 덤벼쳤다. 철우는 그제야 이 로인이 누구의 아버지라는 인식이 들었는지 고개를 돌리며 점직해했다. 량기백은 철우를 지름떠보며 당장 그 사람을 대지 못하겠느냐고 고아댄다. 정로인은 대뜸 그것은 량재섭의 처사일 것이라는 짐작이 가서 정신이 아찔해졌다. 어쩌면 량재섭이 그렇게 도전적으로 처산할 수 있단말인가. 신통히도 발가녀도랑치기를 발기하고 나선 세 청년을 농마가루공장에 빼돌리면서... 물론 해마다 이맘때면 분장들에서는 농마가루분공장에 보조로

력을 몇명씩 보내긴 한다. 그러나 술한 청년들 가운데서 유독 철우를 셋만을 보낼진 뭐란말인가. 그들이 발기한 공사를 회피하려는 속심이 뻔했다.

하어 정충국로인은 가슴에서 다듬이대같은 반발이 치밀었으나 지그시 참으며 일어서서 량기백을 제지시켰다.

《그러나 알아선 뭘하겠소. 점잖지 못하게 소리.》

하지만 량기백은 뼈깡다리주먹을 돌덩이처럼 부르짖고 그냥 욕한다.

《음, 말쑥아두 알만해. 내 이놈의 자식을 그저...》

《차, 이렇게 답답하다구야. 량령감, 철없는것들 말들구 뭘 자꾸 그러우.》

하고 정충국로인은 몸을 휩 돌려 철우를 호되게 꾸짖었다.

《이녀석, 일꾼들이 지실 내렸으면 그대로 가는 게지 뭘 뒤에 돌아와서 이러쿵저러쿵... 썩 사라지지 못할가!》

그 말속에는 네거리에 나가 뽕뽕구 뒤골목에 와서 주먹질이나는 질책도 없지 않았다. 정충국로인은 한동안 철우를 지름떠보다가 그와 두 청년의 잔등을 마구 떠밀어서 내쫓으려 하였다. 그러자 철우가 몸을 빼고 돌아서서 리해할수 없다는듯 자기 할 아버지를 흘려보며 응석투로 들이댔다.

《할아버진 뭘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갈 구갈아요!》

(엉?!) 순간 정로인은 커다란 불뭉치가 날아와 확 박히는것처럼 가슴이 뜨끔했다. 내키는대로면 철우를 와락 꺾안고 《네가 옳다. 그래야 한다.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이렇게 힘껏 고무해주고만 싶었다. 그러나 그는 본의아닌 노기를 띠고 거둬 소리쳤다.

《무슨 대꾸질이나? 버르장머리없이!》

량기백이 잠자코 있을리 만무하였다.

《형님, 왜 그러시오? 제 자손이래서 흰결 겹다 구 몰아대는 법은 어데 있는가말이요?》

정충국로인은 응대를 안했다. 량기백이 역시 움직일수 없는 진실을 내대고있는것이 아닌가! 정로

인에게는 그 진실을 더는 부정할 구실도 없거니와 그런데 습관되지도 않았었다. 이럴 땐 못듣는척하는것이 상수였다. 그냥 철우들을 밖으로 밀어 냈다.

새 청년은 정문밖에 쫓겨나가서 무엇인가를 의논하더니 더는 어쩔 도리가 없는지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농마가루공장방향의 바람막이숲길로 어기적 어기적 걸어갔다. 자기들의 협소한 머리를 티워주고 지향에 나래를 던쳐주던 정충국로인에게서마저 범 물리우듯 물리우게 되자 그들은 이제 아주 떡심이 풀리고 기가 꺾이는 모양이었다.

문밖에 나서서 그들을 묵묵히 지켜보느라니 정로인은 자기도 저 싱싱한 새싹들을 사정없이 지르 밟고 통락하는 그릇된 립장과 공모하는듯싶어 가슴이 저리었다. 그럴수록 그는 량재섭의 처사가 못마땅했다. 정말 그가 그렇게까지 행동할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었다. 량재섭이로 말하면 분조장으로부터 작업반장, 분장책임기사로 20여년간을 정로인이 키워낸 일꾼이었다. 하어 정로인은 그가 자기의 후임으로 분장장이 되던 날 무척 기뻐했다. 믿음직한 일꾼에게 분장일을 맡기었다는 의미에서도 그랬지만 고락을 같이 나누어온 량기백의 대가 군색스럽지 않게 이어지고있다는 의미에서 더욱 기뻐했다.

분장장이 된 량재섭은 조그만 문제도 허턱 처리함이 없이 정로인과 의논해서 처리하곤했다. 로인은 량재섭이 찾아올 때마다 너그러이 대해주긴 하면서도 그를 빨리 제발로 걸어나갈수 있게 하기 위하여 여러모로 애썼다.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량재섭은 오래지 않아 열성이 높고 전개력있는 일꾼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는 차츰 정로인의 타이름은 물론 아래사람들의 옳은 의견도 허심히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사업에서는 최근 땔나무운반에서의 (농마가루공장에 감자를 실어가고 오는 빈차들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려 하지 않는 것)같은 빈구석들이 자주 눈에 띄곤했다...

정로인은 착잡한 마음을 안고 멀어져가는 세 청년을 측은히 바라보았다.

5

세 청년은 호박굴같은 바람막이숲속길로 얼마쯤 걸어가다가 비슬비슬 돌아섰다. 마을쪽을 원망스레 바라보는 그들의 표정에는 도대체 저 마을에 우리를 지지해줄 사람이 그리도 없단말인가 하는 서러운 생각이 어려있는것 같았다.

그들이 다시금 농마가루공장쪽으로 무거운 걸음을 옮겨갈 때 정로인은 불현듯 그들이 가더라도 기꺾이지 말고 신심을 잃지 않도록 위로해주고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뿐아니라 그들과 더불어 자신도 발목이 시도록 사연깊은 바람막이숲길을 걸으며 허전해

지는 마음을 달래고싶었다. 그러지 않고선 도무지 견딜것 같지 못했다.

《이녀석들 게 좀 섰거라!》

석씩한 목소리에 나 어린 세 청년이 다시금 휙 돌아섰다. 성큼성큼 다가간 정로인은 손길 내키는대로 탄력있는 그들의 잔등이며 어깨죽지를 한대씩 쥐어박았다.

《줄장부같은 녀석들, 그만한 일에 기가 꺾여서 걸음새들이 이게 뭐냐?》

로인은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그들이 걸던 흉내를 냈다. 세 청년은 쑥스럽게 웃으며 저마끔 로인을 등지고 돌아섰다. 부끄러웠던 모양이었다. 흔히 정로인은 젊은이들을 질책할 때면 주먹으로 그들의 등어깨나 동가슴을 톡 쳐주곤한다. 그러나 그 주먹에는 추호도 아픔이 없다. 포옹이상의 후더움만이 있을뿐이다. 하기에 세 청년은 단 한번의 주먹맛에 벌써 조금전의 고까움을 짱그리 잊고 기가 죽었던 자신들을 부끄럽게 생각한것이었다.

세 청년의 마음이 움직이고있음을 포착한 정로인은 저으기 용기를 내며 그들의 팔을 끼었다.

《걸자꾸나! 걸으면서 내 옛말을 하나 할테니 들어보거라!》

그들은 당치않게 옛말은 무슨 옛말이냐는듯한 표정으로 로인을 돌아보았다.

소슬바람에 머리위의 단풍잎들이 살랑살랑 속삭였다. 봄마다 뻗꼭새가 찾아와 씨뿌리는 농민들과 흥겨이 노래를 나누곤하여 한길 산촌의 정서를 돋구어주는 숲이다. 정로인은 이 숲길을 걸을 때마다 지난날의 갖가지 일들이 감회깊이 돌이켜져 이 보람찬 시대를 값높이 살아가는것 같지 못한 자신을 늘 채찍질하곤했었다. 하여 이 시각도 그러한 기분으로 청년들을 랑옆에 끼고 수직수직 걸으며 신중한 어조로 허두를 떼는것이였다.

《너희들은 아마 그때 이 세상에 태어날 꿈도 못 꾸었을게다.》

청년들은 호기심에 떠서 귀를 강구었다.

《그게 바로 52년도 여름이랬다...》

나는 강동군이 고향인 명순필이리는 한부대친구와 함께 야전병원에서 제대명령을 받고 여게 왔다. 와보니 여젠 온통 나무바다였는데 전채민들이 들어와서 그걸 개간하더구나.

그때 지배인이란자는 저만 켜체하며 우쭐렁거리는 코대가 여간 세지 않은놈이였다....

지배인은 종합농장에서는 대형기계들로 밭을 갈고 김매고 가을까지 하는 종합작기계화를 하게 되므로 포전규모가 거칠것 없이 넓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니만큼 바람막이숲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베어버리라는것이였다. 노동자들은 그의 말을 끝이 듣지 않았다. 바람막이숲이 없으면 거센 대륙풍의 피해를 막을길이 없고 농사를 지을수 없

는것이였다. 그리하여 지배인의 《지시》에 추종하는 사람들과 노동자들간에 바람막이숲을 세워두느냐 베어버리느냐 하는 문제를 두고 옥신각신하다가 나중에는 주먹을 휘두르는 완력행사까지 벌어졌었다. ...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주의깊게 들으며 걸던 철우가 언제 기분이 언짢았더나싶게 밝아진 표정을 띠고 제몸뚱이보다 더 실한 봇나무줄기를 어루쓸며 혼연히 물었다.

《할아버지, 이것도 그때 지켜낸거냐요?》

《암, 그렇구말구! 허나 그후의 화재에 없어진 걸 다시 심은것도 있지. 마저 들어보겠냐?》

세 청년은 걸음을 멈추고 로인을 에워쌌다. 로인은 그들을 데리고 주단같이 부근부근한 락엽우에 앉았다. 머리 흰 로인을 마주하고있는 새파란 세 청년의 얼굴에 빨간 단풍빛이 어리였다.

정로인은 새로 찾아낼 땅들을 돌아보고 오던 랑재섭이 자기들을 발견하고 지발치 다래나무덩굴뒤에 문득 벗어나는것도 감촉하지 못하고 눈을 섬뻍거리며 말을 이었다.

《53년도 봄에는 먼저 개간한 땅에 씨를 뿌리게 되었던단다.

그런데 지배인은 트랙토르들을 벌방지대 국영농장에 몽땅 빼돌리지 않았겠니. 농업성에 들어박힌 종파놈하구 짜고들어서말이다. 바람막이숲때문에 여기서 기계들을 부릴수 없다면서... 일은 난감하게 되었던구나. 글썄 이 넓디넓은 벌에서 기계로 밭갈구 거두어들이지 않으면 뭘투 한단말이냐?

궁리끝에 저 랑령감전에 기계화반장을 한 명순필이와 나는 트랙토르를 몽땅 분해해놓았던단다.정비합네 하구서 <지연전술>을 쓰는 판이었지. 그러니 사태는 험악해질수밖에. 기계를 받으러 온 사람들은 상급의 <지시>대로 받아가겠다고 아우다웅하구 우린 내놓지 않으려고 늑장부리구, 게다가 지배인이란자는 무장자위대에 있는 제놈의 계질사한 심복을 시켜서 나와 명순필을 빈 창고에다 가두더구나.》

《아니 왜요?》

《근거도 없이 함부로?...》

청년들은 중구난방 떠들어댔다.

《근거란 트랙토르를 모조리 파괴했다는거였다. 아무리 나쁜놈들 눈이기로서니 분해해놓은걸 모르고 파괴해버린걸 가려보지 못했겠냐? 원래 심보가 고약한놈들이라 무시무시한 감투를 씌워서 우리 손발을 얹어매느라고 그랬던거지.》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그자들은 노동자들이 떠들구 도회의에 갔던 당조직원이 왔을 때에야 마치 못해 우릴 내놓더구나 그런데 또 난처한 일은 그날밤 명순필이가 감쪽같이 자취를 감춘 사실이였다. 놈들은 그가 <도

망) 친결 보아 국가재산을 파괴한 반동이 틀림없다는거였다. 나에게도 그 계잘사한놈에게 정충을 메워서 〈감시〉를 붙이더구나. 〈덕분〉에 난 난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호위병〉을 대동해보았지. 지어 뒀간에 갈적에도말이야. 허 참 우스워서…》

수리공청년이 머리를 짓속이고 키득거렸다. 뒀간 해 갈적에도 계잘사한 〈호위병〉이 따라다녔다는 말이 우스운 모양이었다. 철우가 팔굽으고 그의 옆구리를 꺾꺾 찔렀다. 웃기에는 이야기가 너무 심각하다는 뜻이었다. 수리공은 그제야 정색해지며 머리를 들었다.

로인은 다음말을 한달만에 명순필에게서 편지가 왔었다는 대목부터 시작했다.

집에 가서 공장 취직수속중이라는것을 전한 그 편지에 명순필은 지배인 꼴 보기가 역겨워서 새덕에는 안가겠다고 썼다. 정충국은 그 심중이 심분 리해되면서도 한편 화를 참을수 없었다. 반동이 확실하다는 딱지가 붙어가지고 어데 가서 마음 펴고 살 수 있겠느냐는 반감에서였다. 그날로 그는 강동에 갔다. 순필이도 그의 말을 듣더니 이를 갈며 따라왔다. 누가 반동이고 반동이 아닌지를 가려내기전엔 여기를 뜨지 않겠다는것이였다…

그들은 개간을 하면서 한편 그해 농사를 본때있게 지었다. 보리를 심었는데 새땅이어서 썩 잘되었다. 가을이 닥쳐왔다. 보리란 이삭고개가 여린 곡식이어서 낫으로 가을할 경우는 누기가 있는 때를 택해야만한다. 그런데 천치같은 지배인은 유럽에서 사용하는 풀베기낫을 능률 높은 개량농기구라면서 구해다 로동자들에게 억지로 들리워 내물었다. 별 좋은 한낮에 일렬로 늘어서서 그 낫으로 고원 보리를 낫다 같겼으니 난알은 건어칠수 있었겠는가. 이삭은 거의나 땅에 버리고 태반 맨 짚을 거두었을뿐이였다. 《가을》이 끝나자 지배인은 《선진농법》을 《도입》한답시고 밭에 불을 지르게 했다. 풀씨와 병해충을 없애고 곡식그루를 태워 밭에 카리성분을 가라앉힌다는것이였다. 그리하여 대지는 삽시에 불바다로 변했다. 불길은 이내 바람막이숲에 번져갔다. 지배인이란자는 애초에 제놈이 내놓은 《바람막이숲 제거론》을 《판철》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 대지에서 농사가 안된다는것을 수확고로 《확신》시키기 위하여 이렇게 집요하게 책동했던 것이다. 그것으로 하여 자기의 반동적정체를 날날이 드러내긴 했지마는…

그런데 그날 명순필은 불행하게도 바람막이숲에 달린 불을 끄다가 희생되였다.

정충국로인은 새까맣게 탄 명순필의 시체를 부둥켜안고 토하던 설분을 되뇌이며 눈굽을 훔치였다.

《〈순필아, 너를 저 몸쓸놈들이 불에 태워죽이다니 이 웬말이야? 사신을 넘어 락동강까지 함께 갔다운 너를… 아 이렇게 만들자고 집에 간걸 내가

기를 쓰구 데려왔더냐?〉 나는 주먹으로 땅을 치며 통곡했건만 명순필은 영영 우리 곁을 떠나고말았다…》

철우가 분개하여 돌덩이처럼 굳어진 주먹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물었다.

《할아버지, 그래 그놈들을 가만 놔뒀어요? 불지른놈들말이에요.》

《왜 가만 놔뒀겠니. 그놈들 죄행을 날날이 까밝히구 가차없이 제거해버렸지.》

그리고 로인은 흥분이 앞서는것을 누르며 근엄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해나갔다.

《전쟁이 끝난지 얼마 안되어 우리는 이 대지에 어버이수령님을 모시는 영광을 지녔단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비오는 날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손수 삽을 잡고 땅을 파보시더니 부식층이 이만하면 얼마든지 농사를 지을수 있겠다 하며 무척 기뻐하시더구나!

그날 수령님께서서는 어린 나무들을 갓 심어놓은 바람막이숲에 이르자 여기가 지난해 가을에 불에 탄 자리냐고 물으시질 않으시겠니!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던 나는 그만 목이 꼭 메여 말을 이을수 없었다. 문득 명순필의 생각이 떠올라서였다. 명순필이도 살아서 나와 함께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웠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랴싶어서였다. 이치러진 나의 표정을 살피시던 수령님께서서는 무슨 가슴 아픈 사연이라도 있었느냐고 자애롭게 물으시더구나. 나대신 옆에 섰던 당조직원이 수령님께 명순필의 희생경위를 상세히 말씀드리더라. 그러자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흐리신 안색으로 바람막이숲너머 어딘가 먼곳을 이윽히 바라보시다가 〈그러니 우리는 이 대지에서 두사람의 혁명전우를 잃었구만…〉 이렇게 갈리신 음성으로 뇌이시는게 아니겠니!

두사람의 혁명전우란 무슨 뜻이고 하니 39년 5월에 저 대흥단별전투에서 희생된 혁명가와 명순필을 녀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었던다. 한갓 바람막이숲을 구원하다 잘못된 평범한 한 인간의 가치를 조국광복을 위해 싸우다 희생된 혁명가의 높이에 올려주실 때 우리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였다. 만사람의 마음속에 영생하게 될 명순필이라는 인간의 가치는 바로 개척자들 우리모두가 지닌 가치였기때문이었다!

정로인은 다시금 터실터실한 엄지손가락으로 눈굽을 찍어내고 말을 맺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그날 떠나시기에 앞서 우리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며 이 대지에선 바람막이숲을 잘 키워야 농사를 안전하게 지을수 있다! 우리는 이 대지를 영원히 동무들에게 맡긴다!

동무들은 농장을 훌륭히 일떠세워 지난날 천대받고 압박받던 이고장 인민들에게 사회주의 덕, 로동당의 덕을 입혀야 한다고 분에 넘치는 믿음을 안겨

주시더구나.》

다래나무덩굴에 몸을 가리우고 섰던 량재섭은 저로인이 왜 새삼스럽게 그 이야기를 하는가 하고 생각하며 마을쪽으로 향했다.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 그 장소에는 왜 그런지 자기를 나타내고싶지 않았다.

어느덧 석양이 스러지고 바람막이숲에는 땅거미가 깃을 펴기 시작하였다. 소슬한 저녁바람에 대지를 지키는 근위병마냥 줄지어선 나무들의 높은 가지들이 우수수 설레었다.

6

세 청년을 농마가루공장으로 떠나보낸 뒤 정로인은 곧바로 분장사무실에 갔다. 어떻게 하나 량재섭분장장을 잘 타일러서 바람막이숲의 흠집을 지워버려야 한다는 본능적인 자각에서였다. 량재섭은 사무실에 없었다. 포전에서 돌아오자마자 량기백이 데려내갔다는 것이었다.

(아뿔사! 저 괴벽한 령감이 그예...)

정로인은 불길한 예감에 황급히 사무실을 나섰다. 아니나다를까 분장장네 마당에 이르자 달아맨 방문으로 량기백의 성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놈아, 그대 네놈의 행동이 53년도에 저 숲을 없애려던 나쁜놈들 장난이나 다르게 뭐냐, 영? 형태가 다르달뿐이지 본질이말이다.》

갈린 아들의 목소리는 비명에 가까웠다.

《아니, 뭐라고요. 아버지, 그제 누구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까?》

《왜 네 애빈 청맹파닌줄 알아? !》

《아버지, 너무합니다. 저도 그걸 안하자는건 아닙니다. 그러나...》

《듣기 싫다! 이젠 분장장이구 뭐구 당장 걸어치워라. 재목이 못된다. 재목이!》

정충국로인은 입에서 구렁이가 나가는지 호랑이가 나가는지 모르고 노발대발하는 량기백을 제지시키려고 성급히 토방에 올라섰다. 하지만 애원에 가까운 량재섭의 말이 오금을 잡고 그를 그자리에 굳어지게 하였다.

《정아바이가 내 일에 자꾸 그렇게 참견하면 사람들이 절 뭘루 알겠어요? 아버지도 좀 심중히 생각해보시라요. 솔직히 말해서 이젠 그 아바이에게선 들을만한 소리가 얼마디에 한두마디도 없어요.》

(이크!)

정로인은 소스라치며 뒤로 물러섰다.

사정없이 후려치는듯한 량기백의 목소리가 그냥 울려나왔다.

《뭐라고? 얼마디에 한두마디도?... 건방진놈, 네가 벌써 그렇게 뻔냐?

이 미련한놈아, 너 잘나서 분장장이 되구 너 잘해서 분장일이 떠나가는줄 알아? 잉! 썩바자 바람막이는줄 모른다구 정령감만 아니였다면 어림도 없다, 어림두! ...》

저도 몰래 담장밖에 나선 정로인은 발길 내키는 대로 허겁지겁 걸으며 중얼거렸다.

《음 그렇구나, 그랬게 글세... 아니 정말 내 참견이 사람들앞에서 분장장의 체면을 깎아내리는 시비질에나 불과했는가?》

정충국로인은 어둑컴컴한 방에 홀로 앉아 애꿎은 담배로 밤을 새다가 밖으로 나왔다.

마가울의 선선한 밤대기가 번거롭던 마음을 한결 개운하게 해주는듯싶었다. 대지의 숨결인지 새벽이 다가오는 소리인지 우웅-하는 소음이 대기속에 하나가득쳤다. 귀를 기울여보니 그것은 마당밖의 전주꼭대기에서 전류가 흐르는 소리였다.

로인은 뒤집을 지고 마당밖을 스적스적 거닐었다.

(아니야, 내 불찰이 커. 잔소리는 많이 했어두 분장장에게 씨가 박힌 말을 해주지 못했게 그 사람이 그렇게 뻔했지. 더우기 요즈음엔 분장사업에 참견하기를 주저하구... 몇해전에 분장장문서를 넘겨준 것만으로 어떻게 내 할일을 다 했다고 볼수 있을텐가.)

로인은 지리지 갈마들던 량재섭에 대한 섭섭한 감정을 녹갯히며 도리를 저었다. 팔팔 흘러내리는 수도물소리가 그를 멈춰세웠다. 로인은 어느 덜통한 녀인을 두고 허를 차며 길옆의 수도터에 들러 수도꼭지를 비틀어막고 나왔다. 수도물은 멎어 버렸건만 로인의 생각은 계속 줄달음쳤다. 량재섭의 병집을 고쳐주어야 할 방도를 여러모로 추리해보았다. 그러나 어느 하나도 신통칠 않았다. 매번 《참견》이라는 암초에 부딪쳐 산산조각이 나고 만다.

(아니다. 이렇게 바재이는것부터가 나의 로쇠를 의미하는거다. 날이 밝으면 스스럼없이 찾아가자. 다른 사람도 아니구 바로 친구의 아들인데야 서슴어할건 무어람!)

갑작스런 인기척에 로인은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저발치 길나무밑에서 소스라쳐 일어서는 검은 형체에 눈길이 미쳤던것이다.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그는 량재섭이었다. 쇠몽둥이로 마구 두들겨패는 것 같은 아버지의 꾸중을 듣다못해 집을 뛰쳐나온 그였다. 그는 원인을 딱히 알수 없는 자기 불만에 휩싸여 온밤 들길을 오락가락했었다. 불거진 마을과 저 멀리 뻗어간 바람막이숲과주위의 행뎡그렁한 들판, 그 모든것과는 하등의 인연도 없이 된것 같은 자신을 발견했을 때에야 그는 맥을 놓고 저 나무밑에 와서 퍼더버리고 주저앉았던것이다.

정충국로인은 서슴지 말자고 그렇게도 다짐했건만 상대가 량재섭분장장임을 느끼는 순간 여느때

없이 서먹서먹해짐을 어쩔수 없었다. 아마도 그 몹쓸놈의 《참견》이 또 머리를 쳐든 모양이었다. 하나 로인은 본의아닌 그 희롱에서 이내 자기를 수습했다. 날이 밝으면 찾아가려던 계획이 스스로 앞당겨진 셈이었다.

《임자, 게서 뭘하나?》

량재섭은 와플 놀랐다.

《아, 아바이시군요! 전, 저어... 바람을 줌...》

정로인은 씨엉씨엉 다가가서 화석처럼 굳어진 그의 어깨를 톡 쳤다.

《에끼 사람두! 아버지한테 꾸지람을 줌 들었다 기로서니 이러면 되나? 임자가 맥놓으면 분장이 맥을 놓는줄 몰라?》

량재섭은 당황해하면서도 시침을 뱉었다.

《아니 뭘 그러십니까? 아버지...》

《그만두게, 내 다 들었네. 임자를 만나자구 갔다가... 임자부친이 성미는 파격해두 대는 바른 어른이야!》

량재섭은 더는 말뼀을 못하고 얼굴이 지지벌겋게 되었다.

로인은 말했다.

《임자, 명심해 들으라구. 원래 나와 관련된 문제여서 말치 않으려다가 임자나 임자부친과의 의리를 봐서 말해야겠네. 보아하니 임잔 열성이 높고 전격력있는 일꾼이라는 평가를 받은뒤부터 교만해져서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하거던. 제 주장만 고집하고...》

순간 량재섭은 너 잘나서 분장장이 되구 너 잘해서 분장일이 떠나가는줄 아느냐고 소리치던 아버지의 말을 상기하고 머리를 숙이었다.

《아바이, 섭섭해마십시오. 제 정말 버릇없이 행동했습니다.》

정로인은 그의 처진 어깨를 톡 쳐서 움켜잡고 정신이라도 들게 하려는듯 마구 흔들었다.

《자네 무슨 말을 하고있나? 섭섭해하다니. 자네 부친의 말대로 자네가 선배를 몰라본대서 내가 말하는줄 아는가? 아닐세. 자네의 가슴속에서 충성심이 자리를 뜬것 같아 그러는걸세. 세대는 바뀌어도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충성심만은 영원히 변하지 말아야 할게 아니겠나. 내 초저녁에도 젊은 녀석들보구 말했네만 명순필은 저 숲을 지키려구 목숨까지 바쳤네. 자네도 중학생때 보았을테지만!》

(아니 그러면 철우들에게 한 이야기는 그들이 나처럼 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량재섭은 가슴이 섬적하고 눈앞이 뿌얘졌다. 호되게 꾸짖던 아버지의 말에 더는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이놈아, 네놈의 행동이 53년도에 저 숲을 없애려던 나쁜놈들 장난이나 다른게 뭐냐? 형태가 다르달뿐이지 본질이말이다.》

(아, 내가 이게 어쩌다가?...)

량재섭은 폭 떨군 머리를 두손으로 움켜쥐었다.

잠시 말을 끊었던 정총국로인은 힘주어 다시이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그처럼 중시하시는 숲인데 거게 흠집이 있게 해서야 안되지. 그걸 발견하지 못했다면 몰라도 안 다음에사 왜 가만있겠는가말이야. 만사를 제껴놓고 그것부터 바로잡아 봐야지. 그래야 저 숲이 둘러선 포전들에서 어버이수령님께서 바라시는대로 영원한 풍년을 마련할게 아니겠는가!》

량재섭은 뭔가 분명히 말을 하려고 머리를 버쩍 들었다. 그러나 목이 꼭 잠기여 말이 나가지 않았다. 그는 가슴속에서 교만이 움트고 자라면서 잠시도 차요시해서는 안될 승고한 감정을 밀어내기 시작했다는것을 통절히 깨달았다...

동녘이 희끄무레 옅어지면서 대지우에 질게 드리웠던 어둠이 서서히 걷혀지고있었다. 정총국로인은 새벽빛을 받아 차츰 뚜렷해지고있는 량재섭의 거무죽죽한 모습을 다정스레 안아보며 말했다.

《날이 밝는데 이제 집에 들어가라구! 다문 한참이라도 눈을 붙여야 할게 아닌가.》

량재섭은 결연히 머리를 들었다.

《아바이... 전 정말 면목이...》

정로인은 말을 잊지 못하고 다시 머리를 숙이는 량재섭의 어깨를 두드렸다.

《이사람아, 면목은 무슨 면목... 나하구 임자하구 그럴 처진가! 어서 들어가게나, 모름지기 임자부친두 담배질로 이 밤을 새울거네. 자식에게 매를 든 부모의 가슴은 맞는 자식보다 몇갑절 더 아픈법이네!》

량재섭은 사무실에 가서 농마가루분공장에 전화를 걸겠다고 했다. 거기 간 로력들을 교체하여 오늘중으로 발가덕공사에 착수하겠다는것이였다. 정로인은 그더러 전화를 걸고 경비실에서라도 눈을 붙이라고 당부했다. 분장장은 그러겠노라 선뜻 대답하고 돌아섰다.

정총국로인은 고불통에 담배를 듬뿍 장여서 불을 붙이며 중얼거렸다.

《대답이 혈한걸 보니 아마 눈을 붙일 잡도리가 아니군. 허허, 아무래도 또 뒤쫓아가서 《참견》을 해야겠는걸!》

로인은 분장사무실을 향해 스적스적 걸어갔다. 어느때없이 담배맛이 구수하고 좋았다. 닭울음소리가 들려오는 마을에서는 아침연기를 굴뚝에 피워올리는 집들이 한집두집 늘어가고있었다.

각일각 유리알처럼 맑아지는 하늘을 떠이고 거연히 치솟는 바람막이숲이 좌- 설레었다.

-백두삼천리벌에서-

졸업논문

전세창

촉매직장은 순풍에 돛단배와 같다고들 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직장장 박종빈의 두리반같이 둥글넙적한 얼굴에는 흐뭇한 미소가 어리곤했다. 이 큰 공장의 비료생산공정에서 제일 선참으로 상반년도계획을 수행한 촉매직장이고보면 그럴만도 한 일이었다. 그러지 않아도 공장직맹위원장은 상반년도 사회주의경쟁총화준비를 하면서 늘 웃는 낯으로 높은 성과를 쌓아올린 촉매직장장을 첫토론자로 지목하고있었다.

그는 박종빈직장장이야말로 《철촉매》와 같은 사람이라고 했다.

하긴 한방울의 암모니아를 생산하자 해도 수소와 질소를 합성시키는 촉진제로 철촉매가 있어야 한다.

촉진제로서의 철촉매, 그야말로 박종빈직장장에 게 어울리는 말이었다. 그에 대해서는 로동자들속에서도 적지 않은 파문을 일으키고있었다.

언제인가 촉매직장 담당전공은 박종빈직장장에 게 《도깨비방망이》가 있다고 우스개소리를 한 일까지 있었다. 그가 임의의 시각에 툭딱- 《도깨비방망이》를 두드리기만하면 레외없이 요구되는 부속품이 그의 손에 쥐여진다는것이였다. 로동자들속에서 떠도는 그에 대한 일화는 예비부속품을 잘 마련해놓는것만이 아니였다. 그는 학부형으로서도 인기가 대단했다.

지난해 도에서 진행된 교편물전람회에서 박종빈직장장네 아들이 다니는 학교가 일등을 한것도 그가 문어모조품을 살아움직이는것 같이 만들어보냈기때문이라고 했다.

그 유명한 문어모조품을 두고 교원들과 학생들은 물론 동네방네 학부형들까지도 직장장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러기에 한번은 촉매직장에서 《보배덩이》라고 불리우는 전기로운전공인 윤희가 처녀들끼리 모여앉아 리상문제를 논의하던중에 이런 말까지 한 일이 있었다.

《직장장동지네 가정은 정말 행복할거야. 직장장동지자신도 화학기사인데다가 안해까지도 공장대학 전기공학교원이여서 그 어떤 기술적문제도 부부가 한마음이 되어 풀어나갈테니말이야.》

《윤희야, 너의 리상도 그런가부지.》

처녀들은 까르르 웃음을 터치였다. 그 웃음은 분명 부러움을 금치 못해하는 웃음이었다.

그리고 보면 순풍에 돛단배와 같다는 촉매직장의

비결을 파히 짐작할만도 한 일이었다.

지금 박종빈직장장은 토론원고를 쓰고있었다. 그는 몸도 우람차거니와 키도 흰칠하여 얼핏 보기에는 중량급 체육선수를 방불케 하였지만 의자에 앉은 자세는 여간만 틀져보이지 않았다. 눈귀에 잔주름이 가긴 했어도 살집좋은 두리반같은 얼굴은 체구에 잘 어울리었고 삼십대 젊은시절의 호남아를 뵈는듯 했다. 종이우에 펜을 달리는 겨를에도 병글썩 열려진 입가에 알릴듯말듯 미소를 담고있는 그의 모습은 은근히 사람의 마음을 끄는데가 있었다. 그는 담배를 태우지 않으면서도 늘 담배꽂이 주머니에 들어있듯이 토론원고의 글귀를 고르는 사색속에서도 촉매생산정형을 꼼꼼히 새겨보고있었다. 그러느라니 출입문이 열리는 인기척마저 느끼지 못하였다.

《직장장동지, 이번 사회주의경쟁총화에서 직장장동지가 토론한다지요?》

종빈은 그제야 머리를 들었다.

촉매직장 담당전공인 진규가 출입문가에 서있었다.

그를 넘겨다보는 종빈의 눈은 《그건 왜?》 하는 반문이 실려있었다.

진규는 버릇처럼 싱긋 웃어보이더니 직장장 책상앞으로 성큼 성큼 다가왔다. 그는 또한번 히죽 웃고는 손에 쥐고있던 종이장을 종빈이에게 내밀었다. 종빈은 진규가 신웃음을 치며 다가볼때에는 반드시 그 무슨 공궁이속이 있다는것을 잘 아는터여서 짐짓 엄한 표정을 짓고있었다.

《직장장동지, 상반년도 촉매직장 전력소비정형을 따져보았는데 계획보다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습니다.》

종빈의 입술은 그제서야 병글썩 열려졌다.

《그러니 직장장과 담당전공이 한마음이 되면 에너지 없단말이지.》

종빈이 상반년도 전력소비계획을 세우던 일이 생각나서 하는 말이었다.

그때 진규와 종빈은 여간만 옥신각신하지 않았었다. 진규는 전력소비기준을 좀더 낮추자거니 종빈은 좀더 높이자거니... 하던끝에 질소와 수소가 합쳐 암모니아가 되듯이 직장장과 담당전공이 한마음이 되기만 하면 문제없다는 진규의 주장앞에서 종빈은 한발 양보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런데 진규의 그 주장이 현실로 입증된것이였다. 종빈은 놀라움을 금치 못해하면서도 진규앞이라

집짓 태연한 표정을 짓고있었다.

《직장장동지, 하반기도에는 지금보다 전력소비 기준을 50프로는 더 낮출수 있을것 같은데 이번 토론에서 한번 결의해보지 않겠습니까?》

종빈은 저도 모르게 눈섭꼬리가 주뻗해졌다.

그의 입에서는 금시 《뭘-? 5프로도 아니고 50프로?》 하는 웨침소리가 튀어나올것만 같았다. 그러나 그가 입에 담은 말은 오히려 진구가 놀랄 정도로 여유작작했었다.

《그보다 더 낮출 생각은 없나?》

《예?!》

《그럼 좋네. 동무가 분석한 그 종이를 이리 주게. 후에 다시 토론해보세.》

진구는 엉겁결에 손에 들고있던 종이를 책상우에 놓았을뿐 더는 할 말을 찾지 못하고있었다.

《그럼 래일아침에 다시 오겠습니다.》

진구는 돌아섰다.

《가만, 안됐네만 나가던 길에 윤희를 좀 보내주게. 작업반 휴게실에 있을거네.》

진구는 나가려다 무슨 생각에서인지 다시 걸음을 멈추었다.

《저- 직장장동지... 저녁에 저를 위해 시간을 좀 내줄수 없겠습니까?》

《시간? 보다싶이 난 바쁘오. 무슨 일인지 후에 보시오.》

종빈은 쓰다가만 토론원고우에 손가락장단을 쳐 보이었다.

그는 진구가 나가자 책상우에 놓고간 종이를 집어들고는 보는등마는등 사업일지갈피에 끼워넣었다. 그리고는 다시 펜을 들었다. 하지만 한자도 더 쓸수 없었다.

《허어 참, 미운 중놈이 고깔을 모로 쓰고 이래두 밭소 한다더니 으음-》

하긴 종빈이로서는 그럴만도 한 일이었다. 촉매 생산과 관련하여 그가 발벗고나서면 풀리지 않은 일이란 거의나 없었다. 그런데 담당전공인 진구만은 좀처럼 휘여잡을수가 없었다. 전기를 다루는 사람이어서인지 그야말로 전기공학같이 까다로운 사람이였다. 좌우간 그와 맞서기만 하면 신경을 둔구게 되는데는 어쩔수 없었다.

아직 장가도 가지 않은 사람이 오죽 까다롭고 옹고집쟁이였으면 공장대학에 다니는 전 과정에 최우등을 하고도 졸업논문때문에 기사자격증마저 받지 못했겠는가.

(생각만 해도 들었던 정마저 싹 떨어진다니.)

종빈은 것처럼 제고집에 뿔을 세우기 좋아하는 진구와는 될수록 정면으로 맞서는것을 피하느라였다.

진구로 하여 어지간히 기분이 잡쳐진 그는 머리속에 구상하고있던 토론체제마저 뒤죽박죽이 되고

말았다.

때마침 윤희가 사무실로 들어왔다.

종빈은 나비라도 내려와 앉을것 같은 함박꽃문양의 원피스에 빨간 가방을 든 윤희를 보자 금시 마음이 정화되는것 같았다.

《응- 윤희가 수고할 일이 생겼구나.》

종빈은 윤희를 무릅없이 친동생 대하듯하느라였다. 예쁘장한 얼굴에 마음씨 고운데다가 눈썹미 빠르고 일손이 여물기를 대추씨 같아서 못하는 일이 없는 윤희였다.

박종빈이 인기를 끈 그 유명한 문어모조품도 사실은 윤희가 착상하고 만들어서 직장장에게 준것이였다.

그러게 종빈은 마른일 곳은일 가림없이 윤희를 찾았고 촉매직장 녀성들중에서 혁신자를 꼽으라면 그의 이름을 맨 첫자기에 놓곤했었다. 그러다보니 종빈은 직장장으로서 자기 산하에 있는 종업원들을 다 책임져야 하지만 그중에서도 윤희만은 자기가 책임지고 시집까지 보낼 결심이였다.

윤희에 대한 관심은 종빈이만이 아니였다. 그의 안해 김수옥은 고급중학교시절에 윤희아버지의 제자였다. 윤희말에 의하면 자기는 늘 아버지한테서 최우등생인 수옥언니처럼 공부를 잘해야 한다고 혼시받았다고 했다. 그래서인지 몰라라 안해는 스승의 딸인 윤희를 친동생같이 돌봐주었고 윤희 역시 친언니처럼 따랐다.

《어마나-》

윤희는 긴다리를 칠칠이 드리운 문어를 보자 놀라는가싶더니 인차 그 문어의 속내를 알아맞히고 웃음을 금치 못해했다.

《우리가 만든 문어모조품이군요. 그런데 왜 여기와있어요?》

《응, 어제저녁에 민호네 담임선생이 가져왔더군요.》

《고장났대요?》

《전기장치가 고장났는지 눈과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나. 윤희가 한번 더 수고해줘야겠다.》

윤희는 두말없이 문어모조품을 받아들고 나가려다가 문득 생각나는것이 있는듯 되돌아섰다.

그는 직장장의 기분을 타진하는듯 잠시 표정을 살피다가 흰살결에 홍조를 피우며 어렵게 입을 열었다.

《저- 직장장동지,한가지 부탁이 있는데 들어주시겠어요?》

종빈은 너그러운 미소를 지으며 머리를 끄덕여 응수했다. 윤희가 요구하는것이면 뭐든지 다 들어주고싶은 그였다.

《몇년전에 직장장동지가 전기로에 대한 기술혁신을 하다가 그만둔 기술자료가 있지 않아요. 그걸...》

윤희는 직장장의 표정이 굳어지는바람에 뒤말을 잊지 못하고 주춤거리었다.

《갑자기 그건 왜?》

《좀 참고할게 있어서요.》

《네가?》

종빈은 윤희를 처음 보는 사람같이 눈이 커졌다. 윤희는 왜서인지 숯불같이 달아오른 얼굴을 붉히며 기여들어가는 소리로 대답했다.

《네가 기술혁신하러느냐?》

《아이- 참, 전기로운전에 참고될가 해서 그래요.》

윤희는 전에없이 수태를 머금으며 기대어린 눈으로 직장장을 지켜보고있었다.

《정- 필요하다면 주긴 하겠지만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참고가 되겠니...》

종빈은 전화중이 울리는바람에 더 말은 잊지 못하고 송수화기를 들었다.

기사장실에서 참모회의가 있으니 빨리 올라오라는 전화였다.

《내 시간이 없어 그러는데 그건 후에 보자꾸나.》

《아니 지금 꼭 봐야겠어요.》

윤희는 일단 말을 떼바엔 물려서지 않겠다는듯 강경한 자세로 직장장을 막아섰다. 그의 얼굴에 비졌던 수집음은 씻은듯 가셔졌다.

《어허- 윤희가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 이러나...》

윤희의 성미를 잘 알고있는 종빈은 어쩔수 없이 사람좋은 미소를 지으며 서류함열쇠를 찾아들었다.

그가 서류함밑에서 꺼내놓은 종이뭉테기는 볼품없이 보풀이 일고 퇴색한것이였다.

《몇달전에 진규가 참고할게 있다면서 가져가더니 이렇게 만들어놓았구나. 하긴 이제야 이걸 어데다 쓰겠니.》

《아이, 이 귀중한 자료가 왜 쓸데 없겠어요?》

《그럼 어디 실컷 가져다 봐라.》

윤희는 그것을 받아안기 바쁘게 나는듯이 사무실을 나섰다.

(그 어떤 복을 타고난 총각이 대상자로 나서겠는지.)

윤희의 뒤모습을 바라보는 종빈의 뇌리에는 느닷없이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종빈은 자기 살불이중에서 윤희에게 장가들만한 총각이 없는것을 못내 아쉬워했다. 그런데 윤희는 통 시집갈 생각을 안하는지 그런 내색을 전혀 보이지 않고있다.

종빈은 쓰다가 만 토론원고를 간종그려놓고 사업일지를 집어들었다.

그가 막 사무실을 나서려는데 전화종소리가 빨리 송수화기를 들라고 재촉했다.

《예, 촉매직장장이 전화받습니다... 당신이요?》

공장대학에서 안해가 걸어온 전화였다.

《...뭐요? 진규가... 작년에 그 논문을 다시 작성하여 제출했다... 그래서?》

종빈은 들어서는 안될 말을 들은 사람같이 눈이 휘둥그레졌다.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구... 그런데... 뭐- 뭐라구? 누가 누구를 사랑한다구?》

종빈은 갑자기 수화기가 귀를 지저놓기라도 한듯 놀란 소리를 지르더니 귀전에 대고있던 송수화기를 눈앞으로 추켜들었다. 그는 구멍이 송송 뚫린 수화기를 뚫없이 들여다볼뿐 더는 아무말도 못하였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수화기에서는 안해의 부름소리가 그대로 울리고 있었다.

종빈은 한참만에야 수화기를 다시 귀에 가져다댔다.

《여보 그래 진규가 윤희를 사랑한다는거요, 윤희가 진규를 사랑한다는거요, 뭐 벌써 암모니아가 된것 같오다... 모를 소리야 모를 소리...》

종빈의 귀에는 안해가 출장을 가게 되니 일찍 들어와 달라는 다음 말이 더는 새겨들리지 않았다. 그는 전화가 끝난후에도 이윽도록 덤덤히 서있었다.

《벌써 암모니아가 났다...》

저도 모르게 입속말을 중얼거리는 그의 눈앞에는 새삼스레 첫사랑을 속삭이던 일들이 려줄런줄 밝혀왔다. ...

갈매기 날아에는 백사장, 수평선우에 가물가물 사라져가는 고기배를 바라보는 청춘남녀, 종빈이와 수옥이였다.

종빈은 모래불에 암모니아 화학식을 써놓았다.

그것을 본 수옥은 발깃하니 달아오른 얼굴에 수태를 머금으며 살래살래 머리를 짓고있다.

《아이참, 암모니아는 다른 시약만 첨가하면 분해될수 있어요. 분해되지 않는 정결체. 그것이 무엇인지 맞춰보세요.》

수옥은 말을 맺기 바쁘게 매미날개같은 수건을 팔랑이며 파도치는 기슭으로 달려간다.

《분해되지 않는 정결체? 사랑!》

종빈은 모래를 손에 쥔채 수옥이와 술래잡이를 하듯 다쫓아간다.

(진규와 윤희의 사랑을 암모니아에 비유한건 무엇때문일까?)

종빈은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오르자 펄쩍 정신을 가다듬었다. 그러니 안해도 그들의 사랑을 달가와하지 않는 모양이였다.

(하긴 짝이 기울어도 이만저만 기울지 않지.)

윤희가 진규의 그 어떤 장점에 매혹되었을가.

종빈은 진규의 사람됨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지

을수 없었다.

윤희를 남달리 잘 알고있는 그로서는 진규를 아
니깝게 보고있는 자기눈으로가 아니라 이를테면 녀
성적인 눈, 윤희의 시점에서 밝혀보느라면 없지 않
아 마음에 끌리는 점도 있을것 같았다.

종빈이가 진규를 처음 보았을 때 그 모습은 께
인상적이었다. ...

진규가 촉매직장을 담당하기전에 키가 양바름한
전공이 담당하고있었다.

종빈은 그 전공을 여간만 싫어하지 않았었다. 사
람이 어떻게나 꼬장꼬장한지 자그마한 전기부속이
고장나도 직장장을 찾아왔다. 운전공들의 책임성을
높이게 해달라는것이였다. 그리고는 레외없이 동
력파에 보고했다. 그바람에 종빈이 자신이 기사장실
에 불리워가서 전기설비에 관심이 없다고 추궁받은
것이 한두번이 아니였다. 종빈은 은근히 전공직장
장을 구슬리기 시작했다. 담당전공을 교체하자는
속심에서였다.

바로 이러한 때 전기절약과 관련한 종업원총회에
서 진규의 토론을 듣게 된 종빈은 그에 대한 호감
을 가지지 않을수 없었다. 결보기 속보기라고 그 인
물부터가 마음에 들었다. 들리는 말에는 언젠가 그
어느 예술단 연출가가 쪽 빠진 후리후리 한 키와
보기 좋게 균형잡힌 그의 몸매에 매혹되어 배우선
발수첩을 펼쳐들고 담화한 일도 있다고 했다. 그때
그 연출가는 그의 몸매만이 아니라 기름한 얼굴에
어울리는 주먹코며 넓은 미간을 사이에 두고 좌우
로 끈게 퍼진 초리 긴 눈섭이며 류달리 큰 눈확에
서 예지적으로 빛나는 눈동자에 이르기까지 그 생
김생김이 어떻게나 무대에 어울려보였던지 배우로
서는 적임자라는 말까지 했었다.

《저는 어려서부터 물리에 취미가 있었고 지금도
전기공학을 제일 좋아하는답니다. 그 지향은 앞으로
도 변하지 않을것입니다.》

진규의 대답은 간단하였다.

그런 진규여서인지 토론은 또 얼마나 잘하는가.

《...우리 나라 그 어데 가나 수력발전소. 화력발
전소가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 나라같이 많은 전기
를 생산하고 흔하게 쓰는 나라는 없을것입니다.그
렇다고 전기를 낭비해서야 되겠습니까. 조금만관심
을 돌리면 적지 않은 전기를 절약할수 있음에도 불
구하고 흔한게 전기고 눈에 보이지 않는게 전기라
고 낭비한다면 밀빠진 항아리에 물붓는거나 무엇
이 다르겠습니까...》

종빈은 그의 토론까지 듣고보니 이끌리는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더우기는 공장대학에 입학한 날부
터 계속 최우등을 한다는 말에 꿀떡 군침까지 삼킨
종빈이였다. 마침 종빈의 옆에는 전공직장장이 앉
아있었다.

《여보게, 저 동무를 우리한테 붙여주게나.》

이렇게 시작된 종빈의 수완앞에서 전공직장장은
손을 들지 않을수 없었다. 결국 진규는 촉매직장을
담당하게 되였다....

(윤희도 그때 나처럼 그의 인물에 매혹된것인가?
)

종빈은 자기도 모르게 설레설레 머리를 저었다.
그럴 윤희가 아니였다. 종빈의 눈앞에는 문득 진규
가 촉매직장에 처음 나타났을 때 일들이 떠올랐다.

진규의 일숨씨는 확실히 먼저 전공과는 다른데가
있었다. 그는 기계설비가 불량하여 전기가 랑비되
거나 전기기구를 잘못 다루어 고장나는 경우에도
직장장을 찾아오는 때는 거의나 없었다. 그자신이
운전공들을 일깨워주고 이끌어주는 좋은 품성을 가
지고있었다. 그런데 진규의 그 좋은 품성은 시간이
가고 날이 감에 따라 의외의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불량개소가 생기면 운전공들이 직장장을 찾아오기
시작했다.

종빈은 어차피 운전공들의 요구에 낮을 돌리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날 그처럼 원심을 써서
맞아들인 진규가 융통성은 바늘귀만큼도 없다는것
을 사무치게 느꼈었다.

월말 생산전투를 한창 벌리고있을 때였다.

윤희가 운전하는 전기로의 변압기가 열병에 걸린
것 같이 열이 나기 시작하였다.

《변압기를 세워야겠소.》

진규의 요구는 단호했었다.

《변압기를 세우면 이달 계획을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애원에 가까운 윤희의 음성은 금시 눈물을 쏟을
것만 같았다.

《진규동무, 솔직히 말해서 저 변압기는 지금보
다 더한 열에도 아무 일이 없었어요. 저는 사실 그
래서...》

《뭐요? 아니 그럼 이런 일이 한두번이 아니었던
말이요?》

윤희는 섣뜻 대답을 못하고있었다.

《윤희동무, 전기로가 배가 불러 숨이 가빠하는
데도 자, 철이 맛있다, 더 먹어라. 하는 식으로 그냥
먹이기만하면 변압기에 무리가 가고 술한 전기가
랑비된다는거야 동무자신이 잘 알지 않소.》

흔히 사내들이란 녀자의 눈물앞에서 아량을 보이
기가 일쑤이려만 진규의 주장에는 드림이 없었다.
때마침 종빈이가 그들에게로 달려왔다.

《진규동무, 그게 어디 윤희동무 잘못인가. 책임
은 내가 질테니 너무 그러지 말라구.》

《저도 직장장동지가 책임져야 한다는걸 알고있
습니다. 하지만 담당운전공인 윤희동무의 잘못도
크다고 봅니다.》

《웁어요. 잘못은 저에게 있어요.》

윤희는 진심으로 자신을 뉘우치고있었다.

종빈은 그러한 윤희가 둘우어보였지만 이러나 저러나 월계획만은 해야 했다.

《사람두… 저 변압기는 나한테 있어서 팔다리하고 같은거네. 그런 내가 아무려면 변압기성질도 모르고 일하겠나?》

그러나 종빈의 수완으로는 진규를 능처놓을수가 없었다. 두사람사이에는 어차피 큰소리가 튀어나왔다.

결국에 가서 봉변을 당한것은 종빈이었다. 문제가 어떻게나 커졌던지 참모회의에서까지 논의되었다.

둘째머느리를 맞아봐야 말머느리 사람됨을 안다더니 일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때마침 졸업론문을 준비하게 된 진규가 《가스로 입에 의한 철촉매 용해법》이라는 창조적론문을 집필할 결심이라고 했다. 한마디로 지금 쓰고있는 전기로를 가스로 개조하여 전력소비기준을 현재보다 50프로 낮추겠다는것이였다. 그럴듯한 리론이였다.

공장에서 다량 생산되는 무연탄가스로 로내온도를 높이기 시작하여 자철이 용해점에 이르렀을 때 전기를 투입하면 철촉매의 질도 높아지고 그만큼 전력소비기준도 낮아진다는것이였다.

(막대한 전력을 얻어내는 창조적인 졸업론문 전기로를 가스로 전환시킨다…?)

종빈은 무슨 일에서나 안될걸 뻔히 알면서 좌우간 해보게 하는따위의 성미가 아니였다.

더우기는 몇년전에 그자신이 가스로 철촉매를 생산할수 없겠는가를 시험하다가 적지 않은 실패끝에 사고까지 일으켰다. 종빈은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오싹 소름이 다 끼치는것만 같았다.

그것은 종빈이가 처음 직장장으로 배치되어왔을 때였다. 그는 첫눈에 전기로를 개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부일심이라는 말도 있지만 전기기사인 그의 안해 수옥이도 남편의 의도에 쌍수를 들고 찬동해나섰다. 화학기사와 전기기사, 그들은 한 뜻이 되어 심사숙고했다. 그들이 타산하고 계산한 종이만 해도 책상서랍 하나는 차고도 남음이 있었다.

로동자들은 정성이 지극하면 둘우에도 꽃이 핀다고 부부의 그 열정에 열매가 맺히리라는것을 의심치 않았었다.

로동자들의 찬사와 기대속에 시험작업은 며칠째 계속되고있었다. 그러던 어느날밤, 가스열에 자철이 녹기 시작할무렵이였다.

뜻밖에도 천둥번개마냥 굉음이 터지면서 전기로가 갈라지고 녹기 시작한 쇠물이 로밖으로 터져나왔다. 종빈은 미처 손쓸사이도 없이 화상까지 입었다. 그러다보니 그의 안해는 자기대로 고민이 컸었다. 그들은 사고원인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그런데 바로 진규가 그와 거의 같은것을 졸업론문으로 선택했다니 강 건너 불보듯 할수 없는 종빈이였다.

그는 진심으로 다시한번 깊이 생각해보라고 권고했었다.

그러나 진규의 결심은 변함이 없었다.

《직장장동지, 화학비료를 책임진 우리가 회학비료생산에서 가치있고 현실적의의가 있는것이면 그것이 아무리 어려운것이라 해도 누구든 꼭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속에서 대학까지 다닌 제가 어떻게 물려설수 있겠습니까?》

듣고보니 진규말에도 일리가 없지 않았다.

종빈은 진규의 담당지도교원인 안해와 토론해보았다.

수옥은 진규가 쓰려는 론문내용을 설명하면서 리론적으로는 가능할것 같다고 했다. 하긴 종빈이가 실패한 가스로도 리론적으로는 빈틈이 없었다. 그러나 리론 그자체가 실천을 담보하는것은 아니였다. 한다 하는 과학기술자들도 실험적단계에서는 미소를 짓다가 공업적단계에서 실패의 쓴맛을 본 레는 얼마든지 있다.

종빈은 생각이 많았다. 어데 가서 무슨 일을 하든 자기가 데리고있는 사람들이 둘우어보이지 않으면 밥잠을 못자는 그였다.

(리론적으로 가능한것이라면 졸업론문으로서는 통과될수 있지 않는가.)

생산에 도입하는것은 후에 볼 일이다.

종빈은 진규가 졸업증부터 받을수 있게 그의 요구대로 시험로까지 설치해주었었다.

그랬으나 진규가 빚어낸 결과는 종빈이를 아연실색케 했다.

국가변론날자가 눈앞에 떨어졌는데도 진규는 론문을 제출하려고 하지 않았다.

시험결과가 좋지 않았던것이다. 리론과는 달리 현실은 실패를 시사해주었다.

진규는 눈확까지 폭 꺼져가지고 고심했다.

《어쩌겠나. 이젠 날자가 없는데 론문만이라도 통과시켜 졸업증부터 타고봐야 할게 아닌가.》

종빈은 이런 권고를 한두번만 하지 않았었다. 담당지도교원인 수옥은 본인보다 더 안달아했다.

《진규동무, 그 론문을 내놓기가 그렇게도 주저되면 이제라도 기존설비를 변론해보는게 어때요?》

그처럼 안타까와했지만 진규는 여전히 그 어떤 권고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선생님, 내가 오늘 주저앉으면 래일엔 더욱 일어나지 못할것입니다. 두고보자는건 현실에 대한 도피라고 봅니다.》

진규의 그 말속에는 대학을 졸업한 일부 선배기자들이 기사자격증을 하나의 증표로만 간수하고 다

닌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깃들어있었다.

《진규동무, 그렇다고 5년간이나 알심들여 가꾸어온 열매인데 국가변론날자를 고려하지 않아서야 되겠나요.》

수옥이가 만일의 경우를 생각하여 안타까와하는 말이었다.

5년간 가꾸어온 열매는 얼마나 귀중한것인가.

《웁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 남들이 이미전에 이룩해놓은 기존설비의 력학적원리를 졸업론문으로 작성하여 기사자격증을 받는다면 저는 얼굴이 뜨거워 머리를 들고다니지 못할것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열매가 아닙니다.》

자기의 지향을 열렬히 옹호하는 그의 자세는 도 고했다.

당의 품속에서 대학을 다닌 그가 조국에 바치는 첫 열매는 졸업론문이라는것이였다. 이를테면 대학 전과정에 이론과 실천으로 축적한 지식을 집대성한 창조적인 논문이야말로 귀중한 열매라는것이다.

그처럼 자기 주장을 열렬히 옹호하던 진규였지만 종당에 가서 차례진것은 적지 않은 사람들의 비난이였다. 그는 국가변론날자가 지날 때까지도 논문을 제출하지 못했다. 같이 다니던 동무들은 기사가 되었는데 전과목 최우등생이 졸업론문때문에 깃이 꺾인 새처럼 되다니. 주위사람들이 더 안타까와했다.

수옥은 아쉬움을 금할수 없어 밤잠까지 이루지 못했었다.

《그 옹고집이 제손으로 제 체면을 깎다니. 꺾잡는게 매라고 대학을 다녔으면 어떻게 해서든 기사자격증을 받고봐야지... 현실과 리상의 공간을 욕망만으로 메울수 없다는걸 알아야 해. 교훈을 찾아야지.》 종빈은 내뿔듯 이렇게 말했을뿐 진규와는 구태여 말하는것조차 꺼려했다.

그런데 일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여전히 그 논문을 주무르고있다.

더우기 윤희까지도 그와 맞장구를 치며 사랑을 속삭이고있다니 노래부르던 가수가 채채기를 한것같이 이마살이 찌프러졌다.

종빈은 자기가 의자에서 어떻게 일어났고 책상주위를 몇바퀴째 돌고있는지조차 알지 못하였다. 그러던 종빈은 저도 모르게 이마를 탁 쳤다. 뇌리에 한가지 번쩍-떠오르는것이 있었다.

《그렇지, 그때 진규와 윤희가 함께 우리 집에 왔었지.》

웁았다. 진규의 졸업론문이 물의를 일으킨 얼마후였다. 그때도 벅어리 뺑가슴 앓듯 시험로에 붙어앉아 공공거리던 진규가 의외에도 윤희와 함께 종빈의 집을 찾아왔었다. 종빈이도 수옥이도 그들의 출현을 별다른것으로서는 여기지 않았었다. 윤희는 제집 드나들듯 하는 처지이고 진규도 논문집필과정

에 몇번 찾아온터여서 오는길에 우연히 만난것으로만 알고있었다.

그때 진규는 자기의 빛을 보지 못한 논문을 가지고 찾아왔었다. 시험로에서 실패한 원인에 대해 종빈이와 수옥의 방조를 받자는것이였다.

그날저녁 어차피 토론은 논쟁으로 번져졌다. 윤희도 자기 생각을 무릅없이 털어놓았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그때 윤희가 내놓는 안들은 진규의 논문과 거의 일치되는것들이였다. 그러니 그때는 미처 느끼지 못했지만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돌이켜보건대 그전부터 그들의 관계가 어지간히 깊어있었다는 짐작이 들었다.

종빈의 눈앞에는 논쟁의 분위기가 방불히 살아올랐다.

한참 열변을 토하던 진규가 담배불을 붙이려고 성냥을 그으려다가 성냥가치들이 와그르르 쏟아지는바람에 《아차》하는 소리와 함께 입에 물고있던 담배마저 떨어고말았다. 진규와 윤희는 거의 동시에 성냥가치들을 주으려고 허리를 굽히었다. 그 바람에 머리를 맞조을빈한 그들은 애무어린 눈길로 마주보다가 종빈이를 보자 어쭙은 미소를 짓는것이였다.

때마침 아래방에서 숙제하고있던 민호가 그림종을 들고 들어왔다.

《이모,나 그림 그렸다.》

민호는 윤희를 이모라고 부르느터였다.

《그래, 어디 좀 보자.》

윤희는 마침 났다는듯 성냥가치들을 손에 천채 그림종이를 받아들였다.

민호가 그린 그림은 문어였다. 그 또래 아이들치고는 제법 잘 그린 그림이였다.

《직장장동지, 앞으로 민호를 미술대학에 보내야겠어요.》

윤희의 그 말에 그림을 받아본 종빈이도 수옥이도 대견함을 금치 못해했다.

그런데 진규가 갑자기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음을 터치였다.

《겉보기는 멋있는데 내용이 틀렸구나.》

《예 ?》

《내 수수께끼를 하나 낼가?》

진규는 문어다리가 몇인가고 물었다.

그러자 윤희가 까르르 웃음보를 풀어놓았다. 민호가 문어다리를 열개로 그려놓은것이였다.

종빈이와 수옥은 서로 마주볼뿐 아무말도 못하고 있었다.

(원 사람두- 애가 그린 그림인데 다리가 열개면 어떻게 여덟개면 어떻다는건가. 형태가 멋있으면 됐지. 별걸 다 까뵈혀가지구 사람을 어색하게 만드누만.)

종빈은 어지간히 속이 뒤틀려 남모르게 혀까지

찾았다.

《호… 아무래도 민호한테 내용과 형식을 다 갖춘 문어를 만들어줘야겠구나.》

윤희는 의미심장한 눈으로 민호를 일별하고 종빈을 뵈며 쳐다보는 것이었다.

종빈은 그때 윤희의 리지적인 눈빛에서 자기의 가슴속을 꿰뚫어보는 것 같은 이상한 감촉을 받았다. 그런 일이 있던 얼마 후에 윤희가 합성수지로 만든 문어모조품을 가져왔었다. 전기장치까지 해놓은 문어모조품에 전기만 넣으면 살아있는 문어 마냥 데굴데굴 눈알을 굴리고 다리를 휘젓는 것이었다.

(가만 그리고 보니 윤희가 기술혁신도면을 가져간 것도 다른 목적이 있어서인 것 같다…)

종빈의 눈앞에는 여느때없이 수줍어하던 윤희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런데 윤희가 왜 나한테는 그런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

종빈의 가슴속에서는 불시에 그 무엇인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다.

아늑한 사무실에 서있건만 허허 벌판에 홀로 서 있는 듯한 허전한 느낌까지 들었다.

종빈은 귀전을 때리는 전화종소리를 듣고서야 벽시계를 쳐다보았다. 그는 급히 송수화기를 집어 들었다. 기사장실에서 참모회의에 빨리 오지 않는다고 독촉했다. 종빈은 황급히 사업일지를 찾아 들고 사무실을 나섰다.

직장앞마당에는 넓은 잎정향나무가 싱그러운 향기를 풍기는 자그마한 공원이 꾸려져 있었다. 급한 걸음으로 공원을 지나가던 종빈은 갑자기 발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는 듯 우뚝 멈춰 섰다.

넓은 잎정향나무가 가리워 사람은 보이지 않는데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평상시 같으면 구태여 발길을 멈추지 않았으련만 지금은 저도 모르게 귀가 쫑긋 세워졌다.

《발없는 말이 천리간다고 일은 참 묘하게도 되었군요.》

《내 그래서 오전에 수옥선생한테 논문을 제출하면서 동무이야기도 비쳤겠소. 그러구 직장장동지가 실패했던 이 기술자료들이 우리한테 말없는 방조자였다는데 대해서도 이야기했소.》

《수옥선생은 뭐라고 하던가요?》

그들은 진규와 윤희였다.

(문명 일은 그렇게 되었던 말이지. 진규가 윤희를 어떻게 끌어당겼기에 벌써 저렇게까지 되었나… 가만 내가 실패했던 기술자료가 어떻게 됐단구?)

종빈은 불시에 배반당한 사람같이 굳어졌다. 얼굴빛은 언무치러 퍼퍼딩했다.

몇달전에 진규가 그 기술자료들을 가져갈 때에도 종빈은 별말없이 선선히 내주었었다. 그것은 논문은 제출하지 못하여 졸업증을 받지 못한 진규자신

이 그 기술자료들을 참고해보면서 심중한 교훈을 찾고 우선 대학부터 졸업하도록 처신할 것을 바래서였다. 이제 또다시 그때와 같은 폭발사고를 야기시킨다면 진규자신은 물론 직장장인 종빈이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주고받는 말을 듣고 보니 그 기술자료가 도리어 진규의 굴뚝같은 주대를 더 튼튼히 보강해주고 윤희와의 사랑을 촉진시켜준 촉매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종빈은 냇나간 사람마냥 넓은 잎정향나무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러거나 말거나 시내물소리 같은 윤희와 진규의 다정한 목소리는 그대로 도란도란 들려왔다.

《수옥선생은 내가 논문을 제출하자 이번에는 어떻게 하나 변론만이라도 하라는 거요. 허…》

《이제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요. 참- 국가변론날자가 언제예요. 저도 가보고 싶군요.》

《윤희, 마음놓으라구. 그 졸업논문이 새 생활의 〈리정표〉 앞에 서있는 우리들의 튼튼한 주춧돌이 되도록 내 꼭 성공하겠소.》

(말이 반찬 같으면 상다리가 부러진다니, 언제는 성공 못한다고 했나. 저 사람이야말로 민호가 그런 다리가 열개짜리 문어 같다니깐. 자기만의 욕심에 형식을 채색한다고 실천을 담보하는 논문이 되는 건 아니지.)

종빈은 저도 모르게 그들 가까이로 한발 다가섰다.

진규가 작년에도 마음놓지 못해하는 직장장앞에서 《걱정마십시오. 성공할 겁니다.》 했었는데 올해엔 또 윤희앞에서 그 무슨 리성표요, 주춧돌이요 하면서 장담하고 있으니 종빈이로서는 가만 있을 수가 없었다.

윤희가 혹시 진규의 그런 미사려구에 반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종빈은 마음 내키는대로 그 무슨 말인가를 하려다가 진규의 목소리가 귀속을 간지럽히는 바람에 입을 열지 못하였다.

《윤희동무, 이제 어차피 직장장동지도 알게 되었는데 그럴바하고는 오늘저녁에 직장장동지를 찾아가 모든 사연을 다 이야기하는 게 어떻소?》

《그러다 혹시 순풍에 돛단배가 파도를 만난 것 같이 되지 않을까요. 시험로가 성공하기 전에는 그만 두자요. 전 이젠 직장장동지가…》

종빈은 갑자기 든한 물체에 뒤더수기를 얻어맞는 것 같이 뻥해졌다. 귀가 웅하여 윤희의 그 다음 말들을 가려 들 수가 없었다. 그렇게도 믿어의심치 않던 윤희의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다니.

종빈은 손을 땅에 짚고 꺼꾸로 서있는 것 같은 느낌까지 들었다.

《윤희동무, 가스로가 성공하여 생산에 도입되면

제일 기뻐할 사람이 직장장동지란말이요. 그러니] 우리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들으면 직장장동지도 리해해줄거요.》

(내가 리해해줄거라구.)

종빈은 그게 정말 진규가 한 말이 옳은지 의심스러웠다.

《윤희동무, 우리 이렇게 하자구. 동문 이 길로 수옥선생을 만나오. 직장장동진 내가 만나겠소.》

《좋아요. 그렇게 하자요.》

《윤희... 오늘은 논문을 제출해서인지 마음이 이상하구만. 동무가 나때문에 밤잠도 제대로 못자고 이 손까지 텐걸 생각하면 정말이지...》

《아이, 새삼스레 그런 말은 왜 해요. 이젠 그만 가자요. 수옥선생이 강의에 들어가기전에 빨리 가서 만나야겠어요.》

《오늘밤 최종시험에 직장장동지도 함께 나왔으면 좋겠는데... 하여간 시험료현장에서 다시 만나지요.》

종빈은 그들이 주고받는 말소리를 들을수록 성냥가치로 귀구멍을 마구 쭈서놓는것만 같아 마음을 종잡을수가 없었다. 생각같아서는 선자리에서 그들을 만나고싶었지만 회의시간때문에 울대빼만 꿈틀거렸다.

그는 참모회의에 참가해서도 문득문득 진규와 윤희가 주고받던 말들이 떠올라 정신을 집중하지 못했다.

진규도 진규려니와 옆에서 부채질하는 윤희가 더 못마땅해났다. 버린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자기가 책임지고 남달리 돋우보이는 좋은 자리에 시집까지 보내주자고 했던 윤희가 《직장장은 안녕히...》하는 식으로 돌아앉아 순풍에 돛단 배가 어쩔소 저쩔소 하고있으니 그게 어디 될변이나 한 소리인가말이다.

종빈이가 참모회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것은 고성기에서 저녁 일곱시를 알릴 때였다. 그는 밥상우에 네귀를 접어놓은 편지를 보고서야 안해가 출장을 떠난다고 일찍 들어와달라던 말이 떠올랐다. 편지를 들여다보던 종빈의 너부죽한 얼굴은 점차 이지러지기 시작했다.

《...여보 난 오늘 진규동무의 논문을 보면서 나 자신과 당신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허어, 이 사람이 크게 감화되었군.)

종빈은 입속말로 중얼거리며 편지에서 눈길을 떼지 않았다.

《나는 논문의 갈피갈피마다에서 진규동무가 심사숙고한 흔적들을 읽을수록 작년 졸업식날밤에 그가 우리 집에 찾아와서 하던 말들을 되새겨보게 되더군요.》

(그가 무슨 말을 했더라...)

종빈은 기억을 더듬어보았다.

지난해 졸업식날 밤이었다.

진규는 졸업축하모임에 참가하지 않고 종빈이와 수옥이를 찾아왔었다.

그의 어깨는 퍼그나 처져있었다.

《진규동무, 인간의 욕망과 복잡한 과학기술의 차이점이란 바로 그런걸세.》

동정어린 종빈의 어조는 교훈을 찾으라는 암시가 깃들어있었다.

《직장장동지, 사람마다 자기가 귀중히 여기는 지향이 있지 않습니까...》

진규는 잠시 말을 끊고 그 무엇인가를 절절히 호소하는 눈빛으로 직장장과 수옥이를 바라보았다.

《직장장동지, 저라고 왜 남들처럼 기사자격증을 받아안고 동무들의 축하를 받고싶지 않겠습니까. 오늘저녁 축하모임에 나도 참가하고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천을 담보하지 못한 리론을 어떻게 논문이라고 내놓을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공백을 매우 기전에는 그 어떤 자격증도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을 기만하면서까지 명예를 얻을 생각은 없다는것이였다.

안해의 편지에는 그때 진규가 남긴 말들이 적혀있었다.

편지속에 이끌려든 종빈은 도글도글한 필적율이 그대로 안해의 말소리로 들리는것만 같아 바짝 신경을 가다듬고있었다.

《솔직히 말해서 난 오전에 진규동무를 만나서 당신에게 전화걸 때까지만 해도 진규와 윤희의 관계를 〈암모니아〉 정도밖에 보지 않았어요. 그건 모르시기 윤희와 진규를 대하는 당신의 시점에서 보았기때문일거예요. 그런데 저녁켄에 진규동무의 논문을 다시한번 음미해보고있는데 윤희가 나를 찾아왔더군요. 윤희가 나한테 무엇을 물었는지 아세요.》

(선생님은 어떻게 되어 직장장동지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 물음앞에서 나는 그저 웃기만 하였어요. 그랬더니 윤희가 정색해서 또 물겠지요.

(선생님은 진규동무가 적지 않은 사람들의 비난과 배척을 받으면서도 그 논문을 왜 끝까지 주장하는지 생각해본일이 있어요?)

나는 자신도 모르게 굳어졌어요. 전기에 잠전된 사람처럼...》

종빈은 갑자기 그 누가 뒤더수기를 끌어당기기도 한듯 머리를 뒤로 젖히고는 멀거니 천정만을 바라보고있었다. 왜서인지 글줄들이 살아움직이는것 같아 더는 읽을수 없었다.

그는 한참만에 다시 편지에 눈을 주었다.

그러나 눈앞에 안겨오는것은 대답을 기다리는 윤희의 담담한 모습이었다.

종빈은 눈시울을 비비적거리고서야 읽기를 계속

했다.

《윤희는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선생님, 진규동무한테는 전기공학이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전기선을 나라의 혈액으로 감수하고 있는 그는 전기로를 가스로로 전환시키는것은 단순히 기사자격증을 받기 위한 논문으로 작성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는 졸업론문을 조국에 바치는 자기의 첫열매로 보고있었기에 누가 뭐라고 하던 그 창조물을 성공시키려고 시험로에서 가스에 질식되어 의식을 잃는 순간까지도 자기 한몸을 아끼지 않았어요.〉

여보, 당신은 언제인가 진규동무가 독감에 걸려 출근 못한다고 말한적이 있었지요. 사실은 그때 그가 독감에 걸린것이 아니라 가스에 질식되어 의식을 잃었기때문이었다는것을 나는 오늘에야 알았어요. 그런데도 우린 병문안조차 못했으니…》

일순간 종빈의 살눈섭은 경련이 인듯 떨고있었다.

방안은 고요했다. 그러나 종빈의 귀속에서는 열병을 앓을 때처럼 웅- 소리가 났다. 그는 편지에 박은 시선에 초점을 잃지 않으려고 불밝은 형광등 밑으로 바짝 다가섰다.

《나의 손을 꼭 잡고있던 윤희는 눈물을 머금으며 가슴속에 간직하고있던 말들을 털어놓았어요.

〈선생님, 제가 진규동무를 사랑하게 된것은 바로 그의 아름다운 지향과 숭고한 정신을 보았기때문이었어요.〉

여보, 것처럼 고귀한 녀를 간직하고있는 윤희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할수 있겠어요…》

종빈은 마치나 깊은 명상에 잠긴 사람마냥 눈을 꼭 감았다. 그러나 그의 혈색종던 얼굴에는 피기가 없었다. 어찌보면 혼미상태에 빠진 사람 같았다.

그는 시간이 퍼그나 흘러서야 밖으로 나왔다. 했어도 자기가 안해의 편지를 마지막까지 다 읽었는지, 밖에는 무엇하러 나왔는지조차 알지 못하였다. 다만 귀전에 들려오는것은 편지에 남긴 안해의 절절한 말소리뿐이었다.

《여보, 나는 진규의 논문과 윤희의 티없이 맑은 눈빛앞에서 자신의 지난날들을 돌이켜보지 않을수 없었어요.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순간에도 나의 눈앞에는 적지 않은 대학졸업생들한테서 졸업론문을 받을 때마다 그것을 하나의 시험치처럼 기사자격을 줄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점수나 채점하고 자물쇠가 달린 서류함에 문건으로 쌓아둔 갖가지 논문들이 떠오르는군요. 서류함속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논문들…

당신이 대학을 졸업하는 진규동무에게서 바란것이 무엇이였어요? 어떤 논문을 기대했나요? 나는 자책으로 하여 머리를 들수가 없었어요.

그리고보니 몇년전에 우리가 전기로를 개조하려다가 실패하고 포기한 원인도 바로 우리들의 정신적인 차원에 있었다고 생각되더군요. 민호 아버

지… !》

안해는 왜서인지 편지의 마지막구절에서 《민호 아버지》라고 쓰고있었다.

《민호 아버지, 제가 부탁하고싶은것은 진규동무가 오늘밤에 최종시험을 한다는데 피곤하시더라도 꼭 시험로에 나가봐주세요. 당신이 시험로에 나가주기를 바라는 저의 심정을 이해하리라 믿어요.

진규와 윤희가 당신을 기다리고있을거예요. 그들의 아름다운 지향, 숭고한 정신속에서 태어난 졸업론문이 현실적으로 빛을 내게 될 최종시험에 당신과 함께 참가하지 못하는것이 유감이군요…식장안에 당신이 즐겨하는 문어회가 있어요.》

종빈은 기계의 동음이 우람찬 공장구내길에 들어서서야 향방없이 걷고있는 자신을 발견하였다. 가슴속에는 이름할수 없는 흥분과 원인모를 불안이 기슭을 치는 파도마냥 고래치고있었다.

(내가 왜 여기 왔나?)

종빈은 새삼스레 이런 생각이 떠오르자 못사람들의 존경과 찬사속에서 토론준비를 하던 자신이 돌이켜졌다.

원료자재도 예비부속품도 로력조직도 빈틈없이 파고든 생산조직, 복잡하고 번잡한 일 없이 매달 계획을 무난히 수행한 촉매직장, 그래서 순풍에 돛단배와 같다고들 했다. 그런데 자기는 무엇하러 선원들을 다 잊어버린 선장이 조난당한 배에 홀로 남아있듯이 불안한 밤길을 걷고있는것인가.

종빈의 눈앞에는 갑자기 어둠속의 등대마냥 불빛 밝은 시험로가 우뚝이 떠올랐다. 환각이 아니라 현실이었다.

(저 사람은 왜 가야 할 길을 못갔는가.)

종빈은 편지를 써놓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시험로결에 와있는 안해의 심중을 헤아려보지 않을수 없었다.

《나오셨군요. 》

믿음과 기대 어린 수옥의 다감한 눈빛은 파르르 떠는가싶더니 그 누가 불세라 시험로쪽으로 돌려졌다.

정황에 따라 자신을 처신할줄 아는 종빈이었지만 지금은 형언할수 없는 감정에 휩싸여있었다.

매마침 시험로앞에서 수첩갈피에 로내온도를 기록하고있던 윤희가 직장장한테로 달려왔다.

《직장장동지, 저 새로 민든 바나에서 내여뵈는 불길을 보세요. 로내온도가…》

《바나라니 ? 》

윤희가 수첩에 기록한 수자들을 내보이려다가 직장장의 반문에 더 말을 못했다. 그러자 진규가 거듭되는 시험과정에 심사숙고하여 찾아낸 실패원인과 새로운 방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종빈은 점차 그의 말에 끌려들었다.

《그러니 쇠물이 밀으로 흘러내리기 시작하면서 밀에 깔린 자철속에 스며있던 연소되지 못한 가스

가 폭발을 일으켰단말이지.》

《예, 제가 철촉매 혼합물이 녹기 시작할 림박에 가스공급을 중지하고 질소로 연소되지 못한 가스를 몰아낸 다음 전기를 투입해보았습니다.》

종빈은 전자석에 이끌리듯 자신도 모르게 시험로 앞으로 다가갔다.

불에 타지 않는 질소로 연소되지 못한 가스를 몰아낸다는것은 옳았다.

(진규가 의식을 잃으면서도 한몫 아끼지 않고 찾아낸 원인과 방도...)

진리란 알고보면 단순하지만 그것을 찾기까지는 험난한 가시덤불길에서 한생을 바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지금 진규가 찾았다는 그것만으로는 가스로 성공을 담보할수는 없었다. 가스공급을 중지하고 질소를 몰아넣으면 잠시나마 로내온도가 낮아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촉매의 질이 낮아질것이었다.

《직장장동지, 우린 그런 약점을 극복해보려고 바나를 이렇게 개조해보았습니다.》

진규가 새롭게 만든 바나도면을 직장장에게 내보이었다.

종빈은 더는 할 말을 찾지 못했다.

자기를 지켜보는 안해의 눈빛에서 진규의 논문이 실천적으로 담보되고있음을 충분히 읽을수 있었다.

《직장장동지, 솔직히 말해서 우린 저 바나를 직장장동지가 우리한테 참고해보라고 준 기술자료에서 착상을 받았습니다.》

종빈은 불시에 가슴속에서 쨍- 용암이 터져오르는것만 같았다.

진규의 말은 가식이 아니었다. 직장장을 바라보는 그의 눈은 진심으로 고마와하는 빛이 어려있었다.

종빈은 그를 마주볼수가 없어서 작업대쪽으로 눈길을 돌리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은 보지 못할것을 본 사람같이 떨리었다.

이외에도 작업대우에는 문어모조품이 놓여있었다.

(저것이 왜 여게 와 있나?... 그러니 저걸 만든것도 진규였단말인가!)

그것을 바라보는 종빈의 눈앞에는 문득 문어다리를 열개로 그려놓은 민호의 그림이 떠올랐다.

시험로불빛에 눈알을 번뜩이는 문어모조품은 마치나 종빈의 속마음을 투시경처럼 꿰뚫어보고 있는것같았다.

(결국은 내가 형식만을 갖춘 내용이 없는 인간이었단말인가.

진규의 졸업논문, 실로 그것은 한생을 빛나게 살려는 그의 고귀한 첫 창조물이 아닌가!

세상에는 남들이 걸어간 길을 고스란히 따라가는 기사들이 적지 않게 있다. 하긴 그들도 기술자라고 한다. 바로 진규가 참고해보았다는 그 퇴색한 기술

자료가 그것을 시사해주고있지 않는가.

진규와 윤희, 그리고 모든 종업원들, 그들의 어깨 위에 떠받들려 순풍에 돛단 배와 같이 자신의 명어를 빛내이면서도 그들을 모르고 살아온 나였구나.)

종빈은 비로소 자신의 가슴속에 얼마나 큰 공백이 있었는가를 시험로의 불빛에 비쳐보고있었다.

《직장장동지 ! 보십시오. 자철이 녹습니다 !》

진규가 환희에 넘쳐 직장장을 불렀다.

《진규 !》

종빈은 불시에 목이 꼭 잠겨 더 말을 못하고 진규의 손을 부여잡았다.

때를 같이하여 굳어진듯 서있던 윤희의 입에서 울먹임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러니 논문은 실천을 담보하는 완벽한것으로 성공되었군요.》

그리고는 더는 그대로 서 있을수 없어 수옥의 가슴우에 얼굴을 묻고말았다.

수옥은 눈곱에 이슬을 머금은채 윤희의 어깨만을 쓰다듬고있었다.

그들을 바라보는 종빈의 눈에도 어느결에 핑- 맑은 이슬이 고여올랐다.

(옳다, 모든 종업원들앞에서 토론하자. 순풍에 돛단 배가 되지 말고 격랑을 헤치는 함선이 되어야 함을 !)

그들이 시험작업을 끝낸것은 이른 해돋이가 시작될무렵이었다.

수옥은 새벽차로 도에 올라가야 했다.

촉매생산현장을 나선 그들은 비료폭포가 한눈에 안겨오는 비료하조장옆을 지나다가 종빈이가 무춤 발걸음을 멈추는바람에 수옥이도 멈춰섰다.

진규와 윤희는 무슨 이야기를 그리도 다정스레 하는지 한발 앞서 그대로 걸어가고있었다.

종빈은 금강산의 비룡폭포처럼 쏟아져내리는 비료폭포를 그윽히 바라보다가 조용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이제부터 우리 직장에서 전력소비기준을 50프로만 더 낮추어도 저 비료폭포는 더 많이 더 즐기치게 쏟아질거요.》

수옥이도 사색에 잠긴듯 끝없이 솟아오르는 비료산을 바라보고있었다.

《우리 대학 모든 졸업생들의 논문들이 서류함속에서가 아니라 진규동무의 논문처럼 현실속에서 빛을 낸다면 우리 인민경제는 그만큼 더 빠른 속도로 전진할거예요.》

그들 부부의 시선은 약속이나 한듯 마주섰다가 앞서가고있는 진규와 윤희에게 가서 멎었다.

그들은 이른 해돋이의 찬란한 빛살을 온몸에 받으며 공장구내로 혈맥처럼 뻗어간 전기선들을 바라보고있었다.

장편소설 《모란봉》의 형상세계

강 진

장편소설 《모란봉》(김원종작)은 준엄했던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적후에서 수많은 뼈라들을 찍어내며 원쑤놈들의 침략책동을 걸음마다 분쇄한 평양인쇄부문노동자들의 지하투쟁을 통하여 혁명의 수도 평양을 영웅적으로 지켜 싸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있다.

이 작품에는 적강점시기 각계각층인민들의 다양한 적후투쟁이 반영되어있으며 그 중심에는 《로동신문》 인쇄공장의 나 어린 처녀문선공 서경림을 비롯한 《모란봉근위대》 성원들이 서있다.

그 이름도 뜻깊은 모란봉근위대!

언제나 어버이수령님을 몸가까이에 모시고 무상의 행복을 누려온 궁지와 자부심을 안고있는 이들 근위대원들에게 있어서 모란봉이란 단순한 유원지나 명승지의 이름으로만 생각되지 않았다. 그 기술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력사적인 개선연설을 받아안았고 그 길설마다에 인민의 유원지를 만들어 주신 은혜로운 어버이사랑이 깃들어있거니 모란봉! -그것은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흠모에 기초한 숭고한 애국주의적사상감정을 말해주는 대명사이기도 하였으며 청춘과 생명을 다바쳐 평양을 지켜내려는 불굴의 투쟁정신의 상징이기도 하였다.

하기에 작가는 《모란봉》을 원쑤놈들을 전멸케한 근위대의 명칭으로 삼았고 평양이 낳은 재능있는 작곡가가 지은 관현악과 합창 《모란봉의 노래》를 정서적바탕으로 하여 작품의 주제사상을 감성적으로 시화하고 관통시키려 하였다.

작가의 이러한 창작의도는 일정한 형상적열매를 거두었다고 생각한다.

이 작품은 우선 중심인물들의 각이한 성격형상을 통하여 원쑤놈들이 강점하고있는 엄혹한 정황속에서 어떻게 제나라 제고향을 사랑하며 지켜낼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있다. 작품은 이것을 그 어떤 일반적인 조국애나 《향토애》에 머물지 않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꽃피워온 새 제도, 새생활의 중심지인 혁명의 수도, 평양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승화시켜 혁명적수령관에 기초하여 밝히려는것이 좋았다.

작품에서 서경림과 근위대책임자인 김영세, 그리고 전홍지와 그의 아버지 전세덕 등은 모두다 해방후 장군님의 조국개선을 맞이한 그날로부터 새 조국 새생활의 참된 주인으로 되였기에 그날의 감격을 영원히 잊지 않고 것처럼 엄혹한 시기에도 불굴

의 투쟁정신으로 싸워나가는 평양의 아들딸로 형상되고있다.

특히 주인공 서경림은 해방후 처음으로 맞이한 5.1절에 오매에도 그리던 장군님께서 뜻밖에 자기네 일터를 찾아주시고 친부모도 주지 못할 육친적인 사랑을 베풀어주신 그날의 은덕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자나깨나 어버이수령님을 흠모하며 억세게 싸워나가는 인물로 강조되고있다. 또한 백두산에서 싸우실 때에도 모란봉을 잊은적이 없다고 하시며 을밀대앞에서 사진까지 찍어주신 장군님의 은덕을 생각하면서 기총소사로 다 깨어진 부벽루기와장도 고이 간직하고있는 유원지관리원 《부벽루령감》의 형상 또한 매우 인상적이다.

이처럼 작품은 주요인물들의 절절한 생활체험에 기초하여 장군님에 대한 흠모선을 일관시키고, 그들의 지하투쟁자체를 장군님의 10월 11일방송연설과 최고사령부의 보도를 제때에 선전하는것으로 관통시킴으로써 어버이수령님과 당에 대한 충성심을 자연스러운 생활의 흐름속에 형상하려고 한것이 좋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변절자 림수찬의 형상을 통하여서는 우리 세상에 대한 신념이 없으면 《전쟁상황》에 대한 적들의 기만선전에 이내 넘어갈수 있고 개인의 안락만 생각하면서 리기적인 사랑을 추구할 때에는 배신의 길로 굴러떨어진다는것도 잘 보여주고있다. 뿐만아니라 간고한 투쟁과정에 더욱 공고화 되어가는 서경림-박형진간의 참된 사랑선과 변절한 림수찬이 전홍지에게 강요하는 배신적인 사랑선을 대조적으로 형상함으로써 혁명적인 애정윤리 문제도 제기하고있으며 혁명동지에 대한 믿음과 배신에 대한 생활철학도 일정하게 밝히려고 하였다.

작품은 또한 주인공 서경림일가와 그의 짝패인 정홍지네 일가, 작곡가 황명근일가를 중심으로 한 인간관계를 면밀히 조직하고 지하인쇄소의 투쟁을 주선으로 한 사건체계를 비교적 흥미있게 끌어가고 있으며 재치있는 생활세부들로 인상깊은 형상화 폭들도 적지 않게 그려내고있다.

레컨대 근위대의 첫투쟁으로 조직된 31극장뼈라 살포투쟁을 통해서 주인공 경림과 홍지의 예지와 대담성을 흥미있게 보여주고있다면 파출소에 단속된 황정근을 구출하는 주인공의 단독공작과 고노 끝지하인쇄소를 결사적으로 지켜내는 마감투쟁을 통해서 주인공 경림의 기지와 용감성, 고귀한 자

기회생성 등을 잘 보여주고있다.이밖에 작품에서는 경림과 홍지의 성격을 형상적으로 대조시키고있는 것이라든지, 《모란봉의 노래》와 작곡가의 갯난애기선을 중요한 형상계기들에서 인상적으로 부각하고있는것이라든지 긍정적인 시도들이 적지 않다.

장편소설 《모란봉》은 이와 같이 그 주제사상적 지향성도 나무랄데 없고 인간관계도 사건체계도 비교적 면밀하게 조직되어있으며 형상에서도 재치있는 대목들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독자들의 흥미를 끌지 못하고 열렬한 공감과 예술적 감흥을 안겨주지 못하고있는것인가?!

여기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중요하게 그것은 작품의 생활소재자체에 내포되고있는 정치사상적내용에 비하여 작품의 형상세계가 저조하기때문이며 그것은 또한 생활에 대한 작가의 사상미학적안목과 관련되어있다.

우리는 여기서 생활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느끼며 어떻게 그리는가 하는 작가의 립장이 작품의 형상세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다시한번 깊이 생각하게 된다.

×

생활에 대한 작가의 사상미학적관점과 작품의 형상세계는 불가분리의 관계를 가지고있다. 생활에 대한 작가의 사상미학적관점은 우선 창작된 작품의 정치사상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게 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품의 정치성을 높이려면 창작가들이 확고한 정치적립장에 서서 생활을 깊이있고 진실하게 그려야 합니다. 창작가들은 생활의 세부를 그려도 그 사상적본질과 정치적이의를 깊이있게 밝혀내야 하며 인간을 그려도 그들의 정치적립장과 신념이 똑똑히 나타나게 형상하여야 합니다.》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는 창작가들이 확고한 정치적립장을 견지하고 생활을 깊이있게 탐구하며 진실하게 그릴 때만이 작품의 정치사상적품격이 더욱 높아지고 사람들을 진정으로 감동시킬수 있다. 따라서 창작가의 정치적립장은 그의 정치적견해나 계급적립장에서만이 아니라 생활에 대한 사상미학적관점에 이르기까지 투철하게 견지되어야 응당한 은을 낼수 있다.

왜냐하면 시대에 대한 열렬한 공감이 없이는 시대정신을 심오하게 체득할수 없고 시대적전형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없이는 주인공의 높은 정신세계를 생동하게 개방할수 없으며 생활탐구에 대한 불타는 열정이 없이는 생활의 본질을 진실하게 그려

낼수 없기때문이다.

생활에 대한 창작가의 사상미학적관점이 투철할 때만이 하나의 세부, 하나의 사건을 그려도 그 사상적본질과 정치적이의를 깊이있게 밝혀낼수 있으며 한 인간의 성격을 그려도 그들의 정치적 립장과 신념이 똑똑히 나타나게 형상해낼수 있다.

그런데 장편소설 《모란봉》의 작가는 시대와 인간과 생활에 대하여 이처럼 열렬하고 투철한 립장을 견지하지 못하였기때문에 평양을 강점한 미제원쑤놈들을 반대하여 목숨걸고 싸운 우리 인민들의 영웅적인 투쟁을 뜨거운 열정과 애착을 가지고 응당한 시대정신의 높이에서 그려내지 못하였다. 미제원쑤놈들은 비록 평양에 기여들어오기는 했어도 그 어느 한순간도 마음편히 《강점자》의 행세를 할수 없었고 우리 인민들의 영웅적인 항거앞에서 공포에 사로잡혀 전를하다가 도망치지 않을 없었다. 원쑤놈들의 《강점》하에서도 평양은 죽은것이 아니라 인민들의 심장속에 영원히 살아있었으며 우리 인민은 또한 평양과 함께 영웅적기개를 자랑하며 영생하는 삶을 빛내여왔던것이다. 이 슬기로운 투쟁과정에는 그야말로 불굴의 투쟁정신과 혁명적력관주의로 충만된 영웅사시적인 생활화폭들이 펼쳐지고 어버이수령님을 몸가까이에 모시고 살아온 평양사람들의 영광과 행복, 긍지와 자부심이 넘쳐 흘렀다.

작가는 응당 이러한 생활화폭들을 절절한 필치로 생동하게 그려내고 영웅적인 항거자들의 아름답고 숭고한 정신세계를 격조높이 개방하고 찬미함으로써 작품의 정치사상적품격과 예술적품위를 한껏 높여야 할것이였다.

하지만 이 작품에는 원쑤놈들을 반대하여 지하투쟁을 벌려온 이러저러한 사실들은 반영되어있으나 그 사실밑에 즐기치게 관통되어있는 우리 인민들의 영웅적기개와 숭고한 정신세계는 깊이있게 그려내지 못하고있다.

소설의 형상구성체계를 분석해보면 이 작품에는 적들의 반공출판물인쇄책동을 파탄시키면서 지하에서 뼈라를 찍어내고 뿌리는 근위대원들의 투쟁선과 조판교정기며 지하인쇄소의 행처를 알아내기 위한 적들의 책동선이 숨박곡질하듯 얹히면서 계속 반복되고있다. 그 가운데서 체포사건들만 련거해보아도 기능공 손영택과 한우섭의 체포구금 및 고문 총살사건, 립수찬의 체포와 회유석방사건, 배동필 아버지의 체포와 고문, 경림의 남동생 장복의 체포와 김희숙의 체포, 그리고 만식과 룡학의 구금 몇 이들모두의 처참한 감금생활, 김문혁과 전세덕의 체포사건 등등 동질의 사건들이 련이어 꼬리를 물고 거의 같은 수법으로 반복설정되고있다. 뿐만아니라 이 과정에 표현되는 주인공과 근위대원들의

내면세계를 추구함에 있어서도 체포된 사람들이 놈들의 고문에 못이겨 조직의 비밀을 루설하지 않겠는가를 의심하고 위구하는것으로 형상을 유형화함으로써 우리 주인공들의 정신세계를 저속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있다.

또한 놈들의 책동에 대응한 조치로서 근위대원들은 지하인쇄소를 정근이네 집 지하실로부터 옹도아바이네 집 지하실로 옮겼다가 또다시 박형진의 집 지하실로 옮기는 식으로 반복이동하면서 사건의 뒤꼬리를 따라다니도록 형상하고있다.

이렇게 끝없이 이어지고 꾸며지는 사건의 연쇄과정에 이야기줄거리는 엮여지지만 영웅적인 항거자들의 사상정신세계는 그속에 파묻히고말기때문에 독자들에게 응당한 공감도 기대도 흥미도 안겨주지 못할것은 자명한 일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밝혀주신바와 같이 예술에서 느끼게 되는 감흥은 주인공에 대한 깊은 공감과 사건발전에 대한 기대, 새롭고 의의있는 생활을 보는 흥미가 하나로 결합될 때에 생기는것이다.

다시말하여 정서적공감과 사건적기대, 생활적흥미 등 감흥조성의 세가지 요인들이 주인공의 사상정신세계에 대한 열렬한 공감에 기초하여 하나로 결합되어야만 커다란 예술적감동을 자아내게 된다.

그것은 사건적기대도 생활적흥미도 모두다 인간내면세계에 대한 열렬한 공감에 기초하였을 때만이 참다운 예술적감흥으로 승화될수 있기때문이다.

장편소설에서도 예술적감흥은 결코 사건을 묘하게 꾸며내거나 그 사건의 연쇄고리들을 찾아서 잔재간으로 줄거리를 그럴듯하게 엮어내는데서 발현되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건과 사실속에 내재하는 생활의 본질을 시대정신의 높이에서 찾아내고 그것을 인간성격의 발전력사로, 인간의 운명선이 뻗어나가는 생활의 력사로 펼쳐나갈때에 비로소 생겨나는것이다.

물론 문학작품에서 성격과 사건은 불가분리의 관계를 가지고있는것만큼 사건의 진행과정을 통해서도 인간들의 내면세계를 어느 정도 개방할수는 있다. 그러나 사건은 어디까지나 인간들의 사상의식이 변화발전하는 과정에 이루어지는 성격들의 호상작용에 의하여 발생하고 발전하는것이기때문에 그 기본동인으로 되는 인간성격의 발전과정을 선차적으로 깊이있게 탐구하여야 한다. 바로 이것이 생활을 어떻게 보고 그리는가 하는 작가의 근본립장에서 중요한 다른 한 측면을 이룬다. 그것은 생활을 탐구함에 있어서 사건을 위주로 추구하느냐 성격을 위주로 추구하느냐 하는 문제가 작품의 형상세계를 높이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기때문이다.

장편소설 《모란봉》에서 작가는 사건진행과정의 연쇄고리를 찾고 그 아귀를 채치있게 맞추어보

려고 고심하던 나머지 인간성격과 그의 박면세계를 홀시하는 형상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소설에서는 우리 근위대원들이 적들의 간악한 책동을 걸음마다 분쇄하는 투쟁이야기도 있고 의의있는 생활도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건발전에 대한 기대도 준엄한 생활을 보게 되는 흥미도 촉발시키지 못하고있다.

레컨대 적들의 삼엄한 감시와 수색망을 뚫고 수많은 뼈라를 찍어내고 뿌리는 투쟁을 벌리면서 놈들의 반공뼈라에 오작사고를 내거나 반공출판물들을 불태워버리는 투쟁을 벌리고있지만 그것을 매우 실무적인 과정으로 반복서술하고있을뿐 그 과정에 발현되는 사람들의 정신세계는 섬세하게 그려내지 못하고있다.

원쑤놈들한테 귀중한 조판교정기를 수색당한 다음에 적들의 감시하에 있는 소형조판교정기를 리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긴박한 정황이 조성되었을 때에도 주인공 경림과 홍지의 안타까운 모대김을 섬세하게 그려내지 않고 홍지의 즉흥적인 발기로 그것을 너무나도 쉽게 빼내는것으로 실무적인 처리를 해버렸기때문에 아무런 공감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있다.

더우기 근위대책임자 영세가 말달구지를 뚱다물아 추격하는 적들을 유인하다가 장렬한 최후를 마치는 장면에서는 웅당 인간의 가장 숭고한 내면세계를 격동적으로 개방해야 할것이였으나 그 유인사건의 전말을 결속짓는데 관심을 집중한 결과로 영세의 고귀한 희생정신도 그 비보를 받아안은 주인공의 체험세계도 절절하게 그려내지 못하고있다.

참으로 이런 장면이야말로 조국의 심장인 평양을 지켜싸운 영웅전사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격조높이 찬미하고 그 성격이 체현하고있는 심오한 사상적본질과 철석같은 신념을 의의있게 밝혀낼수 있는 대목임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사건적으로 처리되고말았다.

이밖에 미군사령부폭파사건과 같은 의의있는 투쟁선도 마치 장복이의 탈출기회를 조성하는데 복종되고있는듯한 인상을 주도록 매우 실무적으로 처리하고있으며 그 사건경위를 후일담식으로 설명하는데 그치고 그 과정에 발현된 근위대원들의 높은 정신세계는 그려내지 못하고있다.

작가는 소설에서 이처럼 과다할 정도로 많은 사건들을 다루면서도 엄혹한 적후정황에서 승리의 신심을 안고 결사전을 벌리고있는 근위대원들의 영웅적인 성격을 감명깊게 형상하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원쑤놈들의 음모,책동과 학살만행이 상대적으로 부각되게 하고있다.

그것은 작품에서 이러저러한 투쟁선들이 설정되고있지만 인상에 오래 남을 감동적인 형상화폭은

부족하고 원썬놈들이 체포구금하고 고문학살하며 회유기만하는 책동선이 더 두드러지게 그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간고한 투쟁과정에서 발현되는 근위대원들의 정신세계를 개방한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로 파거생활에 대한 회고담을 거의 동일한 수법으로 반복하고있는것이기때문에 응당한 공감을 안겨줄수 없었다. 심지어 홍지와 림수찬의 파거생활을 회고하는 장면은 무려 17페이지에 걸쳐 서술되고있음으로 하여 지루하고 따분한 감을 더해주고있으며 《모란봉의 노래》에 대한 회고 역시 절제없이 반복서술되고있는 까닭에 예술적감흥을 손상시키고있다.

특히 조국을 배반하고 원수들앞에 무릎을 꿇고라도 더러운 목숨만을 유지해나가고있는 림수찬에 대한 마감처리를 잘하지 못함으로써 독자들의 불만을 야기시키고있다. 그놈은 사랑만을 배반한것이 아니라 원썬놈들의 지시대로 약혼자의 아버지를 미행하고 지하인쇄소의 위치를 밀고하며 미군첩보장교의 《통행증》을 자랑스레 내대며 홍지에게 남으로 함께 도망갈것을 강요하는 인간추물로 굴러떨어지고만다. 하기에 홍지는 그놈의 뺨을 후려갈기고 면상에 침을 뱉으며 반역자라고 준절히 규탄한다. 그러나 반역자 림수찬의 운명처리를 어찌 약혼자의 규탄만으로 그칠수 있겠는가, 독자들은 그와 결산할것이 너무도 많기때문에 결코 그것만으로 만족할수 없다. 소설의 주인공 서경림을 비롯한 근위대원들도 반역자의 밀로를 독자들의 상상이나 작품의 여운처리로 내맡길수 없을것이다.

그놈은 응당 주인공과의 형상적대결속에서 보다 준엄한 징벌을 받도록 처리되어야 작품의 형상세계가 더 높아질것이다. 그러나 작가는 이러한것을 놓치고 작품의 마감을 대동강변에서의 대학살만행장으로 결속지으면서 주인공들의 그후의 운명처리를 간단히 덧붙이고있을뿐이다. 그 결과로 패주하는 원썬놈들에 대한 통쾌한 복수나 징벌보다도 인민들에 대한 대규모적인 학살만행이 더욱 인상에 남도록 작품이 끝맺어지고있다.

이와 같이 장편소설 《모란봉》은 적강점시기의 준엄한 정황속에서 원썬들을 반대하여 영웅적으로 싸운 평양의 아들딸들이 발휘한 숭고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불굴의 투쟁정신을 깊이있게 탐구하지 못하고 원썬놈들의 발악적인 책동에 의하여 야기되는 사건들을 추구하는데 보다 많은 관심을 돌림으로써 강점자들을 반대하여 싸운 사람들의 지하투쟁이 가지는 정치사상적의의를 근위대원들의 영웅적 성격을 통하여 감명깊게 밝혀내지 못하였다.

×

장편소설 《모란봉》이 독자들속에서 응당한 감

흥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있는 다른 하나의 주인공은 주인공 서경림을 형상구성체계의 중심에 확고히 세워놓고 그의 사상의식발전과정을 줄기차게 그려내지 못한데 있다.

작품에서 주인공을 어떤 위치에 세워놓고 어떻게 그리는가 하는 문제 역시 생활을 묘사하는데서 작가가 견지해야 할 근본립장의 한측면으로 된다. 그것은 작가의 사상미학적리상과 작품의 주제사상이 주인공의 성격장성과정을 통하여 구현되기때문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구성에서 주인공은 여러 인물들을 련결시키고 끌고나가는데서 언제나 중심에 서있어야 한다. 인물관계가 명백하고 탄력성있게 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주인공선을 어떻게 살리는가에 달려 있다.》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 장편소설창작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매개인물형상의 묘이 뚜렷하게 인물배치를 잘하면서도 주인공의 선을 일관성있게 살려내는것이다. 그것은 작품의 종자를 직접 체현해나가는 기본인물도 주인공이며 여 러인물들의 다양한 호상관계를 하나의 뚜렷한 형상체계속에 구성해나가는 중심인물도 주인공이라는 사정과 관련된다.

주인공선을 명백하게 살려내자면 작품의 기본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주인공이 주동적인 역할을 놀게 하며 그가 움직이는데 따라 다른 인물들이 움직이게 하여야 한다. 주인공선을 잘 살리기 위해서는 또 한 주인공의 위치와 역할 문제뿐만아니라 그의 성격발전과정을 줄기차게 그려내야 하며 그의 체험세계를 깊이있게 개방하여야 한다. 그래야 작품의 견인력도 생기고 주인공의 매혹적인 성격형상을 통하여 작품의 주제사상도 더 감명깊게 밝혀 낼수 있다.

그러나 장편소설 《모란봉》의 녀주인공 서경림의 형상에서는 근위대책임자로서의 역할도, 영웅적인 성격특질도 뚜렷하지 못하며, 새세대로서의 다정다감하고 량만적인 성격특질도, 신념의 세계도 잘 안겨오지 않으며, 그의 사상의식이 변화발전하는 과정도 깊이있게 그려내지 못하고있다. 이것은 이 작품의 치명적인 약점의 하나라고 말하지 않을수 없다.

물론 이 소설에도 주인공의 사상의식이 발전하는 과정이 제시되어있고 그 발전의 중요계기들에서 그의 체험세계를 탐구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없지 않다.

작품에서 경림은 처음에 중상당한 영세를 두고 동평양의 반토굴안에서 어찌할바를 몰라서 캄캄한 밤하늘만 내다보며 오직 그를 살려야 하겠다는것밖에는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고있는 애어린 처녀로

그러지고있다. 그러다가 영세가 지하조직선을 찾고 위대한 장군님의 10월 11일방송연설이 실린 신문 을 가져온 다음 투쟁의 첫걸음을 내어딛게 되며, 지하인쇄소를 꾸리기 위한 힘겨운 준비과정을 걸쳐 《모란봉근위대》가 무어지고 그 성원으로서 투쟁의 한복판에 나서게 된다.

그는 우여곡절에 찬 투쟁과정을 따라 점차 성장하여 영세가 장렬하게 희생된 다음에는 근위대책임자로서 지하인쇄소를 운영해나가며 아지트가 위협에 처했을 때에는 목숨걸고 그것을 지켜내는 투사로 발전하게 된다. 이처럼 주인공 경림의 성격발전 단계들은 일정하게 설정되어있고 그 단계들에서 사상의식의 변화발전과정을 펼쳐보일수 있는 생활바탕들도 어느 정도 주어져있다. 그렇다면 작가는 웅당 그 계기들과 생활바탕들을 심화시켜 나가면서 주인공의 사상의식발전과정을 줄기차게 탐구하는데 모든 형상요소들을 집중시켜나가야 할것이였다. 허지민 작가는 날을 따라 로골화되는 원쑤놈들의 발악적책동으로 야기되는 사건전말에 보다 더 관심을 돌리면서 사건발전과정에 주인공의 사상의식발전도 밝혀지도록 형상할것을 의도한것 같다.이것은 그야말로 주관적인 의도로 되교말았다. 더우기 주인공을 형상구성체계의 중심에 확고히 세워놓지도 않고 그러한 의도를 형상으로 실현한다는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 소설에서는 주인공 서경림의 형상적위치부터 똑똑히 잡지 못함으로써 그의 짝배인 전홍지의 성격이 더욱 두드러지게 형상되고 있다,

우선 이 작품에서는 중요한 생활과 사건들이 전홍지네 집 덕흥인쇄소를 중심으로 벌어지고있으며 중요한 갈등대상인물인 피뢰록군본부의 정훈장교 장병욱도 그의 친척오빠이고, 변절자 림수찬 또한 그의 사랑하는 약혼자이다.

그리고 작품의 중요한 정서적바탕을 이루고있는 《모란봉의 노래》도 홍지의 지나온 생활과 혈연적인 련관을 가지고있으며 작곡가 황명근과 그의 처 김희숙 또한 홍지와 의 연고관계가 더 깊고 그들의 갓난애기 역시 홍지가 넘겨받는것으로 설정 되어있다. 뿐만아니라 모란봉 유원지관리원 《부벽루령감》까지 홍지와 잊지 못할 관계를 맺고있으며 《별공구국회》 두목인 조창범 또한 홍지에게 청혼했다가 거절당한 복수를 하자고 계속 치근덕거리는 인물로 설정되어있다.

이처럼 홍지는 적들과 여러가지 각도에서 밀접한 인간관계를 맺고있는 개인기업자의 딸로서 운명의 갈림길에서 가장 심각한 극성을 체현하고있는 인물로 설정되고있다. 따라서 그의 모든 생활은 극적으로 부각되지 않을수 없고 그의 사상의식이 변화

발전하는 과정도 심각한 극적인 체험세계를 동반하지 않을수 없다.

이와 반면에 주인공 서경림은 중상당한 영세를 간호하고 지하조직선도 찾아다니고 《직공모집》도 하면서 많은 동지들과 관계를 맺고 근위대책임자로서 뼈라투쟁도 조직해나가지만 그의 공작상위치와 그가 수행하는 역할은 다분히 감성화되지 못하고 보다 실무적인 인상을 강하게 주고있을뿐이다. 때문에 그의 사상의식발전과정도 심리정서적으로 심회되지 못하고 개념화되고있음으로 하여 독자들의 열렬한 공감을 받지 못하고있다.

요컨대 주인공이 차지하는 공작상위치나 실무적인 역할만 가지고는 그의 성격발전을 규정할수도 없고 그의 사상의식발전과정도 보여줄수 없다는것이 명백하다. 이로부터 소설에서 주인공선을 부각하기 위해서는 주인공의 위치문제와 함께 성격발전의 중요계기마다에서 그의 극적인 체험세계를 깊이 있게 개방하는 문제가 제기되는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에서는 주인공의 사상의식발전과정을 깊이있게 탐구하고 그의 내면세계를 극적으로 개방하기 위하여 모처럼 설정해놓은 인간관계조차도 내적으로 심화시키지 못함으로써 주인공의 극적인 체험세계를 매우 단조롭게 만드는 결과를 빚어내고있다.

작가는 소설의 마감부분에서 경림이의 생활체험과정을 이렇게 더듬어보고있다.

...영세의 신음소리에 눈알이 막막해지던 그 밤으로부터 불과 40여일이 지났을뿐이다. 그러나 경림에게는 그것이 10년도 넘는 긴긴 세월이었던것처럼 느껴지는것이였다. 말포가 되나마나한 그 기간에 경림은 남들이 일생을 두고도 겪어보지 못할 그런 시련과 고통을 체험했고 생활의 귀중한 교훈을 얻은것만 같았다. 눈물겨운 일은 또한 한두가지였던가...

작가는 이렇게 서술하고있으나 독자들은 이것을 주인공의 극적인 체험세계를 통하여 절절하게 느끼지 못하게 되는것을 몹시 안타까와하고있다.

작가가 이렇게 서술할수 있는 일정한 생활적근거는 있다. 경림이는 이 기간에 사랑하는 오빠가 전사하였다는 비보도 받아안게 되고 적의 군복을 입은 애인 박형진을 보고 번민도 하며 동생이 체포되어가는것도 직접 목격하고 자기를 이끌어주던 영세의 희생도 보게 된다.

그밖에 친척벌되는 《신교리가게집》의 비행도 목격하게 되고 작곡가선생의 집을 찾아갔다가 뜨물벼락도 맞아보며 동지들이 체포되어 총살당하는것도, 친한 동무의 애인이 변절한것도 보게 된다.

그야말로 시련과 고통의 련속적인 체험과정이라 말할수도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비상한 사건들과 극적인 정황을 겪게 되는 경림이의 체험세계가 독자들에게 응답한 공감을 주지 못하고있는것은 무엇때문이었는가?!

그것은 작가가 이러한 사건들과 정황들을 설정만 해놓고 그 파정에 겪게 되는 주인공의 절절한 체험세계를 즐기차게 심화시키고 극적으로 개방시키지 못하였기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주인공을 중심으로 얹혀지고있는 박형진과의 애정선과 오빠나 동생간에 맺어져있는 인정선만 분석해보아도 능히 알수 있다.

경림은 대동강나루터에서 적의 군복차림으로 어떤 청년을 압송해가는 박형진의 모습을 보고 놀라움과 의혹을 금치 못하며 미군사령부근처의 《명함방》에서 또다시 같은 차림을 한 애인을 보고 더욱 깊은 의혹과 번민 속에 모대기게 된다. 그러나 독자들은 영세의 말을 통하여 그가 공작상필요로 가장해다닐수도 있다는것을 짐작하고있기때문에 주인공과 함께 심각한 극적체험속에서 번민할수도 없고 그들의 상봉에 극적기대를 가질수도 없다. 말하자면 예술영화 《이름없는 영웅들》에서 유림이와 순희의 관계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적아간의 위치에서 만났다 헤어지면서 번민하고 모대기는 관계도 아닌데 무엇때문에 안타까이 모대기겠는가...

더우기 독자들은 박형진이가 지하당조직의 련락원이라는것을 이미 알고있는데 주인공은 모르고있는것으로 인위적인 정황을 만들어놓고 번민을 계속하다가 만나게 함으로써 그들의 상봉과정에도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있다. 실지 그들이 상봉하는 장면의 형상을 보아도 뽐뽐하고 딱딱하며 실무적으로 그려지고있기때문에 독자들의 불만을 자아내고있다. 여기서 박형진은 언제나 년장자로서, 공작상의 지도적위치에서 혼시조의 말만하며 경림은 공연히 정색해서 존경하고 복종하는 투로만 교감하고있으니 그들의 사랑에는 아무런 열정도 정서적유향도 심오한 극적체험도 없는듯 싶다.

경림과 오빠와의 인정선도 류사하다.

우선 홍지네 부모로부터 모란봉방어전투때 오빠가 전사했다는 비보를 듣고 충격을 받는 장면부터 심각한 극적체험을 느낄만큼 생활적담보가 주어져 있지 않다.

홍지 아버지는 손에 붕대를 감은 군관이 박격포탄에 맞아 쓰러진것을 보았는데 경림을 만나고보니 그 사람이 경림의 오빠인것 같다는 식으로 비보를 알려주는것이다. 이처럼 열편한 비보를 받고도 경림은 오빠를 애타게 부르며 그 시체라도 찾겠다고 모란봉으로 달려올라가고있는데 어찌 그에 공감할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작가는 경림이가 숲속에서 방울새의 시체를 보고 오빠를 생각하면서 모대기게 하고있다.

그러던 오빠가 살아있다는소식을 박형진의 어머니한테서 듣고 경림은 그것을 확인하자고 오빠의 동무네 집으로 찾아가서야 다시 오빠가 용감히 싸우다가 희생된 소식을 듣게 된다.

이처럼 죽었다던 오빠가 다시 살아나게 되고, 살았다던 오빠가 다시 죽게 되었으니 이러한 감정의 희롱으로써는 아무리 심각한 정황속에서도 주인공의 극적인 체험세계를 펼쳐보일수 없는것이다.

경림이가 동생이 체포되어가는것을 직접 목격하는 장면 역시 긴박한 정황속에서 이따금 불의에 만난것밖에는 남매간에 충분한 생활적축적이 없는 조건에서 주인공의 체험세계가 절절할수 없으며 동생의 탈출을 도와주다가 희생된 희숙이의 비보도 주인공에게 강렬한 극적체험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이밖에도 경림이의 체험세계를 깊이있게 탐구할수 있는 《선교리가게집》과의 관계도 소설의 첫부분에서 제시만 해놓았을뿐 유야무야되고말았으며 변절자 림수찬과의 관계에서도 응답 있을수 있는 극적인 체험세계를 깊이있게 파지 못하고있다.

그러한 결과로 경림이를 중심으로한 인간관계에서 발현되는 주인공의 절절한 체험세계는 부상당한 영세나 홍지와와의 관계를 제외하고는 진실로 깊이있게 탐구되고 극적으로 인상깊게 개방된것은 찾기 힘들다.

이러한 결함은 문학작품에서 인간의 사상의식발전과정을 감명깊게 그려내기 위해서는 그의 내면체험세계를 섬세하고 깊이있게 파고들어야 한다고 한 기본요구를 무시한데서 생긴것이다.

이상과 같이 장편소설 《모란봉》은 작가가 시대에 대한 열렬한 공감에 기초하여 강점자들을 반대하여 싸운 평양사람들의 영웅적기상과 그 투쟁의 의의를 밝혀내는데 형상의 초점을 두지 못하였기때문에 작품의 형상세계가 저조하게 되었다.

또한 작가가 우리 시대 인간들의 고상한 사상정신세계를 깊이있게 탐구하는데 힘을 기울이지 못하고 사건진행과정에 보다 많은 관심을 돌린 나머지 주인공을 비롯한 근위대원들이 체현하고있는 영웅적인 성격의 본질과 신념의 세계를 감명깊게 그려내지 못함으로써 공산주의인간학의 기본요구를 옹호구현하지 못하였다.

우리 작가들은 이러한 부족점을 발로시킨 기본원인이 시대와 인간, 생활에 대한 작가의 립장과 사상미학적리상이 높지 못하고 열렬하지 못한데 있었다는것을 교훈으로 삼고 작품창작에서 공산주의인간학의 요구를 더욱더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할것이다.

공 지

김관일

제대병사 조성진은 로동과 사무실의 벽시계종이 열두점을 때릴 때까지도 꿈속에 잠긴 사람처럼 그냥 배치장을 들여다보고있었다.

처음에는 거침없이 내려읽히우던 그 글자가 갑자기 흐리마리해지더니 다음은 뭐가 뭔지 통 분간할 수가 없었다.

가로세로 그는 줄칸들이 종횡무진으로 마구 형클 어지는가 하면 그안의 글자들 역시 획들이 서로 엇 바뀌우며 어지러이 배회하는것이였다. 이것은 그의 망연한 의식속에 거의 아무런 생각도 불러일으키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그 무질서한 줄칸들과 글자들이 다시 제자리에 정연하게 배열되고 마침내는 거기에 씌워진 《열관리공》이라는 글자가 더는 달리 될수 없다는것을 강조나 하듯 똑똑히 보이기 시작했을 때 성진은 소스라쳐 놀라며 고개를 쳐들었다.

바로 한시간전까지만 해도 자기에게 이러한 배치장이 차례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던 성진이었다.

제대배낭을 풀기도 바쁘게 공장에 달려나온 그는 대뜸 시대의 거창한 숨결이 느껴지는 이곳에서 벽찬 감정을 받아안았었다.

새로운 《80년대속도》창조어로 부르는 당의 전투적호소들이 마치 톱 돌출되어 튀어나올듯한 힘있는 표어들과 글발들마다에서 퍼덕이고있었고 축포인양 장쾌하게 용접불꽃을 날리는 용접공들이며 세찬 전동기를 으스스하게 거머쥔 젊은이들…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거대한 호흡에 맞추어 숨쉬고 있는듯이 느껴졌다.

청춘의 위훈과 열정으로 충만된 이 새로운 세계가 자기더러 어서 오라 부르는듯하여 벌써 온몸에서 들뛰는 젊은 혈기와 심장의 세찬 박동을 건잡을 수 없었던 그였다. 시대가 부르는, 당이 요구하는 가장 어렵고 보람찬 초소에 자기를 세워온 그였고 또 병사시절부터 그의 위치는 항상 그곳이 있었다.

그런데 이것은?… 기껏해야 생산의 보장단위로 불리우는 공장의 제일 뒤구석에 외롭게 돌아앉은 보이라가 아닌가… 그는 배치장을 로동과지도원의 책상앞에다 도로 밀어놓았다.

《모욕적인 언사같습니다만 사람을 장기쪽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래 지도원동지에게는 본인의 의사같은건 안중에두 없단말입니까! … 전 직업을 가리는게 아닙니다. 다만 어렵고 벅차서 감당하기 아름다운 일이라면… 그리고 부대의 전투과업수행에… 저 다시말해서, 저… 시대의 앞장에서 알리는… 아, 용서하십시오, 공장생산에서 기본을 담당

한 전선이라면 그것이 어떤 직업이든 관계없습니다.》

그러자 늙수그레한 그 로동과지도원은 얼굴이 주름살 하나 움직이지 않고 눈길도 들지 않은채 자못 늘어진 어조로 설복을 시작하였다. 그것은 《열관리공이란 결코 시시한 직업이 아니》라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오늘 우리 사회에서 로동은 그 어떤 직업을 막론하고 가장 영예로우며 성스러운 일로 된다.》는것으로 끝나는 판에 박은 해설이였다.

필경 그는 직업이 직업이어서 이미 다른 사람들 앞에서든 매번 똑같은 투소 반복하였을 그 말을 아무런 열정도 없는 실무적인 억양으로 외우는것이였다.

성진은 마치 암송한 학과처럼 한자도 틀림이 없이 그대로 되풀이되는 그 가솔비와도 같이 끈끈한 설복을 끝까지 참을성있게 들으며 과연 이 사람 자신이 자기 말의 확신성여부를 믿거나 하는가 하는 의혹이 문득 치밀었다.

그는 로동과의 문을 열고 나섰다.

(초급당비서를 만나보자, 그리고… 털어놓고 말해보자.)

그가 맨 끝방에 들어섰을 때 초급당비서는 서류가 잔뜩 쌓인 책상에 마주앉아 무슨 글인가 쓰기에 여념이 없었다.

얼핏 성진을 바라보고난 그는 손을 들어 의자를 가리키고나서 여전히 용지우에 만년필을 사각거리며 부지런히 쓰는것이였다.

《우선 앉소. 그리고 얘기하십시오. 무슨 용무인지… 내가 일하면서 듣는다고 노엽게 생각하지 않는다면말이요. 글썄 며칠째 현장에만 나가있었더니 이렇게 문건들이 잔뜩 밀리지 않았겠소. 허참…》

성진에게는 초급당비서의 그 가식없고 솔직한 태도가 마음에 들었다. 그는 자기가 찾아온 사유를 말하였다…

《그래서? …》

《그게 전부입니다.》

종이우를 사각거리던 펜소리가 푹 멎었다. 만년필이 그의 웃주머니에 끼여졌고 서류가 한옆으로 밀려났다.

이제는 벌써 모든 일을 뒤로 밀어치운 초급당비서의 신중한 눈길이 제대군인의 모습을 더듬었다.

기꺾한 체격에 선명한 얼굴륵판이며 쇠물을 부어 만든듯 단단해보이는 주걱턱 그리고 그 어떤 내재적인 다양한 감정도 숨김이 없이 뚜렷이 표현할줄 아는 초점이 명확한 그의 눈표정… 한마디로 미남자라고도 할수 있는 제대군인의 용모를 주의 깊게

더듬던 그의 시선이 가슴우에 달린 락장에 멎었다.

《그러니까 결국 열관리공이란 직업이 마음에 안 든다 그말이요?》

《솔직히 말씀드려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무척 오래전 일입니다만은 우리 마을엔 목욕탕보이라에서 일하는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탄을 몇삽 화실에 퍼넣고 밖에 나와 해바라기를 하다가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우리들을 불러놓고 세월없이 앉아서 옛말을 들려주곤하였지요, 세월없이… 그리고 늘어지게 앉아서… 아시겠습니까, 저에겐… 아니 제 나이엔 옛말이 어울리지도 않거니와 그리고 전 오늘의 벽찬 사회주의대전설을 위해서, 그야말로 일다운 일을 위해서 여기로 온것입니다. 또 저, 전 아직 찢었지요.》

성진은 말을 끊었다. 자기가 지나치게 말을 많이 했다고 느껴졌던것이다.

한마디의 말도 없이 입을 꼭 다문채 자기를 주시하고있는 초급당비서의 앞에서 그는 많은 사실이 필요없다는것을 알았다.

《그렇다? …》

자리에서 일어난 초급당비서는 한참이나 성진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의 눈길앞에 상대방이 무안을 느낄 때쯤 하여 그는 돌아서서 방안을 천천히 거니는것이였다. 그러다가 성진의 앞에서 걸음을 멈춘 그는 고개를 돌리며 성진을, 더 정확히 말한다면 그의 가슴우에서 빛나는 락장에 다시금 시선을 멈추었다.

군공메달과 전사영예훈장이 수여되었음을 말해주는 그의 락장- 그것은 아마도 성실한 복무에 대한 표창이리라. 그리고 그것은 무언의 침묵속에서 초급당비서에게 무엇인가 말을 하고있었다.

《그렇단말이지? … 알만해, 욕심같에선 나 역시 동무를 그런곳에 배치하고싶지 않소. 그러구 우리 공장 보이리가 동무의 말대로 정말 젊은이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일터인지도 모르지… 난 지금 동무와 그걸 론하고싶진 않소…》

《…》

《그러나 한가지만은 약속해둬시다. 초급당비서로서가 아니라 나 개인과 동무하구말이요… 한해동안만 열관리공으로 일해보시오. 그다음에두 보이라일이 씨원치 않다면 그땐 동무의 요구를 충분히 고려하겠소. 어떻소, 약속할수 있겠소?》

성진은 그 말의 숨은 뜻을 가늠해보기라도 하듯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는 초급당비서의 눈에 그 어떤 지점은 장난기와 함께 그 무엇인가 의미심장한 표정이 어려있는것을 보았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딱히 알수 없었으나 성진은 자기네 젊은이들 식으로 말할줄 아는, 어딘가 모르게 끌려드는 이 호걸풍인 초급당비서의 말이 자기의 가슴을 쿡 찌르는것을 느꼈다.

그리하여 성진은 저도 모르게 병사식으로 구두뒹꿈치를 딱 소리나게 모두며 기꺼이 대답하였다.

《할수 있습니다, 까짓거! … 해보지요.》

이렇게 되여 그는 열관리공이 되였다.

사실 그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초급당비서와 약속한 한해동안의 열관리공생활- 그것은 결코 들끓는 생활은 아니였다.

공장안의 곳곳에서 당이 제시한 웅대한 10대전망목표의 성과적수행을 위하여 새로운 기술개건과 생산규모를 확장하기 위한 돌격전투가 힘있게 벌어지고있을 때에도 직접적인 생산부문이 아닌 보이라는 여느때나 다름이 없었다.

원래 보이라의 사람들이 대체로 중년기를 넘어서인 사람들이여서 그런지 그들은 천성이 무던한 《호인》들이였고 경쟁에 대한 의욕도 별로 없었다.

그러다가도 이따금씩 증기압이 떨어져 생산이 중단된 형편이라는 호된 전화추궁이 날아들기도 하였지만 그럴 때면 열관리공들은 워낙 《호인》들이인지라 압력계를 흘깃 쳐다보고는 《증기생산능력이 그게 단결요.》 하든가, 아니면 좀더 시큰둥한 어조로 《어디 한번 해보지요.》 하는것이 고작이였다. 그들의 견해에 의하면 그것은 늘 있는 레사로운 일이며 추궁하는 사람들 역시 자기네의 실정을 뻔히 알면서도 그저 한번 멋으로 그래보느라고 하는말이라느것이였다.

도대체 이런 미직지근한 생활에 여직껏 습관되지 못한 성진은 여기에 대해 항상 부단한 의혹을 제기하고 또 뛰여도 다녔으나 사람들은 그러한 성진을 오히려 이상한 눈매로 바라보는것이였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를 동정하기까지 하였다. 하긴 그럴수 있어, 우리두 너나없이 젊어서 한뎀 다 그랬으니까-하고.

그동안 성진은 공장대학에 입학하였다. 그리고 일 끝난 저녁이면 모든것을 잊기라도 하듯 온 정신을 기울여 기계공학공부에 열중하였다.

만일 그날저녁의 그 잊을수 없는 일만 아니었던들 그후의 나날도 역시 것처럼 평범하게 흘렀을지 모를 일이었다.

그날저녁 …

순회공연을 온 도예술단의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공장문화회관에 간 성진은 거기에서 뜻밖에도 한 고향 처녀를 만난것이였다.

전혀 생각지도 않던 일이었다.

공연도중에 무대우에서 녀성중창조 성원들과 노래를 부르는 그 처녀를 알아보았을 때 성진은 자기를 잊어버렸다.

아무리 눈여겨보아야 그는 윤희였었다!

그다음 성진은 자기가 어떻게 자리에서 일어나 회관밖으로 나왔으며 무대뒤에서 그를 기다렸는지 의식하지 못하였다. 오로지 자기의 심장이 밖으로 뛰어나올듯 세차게… 세차게 고동쳤던 그 음향만이

기억될뿐이었다.

공연이 끝나고 의상실로 바삐 달려가는 배우들을 살피던 그는 앞뒤를 생각지 않고 한 처녀앞을 뚫뚫 막아섰다.

《날… 나를 모르겠소? 윤희!》

《?!…》

숨막힐듯한 한순간이었다.

한동안이나 창백한 얼굴로 속눈썹하나 까딱않고 성진을 뚫어지게 바라보던 처녀의 손에서 소도구가 딱 소리를 내며 대리석바닥에 떨어졌다.

《어마나! 이게 누구예요? 성진동무안예요!》

내키는 감정대로라면 그때 성진은 그를 와락 포옹할수도 있었을것이었다. 제대되어 한번도 가보지 못한 고향, 향시 잊어본적 없는 한고향의 처녀를 만났다는 그것만으로도 그는 자기를 억제할수가 없었던것이다.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에요? 어떻게 동무가 여기에 있어요?》

《그렇게 됐소…》

《아이참, 세상에 이런 법도 있어요? 전번에 동무에게서 제대했다는 편지를 받고는 영 소식이 없어 얼마나 동무를 원망했기에… 글썽 여기에 있는 것두 모르구…》

처녀는 눈곱에 이슬이 축축히 맺힌채로 그를 나무랬으나 입술에는 의연히 형언할수 없는 반가움과 기쁨이 넘치고있었다.

《어쨌든… 이렇게 만나지 않았소. 그래 우리 부모들은 다 잘 있소? 그러구 동무들두…》

《예, 잘 있어요. 다들 여전해요, 그래 어느 직장에 배치받았어요?》

《보이라에 배치받았소.》

《어디라고요? …》

《보이라직장에말어요.》

윤희는 성진의 말이 얼른 리해가 되지 않는지 얼떠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보이라라니? 무슨 보이라말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쉬이 표상이 떠오르지 않는것이었다.

《저… 그러니까 그건 저… 어렸을 때 우리 마을의 목욕탕보이라에서 일하던 그 아바이처럼… 오… 불을 때는 그런거말이에요? …》

《…》

성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 애당초 대답하기를 단념하였다. 다만 처녀의 얼굴에 어리는 미묘한 표정의 변화 하나도 놓칠세라 성진은 그의 눈을 똑바로 그리고 집요하게 주시하였다.

이리하여 그들의 이야기는 한동안 본의아니게 중단되었다. 마치도 흥겨운 곡조로 시작된 노래가 더욱 고조되어야 할 높고도 불안전한 음에서 똑 끊어진것과도 같이 불시에 중단된 이야기를 그들은 어떻게 다시 이어야 할지 알지 못했다.

그때 옆에서 웃고 떠들며 다가오던 한패의 처녀

들이 그들을 발견하자 문득 말소리를 죽이고는 저들끼리 뭐라고 소곤거리며 지나갔다. 차츰 벌어지는 발자국소리들과 또다시 터치는 처녀들의 의미심장한 웃음소리…

제일 먼저 이것을 깨달은것은 윤희였다. 그는 다시 명랑한 표정을 회복하며 활기있게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는것이였다.

《참, 이번에 우리 군에 새로 발전소와 저수지가 건설된것을 알고있어요? 마을엔 새 문화주택들이 일떠서고… 아주 몰라보게 되었어요. 아마 동무가 지금 와보고 이게 과연 내 고향인가 의심한대도 결코 무리는 아닐거예요…》

그러나 성진에게는 그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다만 이야기가 또다시 중단될가봐 겁을 집어먹기라도 한듯 설새없이 입을 벌리는 윤희의 모습. 그리고 웃음을 지을 때마다 웬일인지 바르르 떨리는 그의 긴장해진 아래입술을 통하여 성진은 오로지 이 한마디의 말만을 되새기고있었다.

《저, 그러니까 그건 저… 목욕탕보이라에서 일하던 그 아바이처럼… 불을 때는… 그런거말이에요? …》

무심중 윤희가 던진 그 말은 성진의 귀전에서 떠나지 않았고 또한 그 말을 할 때 윤희의 얼굴에 어린 뚜렷한 의혹의 표정을 그는 지워버릴수가 없었다.

왜, 무엇때문에?…

성진은 뭔가 부당한 모욕을 당한듯한 감정으로 하여 피로움에 모태졌다.

그이튿날…

그날은 어느날치고도 바쁜 날이였다.

더우기 오전에 유명환이가 말아보던 콘베아가 고장이 나서 보이라 한대가 멎어버리자 성진은 그의 기대수리를 도와주느라 여념이 없었다.

같은 제대군인이며 함속에서도 성진이와 한호실에 든 명환은 자기 기대에서 조그마한 고장이 생겨도 곧 성진의 도움을 바라군했었다.

《젠장, 보이라 한대가 쏘으니 이제 또 사람들이 잔뜩 밀려와서 증기를 내라구 야단법석을 치겠군.》

콘베아옆에 서서 성진에게 도구를 섬겨주고있던 명환이가 느닷없이 푸념을 늘어놓았다. 자기때문에 배좁은 콘베아밑에 들어가 비지땀 흘리며 나사를 조이고있는 성진에게 그런 말이라도 좀 해야 위안이 될것 같았다.

《참, 동무도 알겠군, 나하구 함께 제대된 갑판장 말이네. 그 친구한테서 요전에 편지가 왔는데 뭐 무역선을 탄다나, 대양을 건너 세계 그 어데건 안가보는데가 없다더군. 그 친구 빠지게두 됐지 …》

불시에 콘베아밑에서 똑 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사를 도로 푸는 소리가 들리더니 조금후에 콘베아

밑에서 성진의 손이 불쑥 내밀어졌다.

《나트를 하나 주게, 그리구 당치 않은 말은 그만 두게. 그럴 시간이 있으면 하나라도 보이라의 기계에 정통해두어야지, 자기 기대를 자기 손으로 고치기 못하는 멍청이를 뵈다 어디에 쓰겠나.》

밑에서 문득 성진이가 쓰아붙었다. 그러나 이런 말에 쭈그러들 유명환이가 아니었다. 병사시절엔 그도 한다 하는 해명이었으며 자기에 대한 당당한 자부심을 가지고있었던것이다. 그런데 멍청이라니? ...

그가 성진의 말을 반박하기 위해 입을 뱉었지만 그때 등뒤에서 웬 녀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 미안하지만 말씀 좀 물읍시다.》

《예...?》

《여기 성진동무가 어디서 일하는지 알수 없을까요?》

《?!...》

밑에서 딸가닥거리던 쇠소리가 푹 멎어버리고 다음은 잠잠해졌다. 명환이가 구애여 성진을 찾을 필요는 없었다. 성진은 유난히도 청이 맑은 그 목소리의 임자를 알아보았던것이다.

그는 상서롭지 못하게 뛰는 가슴을 걸잡으며 큰 베아밖으로 나왔다.

《어마나!》

윤희가 놀라며 한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는 자기가 찾아온 리유는 까맣게 잊어버린채 땅에서 솟아나듯 불쑥 나타난 성진을 멍하니 바라보는것이였다.

《어떻게 왔소?》

《저 ...》

윤희가 주춤거리고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쿵당거리는 발자국소리와 함께 문이 벌벌 열리며 또 한 사람이 문가에 나타났다. 기계실안에 있던 세사람의 시선이 일시에 그에게로 쏠렸다.

그 사람은 가까이 다가왔다. 그리고는 뭔가 못마땅한 눈초리로 그들을 둘러보는것이였다. 한손에 꾸겨진 작업복모자와 바지가랭이에 아직 채 마르지 않은 몰탈이 점점이 튀여오른 그 사나이는 몹시 룽룩치 않은 인상을 주었다.

《동무네가 여기 열관리공들이요?》

급히 달려온듯한 그의 말은 첫마디부터 거칠었다. 성진은 그의 말을 시정시켜주기라도 하듯 푹푹한 어조로 한마디한마디에 그루를 박아 말하였다.

《열관리공들이지요. 왜 그러십니까?》

《열관리공... 흥 말은 좋소. 그런데 동무넌 도대체 어떻게 열을 관리하는거요! 증기압이 약해서 우린 일손을 털구 나갔을 지경이요...》

《저 미안하오. 그런데 동무도 알다싶이 공장이 지금 배로 확장되었지 아직 보이리확장공사는 래년 계획 ...》

성진이의 조리정연한 변명을 푹 찢으며 명환이의

말이 총알처럼 튀어나왔다.

《누군 뭐 노는줄 아오? 보시오. 지금 기대가 고장나서 그러지 않소.》

명환의 말은 자못 통명스러웠다.

《흥, 일이 안되면 다 조상탓이라더니... 동무넌 한테서 이젠 그런 말을 열두번도 더 들었소. 공장 생산은 몇배의 속도로 앞에서 달리는데... 동무넌 삼년석달 여전히 그 모양, 그 꼴새로 있으니 그래량심이 있나말이요! ...》

《젠장, 증기생산능력이 그제 단결 별수가 있소. 당신도 여기 와서 한번 일해보구려. 어떤가! ...》

《무슨 말을 그렇게 하나!》

성진은 마주서서 한사코 엎서는 명환이를 제지하고나서 공손한 어조로 그 사나이에게 말하였다.

《알만합니다. 이젠... 수리를 인차 끝내구 증기압을 올려보지요.》 그러나 성진이 자신도 자기가 무엇을 녀두에 두고 이렇게 대답하는지 알수 없었다.

그러자 그 사나이는 쓰겁게 웃고있는 명환이쪽을 흘깃 보고 돌아서며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렸다,

《내참, 맞설 사람하구 맞서야지... 이름이나 유명했으면 뭘해. 뒤꼁방지킴이나 하는 주제에... 에이참.》

《뭘-요?! ...》

문고리를 잡으려던 그 사나이의 손이 움칠 허공에서 굳어졌다. 그는 돌아섰다.

그러자 그는 곧 백지장처럼 셋하얗게 질린 성진의 얼굴에서 무섭게 내쫓고있는 눈썹과 부딪쳤다.

《이제 그건 누구에게 한 말이요?》

이새로 내쫓는듯한 그의 낮은 목소리에는 숨을 조이는듯한 압박감이 스며있었다.

《다시한번 말해보오. 누구를 두고 한 말인지! ...》

미간에 주름살을 모은채 가늘게 쪼프린 그의 한쪽 눈시울에 경련이 줄달음쳤다. 그것은 그의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인 버릇이였다. 이처럼 자기를 걸잡지 못하는 순간이면 항용 그런 날카로운 경련이 왼쪽 눈시울에 뻗치는것이였다.

《뭘 ... 뭘말이요? ...》

경악에 질린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그 사나이는 한걸음 뒤로 물러섰다.

《아니, 저... 어찌자구...》

등뒤에서 애원하는듯한 윤희의 다급한 목소리가 성진의 귀전을 쳤다.

그는 문득 그자리에 멈춰섰다. 그리고는 여전히 거칠게 숨을 뿜으며 그를 노려보는것이였다. 자기를 다잡기 위해서는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했다.

이윽하여 숨을 한번 크게 몰아쉬는 그는 문을 열어제꼈다. 그리고 뭘수록이면 그 사나이쪽을 보지 않으려고 애를 쓰며 그는 말하였다.

《가보시오. 어서!...》

그 사나이는 몰탈이 튀어오른 모자를 황황히 집어쓰고는 문밖을 나섰다.

잠시후 성진은 아무 일도 없었던듯이 평온한 기색으로 돌아왔다. 한동안 그들사이에는 말이 없었다.

성진은 참을성없는 자기의 약점을 드러낸것으로 하여, 명환은 명환이대로 어정쩡한 태도를 취한 자기에 대한 불만으로 하여 그리고 윤희는 이 즐겁지 못한 사건의 목격자로 된 죄스러움으로 하여 그들은 서로 상대방에게 시선을 돌리기조차 거북해하며 침묵을 지켰다.

한참만에야 비로소 윤희는 이자리를 피해야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저, 우린 래일 여기를 떠나요. 오늘저녁 시간이 있다면... 아니 그럴것 없이 제가 공장정문에서 기다리겠어요.》

윤희는 조용히 말을 마치고 돌아섰다.

어리둥절한 눈으로 처녀의 뒤모습을 바라보고있던 명환이가 성진의 어깨를 툭 건드리며 물었다.

《누군가?》

《한고향 처녀네.》

《그래? ... 저런, 그런데 하필 좋지 못한 장면을 보여줬군.》

...저녁에 일이 끝나자 성진은 공장정문으로 향하였다.

낮게 드리운 하늘밑에서는 눅눅한 바람이 불어치고있었다.

그들은 공장정문을 벗어나 강변길로 걸음을 옮겼다. 부산스러운 구름장들의 어지러운 설레임에 위구를 느낀듯 강기슭에서 낚시꾼들이 주섬주섬 낚시줄을 걷어모으고있었고 강변길은 인적이 뜨윽해졌다. 벌써 서쪽하늘이 어두워지며 멀리서 꾸릉, 꾸릉 천등이 온다. 다만 이 모든것에 무관심한것은 호젓한 유보도를 거닐고있는 그들 두사람뿐이었다.

그들은 조용히 일렁이는 물결위에 추억의 눈길을 던졌다. 느닷없이 강물의 잔잔한 흐름이 고향집 뒤산에 돌돌 구울며 흘러가는 맑은 시내가로 바뀌우고 귀가에는 그 정다운 내물소리가 들려오는듯하였다.

...그들의 유년시절은 집뒤의 나지막한 산골짜기에서 졸졸 소야곡을 읊조리듯 아득한곳으로 흐르고 또 흘러가는 시내물과 함께 고요히 흘러갔다.

그리고 만일 그것을 우정이라고 할수만 있다면 그들의 관계는 멋모르던 그 시절의 철부지 우정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도 말할수 있었다.

마을의 조무래기들중에 누구보다 다정다감하고 열정적인 소년이었으며 한다 한느 장난꾸러기였던 성진은 록음이 우거진 마을뒤의 야산에서 매미들이 귀따깝게 매앵, 매앵, 맴- 울어대는 여름철이면 군사놀이에 여념이 없었다. 두말할것도 없이 성진은 그때 《대장》이었고 이웃의 철없는 계집애였던 윤

희는 물론 《간호원》이었다. 사내애들처럼 담차고 남에게 질줄 모르는 그가 자기의 딱친구로 될수 없다고 생각해본적은 한번도 없었다.

성진의 부하들은 용맹하여서 그 어대건 못가는데가 없었다. 때로는 수수깡이말을 타고 집집의 장독들을 엿지르며 마을의 골목골목으로, 산으로, 들로 께질러 내달리곤하여 그들은 마을의 큰 기쁨인 동시에 그만큼 우환거리기도 했다.

저녁이면 옷을 온통 더럽힌 윤희의 물골을 보고 혀를 끝끝 차며 그의 어머니는 이웃의 걸찬 사내애를 나무라곤하였으나 다음날 날이 새기만 하면 윤희는 언제 그랬던가싶게 즐겨 자기의 위신있는 《대장》의 뒤를 따라다니곤했다.

그러던 어느해인가 그들의 우정은 끝이 나고말았다. 그 주되는 리유인즉은 갑자기 서먹서먹해졌다는 그것이 전부였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그들이 철부지 유년시절을 떠났을 때였던것이다! ...

그로부터 썩 후의 어느날 ...

도 청년회관에서 있는 사랑송모임에 출연한 성진은 영예의 1등을 하여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았다.

현훈증이 일만큼 크나큰 영예에 휩싸여있던 그에게 싱싱한 향기가 스민 생화묶음을 안겨준것은 윤희였다.

아득한 그 시절, 뜻하지 않게 서로 멀어진이래 성진은 그가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앞에서 꺼리낌없이 자기의 순정을 드러내보이니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었다.

그리고 사실 일은 그것으로만 그친것이 아니었다. 그후부터 윤희는 자기의 녀동무들에게 성진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게 되었고 지어 어머니앞에서까지도 경솔하게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보이게 되곤하였다.

사랑하는 딸의 너무도 빠른 변화를 근심과 불안이 엮여진 시선으로 바라보며 어머니는 눈굴이 찢끔 나오게 되게 꾸지람도 하였으나 소용이 없었다. 윤희에게는 이미 성진의 그 모든 영예와 자랑이 확고하게 자기 영예의 일부분으로 간주된것이었고 더우기는 그 자랑을 자기의 작은 심장속에다 남몰래 건사해두기에는 너무도 흘러넘치는것이였다.

그런데 오늘은?...

성진은 한숨을 후- 내쉬었다.

오늘에 와서 그는 처녀앞에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하여 이전처럼 궁지에 넘쳐 뿔뿔이 이야기할수 없었고 또한 사람들앞에서 저도 모르게 주눅이 들곤하는 오늘의 자기를 발견하였다. 그제야 자기가 무엇때문에 그처럼 그리는 처녀에게조차 체대된지 반년이 지난 오늘까지 편지한장 하지 못하였던가를 가슴아프게 느꼈다.

지나온 학교시절과 군사복무의 전기간을 통해 결코 남에게 뒤져본적 없었고 그 누구앞에서도 당당

한 금지감을 훼손당해본적 없었던 그 제대병사 조성진은 오늘 난생처음으로 처녀앞에서, 그것도 가장 친근하고 다정했던 고향처녀앞에서 자기에 대한 명백한 수치를 체험하였다.

《저…동문 저를 원망하겠지요? …》

부지중 윤희의 가는 목소리가 그의 생각을 깨뜨렸다.

《무엇때문에 ? …》

《전 아까 그 사람이 한 말에 대해 본격해하던 동무를 보았어요. 그런데 저두 역시 그 사람보다 못지않게 동무를… 아마 제가 동무의 자존심을 몹시 건드렸는가봐요…》

《아니, 동무가 옳았소. 그리고 그 사람의 말두… 자기앞의 일도 제대로 못해 생산에 지장을 주구… 정말 뒤꼍방주인이지… 그러니 그보다 더 한 말을 듣는대도 할 말이 없지…》

《?! …》

의혹이 서린 얼굴로 성진을 바라보던 윤희는 그의 얼굴에서 고뇌의 표정을 읽었다. 아마도 그는 자신에 대해 몹시 부끄럽게 여기고있는모양이었다.

윤희는 문득 속삭이는듯한 은근한 어조로 그에게 말하였다.

《저, 고향으로 오시지 않겠어요? 제가 아버지에게 동무 일을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달리 될수도 있을거예요. 고향의 어디 깨끗하고 조용한 직업을 선택해서…》

불현듯 감사납게 번뜩이는 성진의 시선과 부딪친 윤희는 말끝을 흐렸다.

그렇다, 그 시각 성진은 윤희의 아버지가 군 로동파의 책임일군이라는것을 상기하였다. 그의 말대로 되면 그에게는 모든것이 새롭게 시작될것이다. 아늑한 정원, 조용한 책상 그리고 그들이 사랑을 속삭이게 될 행복한 가정…

그러나… 다음순간 성진이는 이 모든것이 자기의 생각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는것을 절감하였다.

《무엇때문에 나에게 그런 권고를 하는거요?》

《전 다만 동무를 생각해서…》

《그렇다면 더욱 듣고싶지 않소.》

《?! …》

불길하게 낮추 드리워진 하늘에서 후두둑, 후두둑 비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미구에 그것은 소나기로 변하여 돌박으로 쏟아붓는것이였다.

금지에 사위는 뽕얀 비의 장막속에 갇려버리였다. 윤희는 겁에 질린 눈길로 허공을 쳐다보았다.

《뛰어요 ! 》

《어디로 ? …》

《?! …》

그들은 실상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근처에 비를 그을만한곳이라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갑시다 ! 》

《어디로요?》

이번에는 윤희가 되물었다.

《아무데로나 ! …》

그들은 걸었다. 서둘지 않고 쏟아지는 비를 함뿔 밟으며… 자꾸만자꾸만 걸었다.

이제는 그들 모두가 속옷까지 화락하니 젖게 되었을 때 그리고 이제 더는 이대로 한정없이 그냥 갈수는 없으며 무엇이든 어떻게 해야 하리라고 생각한 바로 그때 성진은 말하였다.

《다시는 나의 앞에서 그런 말을 하지 마시오. 난 아무데두 안가겠소. 보이라에서… 여긴 나의 전초요 … 우리 열관리공들에 대해 너절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한 절대루 ! …》

《갑자기 왜 그래요. 저의 말이 혹시 지나쳤다면…》

《아니, 지나친것두 없소. 난 동무를 탓하지 않소. 하지만 우리 열관리공들도 사회적으로 몇몇하고 당당한 인간들이란것을 보여주고야말겠소. 사람들이 스스로 그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되게끔 …홍, 조용한 직업이라구?!… 잘 가시오.》

《아니, 저…》

성진은 새파래진 입술을 파르르 떨며 뽕얀 비발속에 오도카니 서있는 윤희를 남겨둔채 발길을 돌렸다.

성진은 분개하였다.

여느때 같으면 아무렇지도 않았을 그런 일조차 이제와서 그에게는 죄다 무심히 보이지 않았다.

일은 바로 교대가 끝난후에 있었다.

오늘따라 일찍 교대를 끝낸 명환은 어느새 옷을 갈아입고 삼면차크가방을 옆구리에 낀채 바삐 퇴근길에 올랐다.

해는 아직도 허공중에 걸려있었다.

《벌써 퇴근하나?》

그의 앞을 막아서며 성진이 물었다.

《그렇네. 뭐 로동자야 이 멋진걸…》

명환은 히죽 웃고 성진의 앞을 지나치려 했으나 성진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t

《동무, 량심이 있어?》

《량심? 무슨 량심 ?…》

명환은 놀라운듯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반문하였다.

《오늘 동무가 맡은 3호보이라에서 증기를 제대로 못내서 또 부채직장에서 신소가 제기되지 않았는가말이야 ! …》

《오, 그것말인가. 난 또 무슨 큰일이라구…》

《뭐 ! 동무에게 그게 큰일이 아니라면 뭐가 큰 일인가? 동문 못가. 돌아가 오늘 책임량을 다 해놓고 돌아가게.》

《아니 이거 뭐 오늘따라 새삼스럽게 이래? 너무 그러지 말게 …》

며칠전에 보이라의 당세포비서로 선거된 성진이 앞에서 어정쩡한 처지에 빠진 명환은 또다시 김빠

진 웃음을 히죽 지어보이고는 제 갈길을 재촉했다..
성진은 그 이상 더 그와 시비를 쟁 시간이 없었다.
공장대학강의시간이 되어오고있었던것이다.

그날은 공부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밤이 깊어 성진이가 공장대학수업을 마치고 합숙
에 들어서니 방에서는 명환이가 여러 합숙생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고있었다.

원래 천성적으로 구변이 좋고 환상에 풍부한 소
질을 가지고있는 명환은 저녁이면 가끔 이렇게 동
무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기를 즐겼다.

이야기란 주로 자기가 지난 시기 직접 체험하였
거나 목격한 흥미있는 사건에 대한것이었는데 실제
이야기를 하다보면 자기가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
했던 일, 즉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그것 까지
도 죄다 사실로 되어버리기가 일쑤였다. 그렇다고
그가 절대로 실속없는 인간인것은 아니었다.

원래 솔직한 사람인 그는 처음에는 사실을 말하
려고 이야기를 시작했으나 이야기도중에 저도 모르
게 자기에게 익숙된 그 유혹적이며 풍부한 환상의
무기를 사용하지 않을수가 없게 되는것이였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의 이야기중에서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 거짓말인지를 그자신 도저히 분
간하지 못했고 또 차츰 거기에 스스로 현혹되어 이
야기를 늘어놓다보면 어느새 자기의 과거사는 그
어떤 비범한 인간의 영웅전기 비슷하게, 전혀 있을
법도 하지 않게 꾸며지는것이였다. 요컨대 그의 환
상속에서는 무엇이냐 다 가능했으며 설사 자기에게
2만톤짜리 대형집배의 선장을 시킨대도 자신있게
할수 있다는것이였다.

《그게 정말인가?》 하고 동무들이 히죽이 웃으
며 못미더운듯이 그를 바라보자 명환은 눈을 딱 부
릅 뜨고는 정색하여 말하는것이였다.

《만약 이게 거짓말이라면 지금 이자리에서 당장
벌을 받는데두 의견이 없네. 자네들은 내가 지금
열관리공이라니까 사람을 어떻게 보는거야. 한뎀
나두...》

바로 이때 문이 열리며 성진이가 들어섰다. 그와
함께 명환의 환상도 중단되였다.

어쩐지 성진은 몹시 좋지 않은 기색이였다. 그러
나 명환은 그를 본척도 않고 다시 이야기를 계속하
였다. 하지만 자기를 주시하고있는 성진의 날카로
운 눈초리를 자기의 옆얼굴에 감촉한 그는 이야기
의 흥이 나지 않았다. 특히 느닷없는 성진의 출현과
함께 오늘 교대후에 있었던 불쾌한 일이 되살아나
자 더욱 그러했다.

열이 올라서 기상천외한 환상들로 충만된 이야기
를 하면 할수록 그에 도전이나 하듯이 현실속의 자
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며 획극적인 인간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절망적인 생각이 부야
가 날만큼 머리속에 치받쳐올랐던것이다. 그리하여
그의 이야기는 결정적으로 말머리를 잃어 버리고

뒤죽박죽이 되고야말았다.

《제길, 내가 이제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통 알수
가 있나?》

문턱에 서서 그를 지켜보고있던 성진이가 말하였
다.

《내가 대주지, 동문 이제 방금 망망한 바다를 종
횡무진으로 누비면서 함대훈련을 하던데까지 얘기
했네. 그 빛나는 <어뢰정대장> 으로서말이야. 알
겠나? 어서 그다음을 계속하게.》

《? ...》

명환은 아연하여 입을 항 벌리고말았다. 그는 성
진의 말이 통담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의 심상치 않은 어조에 다른 동무들이 엉거주
춤 자리에서 일어나 문밖을 나갔다. 호실에는 그들
둘만이 남았다.

《어디 한번 말해보게. 동무의 그 환상소설같은
어제날에 비해서 동무의 오늘 현재생활엔 뭐가 있
나? 뭐가 있어! ... 물에다 땀물을 탄 위인같으니라
구... 동문 그런따위의 희미운 소리나 할게 아니라
자기의 현실에 대해서 생각해볼줄알아야 해. 자기
의 오늘에 대해서! ...》

《오늘이라구?... 흥, 동무도 어지간히 랑만가로
군. 남들의 뒤바라지나 해주구 사람들이 일러주지
도 않는 이 보이라생활에 무슨 궁지가 있구 영예가
있나! 이런 형편에 아득바득할건 또 뭐구... 그까
짓 불이나 때먹기야 여반장인걸...》

성진은 지그시 속입술을 깨물었다. 어찌보면 그
의 말이 옳을지도 몰랐다.

자기의 직업에 대해 영예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
들이 자기 일에 창조적 열정과 애착을 쏟아부을수
는 없는것이 아닌가.

하지만... 그에게는 다른 환영이 떠올랐다.

어제나 오늘이나 창조가 없이 구태의연하게 살아
가는 보이라의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던지는 모욕
앞에서도 스스로 자기를 업신여기는데 습관이 되어
아무런 반발도 느끼지 않는 자존심이 무딘 사람들,
궁지가 없는, 영예가 없는 사람들... 그리고 중요하
게는 이 모든것을 명환이가 당연한 일처럼 말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그는 화가 치밀어올랐다.

《그래, 사실 훌륭한건 아니야... 우리가 일을 제
대로 못해서... 그러구 확장된 공장생산규모에 우리
의 증기생산능력이 미처 따라가지 못해서 생산에
지장을 주고있는것두 사실이구... 또 그때문에 사람
들한테서 비난을 받구있는것두 죄다 사실이야. 그
렇다면 우리가 아직도 반년이나 남들이 보이라를
확장해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안되네. 우리는
결코 우리 시대의 속도가 우리때문에 지연되게는
할수 없네. 우리는 자기절로 이 모든걸 타개하세나.
궁지라는건 누가 우리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것두
아니구 선물하는것두 아니야. 그건 우리가 창조해
야 해!》 문득 성진은 말을 끊었다. 자기의 고막을

친 그 말이 과연 자기가 한 말인가 하는 의혹이 들었던것이다.

그러나 뒤이어 그는 방금 한 그 말이 열관리공으로서의 자기의 모든 생활의 총화였고 확고부동한 지향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그는 추호의 의혹도 없는 확신성을 가지고 그리고 명판에게가 아니라 바로 자기자신에게 말하듯 웅쳤다.

《그래. 공지라는건 바로 우리자신이 창조해야 하는거야! 자기 손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며칠후 보이라의 당세포총회에 성진은 이 문제를 회의의 기본안건으로, 정면으로 제기하였다. 구태여 에두를것도 없었고 표현을 부드럽게 할 근거도 없었다.

그의 말은 아직도 얼떨떨해 앉아있는 사람들 모두에게는 물론 청년당원들속에서도 무조건적인 그리고 즉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그들모두가 앉아서 기다리지만 말고 보이라의 현존설비들을 현대화하며 증기생산능력을 확장하기 위한 돌격적인 기술혁신전투를 벌리는데 찬성하여나섰던것이다.

어느날 그들이 일하는 현장에 찾아온 초급당비서는 능청스럽게 한눈을 쏙프리며 성진에게 말하였다.

《자, 이제 기약한 1년이 되었으니 약속을 리행해야지, 그래 어느 직종에서 일하는게 소원이요?》

성진은 대답하였다.

《원, 비서동지두...그런 룡담두 다 하십니까, 제가 가진 어딜 간단말입니까. 여기에두 할일이 많은데.》

성진을 시선으로 더듬던 초급당비서는 그의 가슴 위에서 빛나고있는 그 낮익은 락장을 다시금 보았다.그것은 한해전의 그날을 상기시키고있었다.

그때 그는 감수성이 풍부하고 다감한 이 미모의 청년이야말로 보이라의 현실에 대하여 누구보다 더 깊이 고민할줄 알며 사색할줄 알고 그에 적극적인

로 반발하리라하는것을 그의 눈빛을 통해서와 그의 가슴에서 빛나는 락장을 보고 읽었다. 매 인간에게는 분명히 자기의 끓이 있는 법이다.

초급당비서는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굳세게 틀어쥐었다.

《그럴줄 알았소. 그럴줄 알았다니까! 내 사람을 헛보지 않았지!... 한번 본때있게 해보오! 내 힘껏 떠밀어줄테니...》

저녁이 되어 보이라직장을 나서려던 초급당비서는 문득 그제야 생각난듯 (사실은 바로 그때문에 왔으면서도) 성진을 가까이 불렀다.

《참, 잊을뻔했군. 래일저녁 공장문화회관에서 도예술단의 축하공연이 있소. 동무네 열관리공들이 무대에 지명되어 나갈수도 있구... 또 동무가 잘 아는 그 어떤 한사람이 동무에게 꽃다발을 안겨줄수도 있소... 알겠소? 그리고 중요한건 그때 놀라거나 당황하지 말구 떳떳하게... 그리구 사내답게 처신해야 하오. 알겠지?...》

성진은 어떻게 된 영문인지를 몰라 눈만 슴벅거렸다.

《아니 그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되긴? 그저 우연히 그렇게 된거지...》

《?!...》

성진은 능청스럽게 한눈을 찡긋해보이며 돌아서는 초급당비서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에게는 그 모든 일을 도무지 리해할수가 없었던것이다.

그러나 그가 바로 며칠전 회의로 도에 올라갔던 초급당비서가 성진의 고향에 들려왔으며 거기에서 거창한 시대의 격류속에서 새롭게 각성된 다른 한 인간의 소식을 들은것도,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다는것을 깨달은것은 그다음날 저녁이였다...

낮도 없이 밤도 없이

-이선남폭포밑에서-

전동우

북소리 통통 앞뒤산에 울리네
천군만마의 발굽소리 울리네
백마의 갈기런가 날리는 물갈기 물갈기우에
번뜩이는 저것은 수만 창끝인가 칼날이런가

앞서지를 못해서 안타까운듯
서로 밀치며 부딪치며 타고넘으며
앞에서 우-우 뒤에서 와-와
꼬리물고 내리뛰며 달리는 물아

천년을 달리고도 숨차지 않은가봐
만년을 내달리면 힘이 진하랴
낮도 없이 밤도 없이 웨치는 그 소리는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아, 누가 너를 말없는 산천이라 했더냐
네가 바로 나래치는 이 땅의 기상
오늘도 우리보고 웨치는 그 소리는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인민의 학습당, 위대한 사랑의 집이여 !

리효운

평양 남산재 언덕 위에
청기와 학각지붕을 날개처럼 뿔구나,
산처럼 거연히 일떠선
인민대 학습당이여 !

구름 흘러가는 아슬한 지붕을 바라보며
학습당의 화강석계단을 올라
해빛 눈부신 문으로 다가서는 이 마음,
설레이는 가슴을 흔들며
밀려들고 밀려드는 뜨거운 생각

...광풍 휘몰아치는 항일의 광야에서
어제날의 머슴군, 처서군들이
거칠고 억센 손과 손에
꽂다리 연필 쥐여주시며
혁명의 《가가거겨》 배워주신 그 사랑

천고밀림속 밀영에 타오른 우등불가에서
조국광복의 심원한 구상으로
애국의 녀를 불타게 하시며
새벽을 맞으시던 그 열정으로
인민대 학습당 터전을 잡아주시고
만년대계의 기둥을
지심깊이 세워주신 경애하는 수령님 !

혈벗고 짓밟히면서도
배우려는 불같은 녀원 안고
자식들을 공부시키려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그 이루어지지 못한 간절한 소원을
해방된 조국땅에서 풀어주신
어버이수령님 !

무지와 몽매의 밑바닥에서
우리 인민을 건지시여
인민모두가 배우게 해주시려고
림시인민위원회의 첫 의정에
연필문제를 올려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은혜로운 사랑

그 위대한 사랑이
큰 청사도 회관도 아닌
바로 전민의 배움터, 인민대 학습당으로
혁명의 수도 한복판에 태어났구나 !

아, 그 사랑, 그 은정으로
《배움의 나라》, 《교육의 나라》에서

인민모두가 배우며
인류문명의 상상봉에 날아오를
비약의 날개를 돌려주시려
뜨거운 사랑을 기울이시여
문화의 정화를 꽃피워주신
인민의 위대한 스승

사상과 지혜의 큰 날개를 달아
인민들을 력사의 주인으로 키워주시고도
언제나 밝은 방에서
맑은 공기 마시며
혁명의 권리, 창조의 지식을 익히라고
탐구와 환상의 활무대를 펼쳐주신
자대로운 어버이수령님 !

눈물 없이는
진정 눈물 없이는
들어설수 없구나,
색옥돌도 무어진
진달래 꽃주단
별처럼 령롱한 무리들
황홀한 방에 정중히 모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숭엄한 영상을
우러러뵈옵는 뜨거운 이 마음

아, 여기서 우리는
위대한 사랑, 크나큰 은덕을
대를 이어 충성으로 노래하며
온 사회 인테리화의 지름길을
희망과 활기에 넘쳐 달려가리라

여기 행복의 집에서
주체사상의 영원한 진리로
인민들은 심장 불태우며
문명과 과학의 상상봉에 치달아오르리라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우리 인민에게 지어주신 사랑의 집,
인민이 받아안은 전민의 배움터
인민대 학습당, 사랑의 선물이여

인류의 태양 **김일성** 동지의
위대한 사랑과 은덕의 대기념비로
천만대에 소리높이 노래하며 자랑하며
찬란한 미래의 대문 열고
인민은 들어서노라 !

온 공장이 너를 찾고있는데

윤좌근

어데 갔느냐
소조원동무여
올해의 마지막 트랙포르가
꽃테프와 꽃보라에 싸여
출하장으로 떠나는데

어디 가고 보이지 않느냐
끝없는 감격 안고 설레이며
지금 온 공장은
너를 찾고있는데

방금전까지
아버이수령님께 충성의 보고 어서 드리자고
바퀴나사 말아조이며
새맑은 앞창도 다시 닦으며
잠시도 트랙포르앞을 떠나지 못하더니...

바로 네가 아니었더냐
수령님의 신년사 접한 그날
주물직장에 달려나가
우리용선로에 불지피기전에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지은 노래 뜨겁게 선창하며
용해공들만이 아닌 온 공장에
충성의 첫불 지펴준것은

2월의 그날에도
당에 더 큰 기쁨드리자고
프레스화 형단조화의
돌파구를 열어나간것도
기계바다 자동선의 폭을 배로 늘인것도...

진정
온 공장을 통채로 안고
앞장서 달려온 너의 나날엔

달도 별도 노을도
해가 되어 환한 빛 드리워주었더라
해도 달도 별도
너의 머리우에선
차마 기울지 못하였더라

하기에
너의 성실한 모습
공장과 함께 뚜렷하고
너의 뜨거운 숨결
수천 기대 동음에 어리어 저리도 우렁차라

1년 열두달
네가 떨근 땀의 무게를 생각하면
우리 너를 목마에 태워
공장을 열바퀴도 더 돌고싶거니

너는 어디로 갔느냐
환희로 넘치는 이 자리 떠나서...

오, 바로 이 시각
너는 공장구내 그 어느 보이지 않는곳에서
또다시 진한 땀 흘리며
새 진군의 돌파구를 열고있지 않느냐
3대혁명의
더 높은령마루로
우리를 부르며...

오늘을 넘어
래일에만 살아가는
우리 소조원
3대혁명의 전위여

네가 없는 여기 출하장에서도
우리 마음 불가마처럼 달아오르는구나!

어머니에게

윤기찬

어머니는 지금쯤
까치 우는 버들골 논머리에서
내 초소로 떠나던 동구길을 바라볼수도 있으리
간식지 진펄길에 들어선
이 아들을 기다려...

내 어릴적 한밥상에서
어찌다 입에 모래 한알 씹어도
가슴저러 하던 어머니
어느덧 병사생활을 끝낸 아들이어도

못다 보살핀듯
잠시도 시름을 못놓을 그 어머니거니
아마도 내 지금쯤
고향집 프락에 들어섰다면
아들의 식성을 헤아릴
구수한 산나물 토장국맛에
그 사랑을 뿌듯이 느낄수도 있으리
아침저녁 마른 땅을 밟으며...

하지만
자식의 머리가 희여지도록
손잡아주고싶을 그 마음을 안고
내 웃으며 진펄길을 걷노라
발자국은 바다물에 씻겨가도
삶의 보람은 새겨지나니

조국앞에 병사가 지냈던 그 신념을 이어
병사시절에 백배해진 그 힘으로
천년 잠든 감탕바다를 들어내고
새로 생길 천리별기슭에

내 손으로 어머니 넘나들
부엌문틀도 다듬으리

아, 어머니품을 떠났던 자식이
어머니를 다시 뵈울제
나라 위한 자식된 도리가 있어야 하거늘
병사시절에 키운 신념과 의지로
조국에 바친 위훈을 안고
전변의 새 세계를 안고
기꺼이 어머니를 맞이하리라

발이랑의 푸른 싹을 가꾸며
이 아들을 기다릴 어머니
그 마음의 진정을 펼쳐놓은
간식지 새 고향벌에서
아들이 어머니를 기다리리라
조국의 가없는 대지
그 한복판에 어머니를 걷게 하리라
행복을 가꾼 당의 이 아들이

바다가에 나와서

방금속

한낮때
바다가에 나오니
황홀하여라
물결은 잔잔하고 끝간데없이 푸른데

거기서는
야영하는 아이들의 얼굴이
달덩이같이
흰 구슬속에서 솟아오르는듯 하였네

푸른 솔밭속
소년단야영소의 흰 건물도
파도에 어리어
아이들과 함께 해염치고

수평선에
성난듯 검푸른 바다도
기슭에 달려와선
아이들의
고무공같이 탄탄한 몸을 안아보며
흰이를 드러내 웃고있었네

쏟아지는 햇빛
반짝이는 은모래
해당화꽃향기 실어오는
맑은 바다바람

그바람
그 햇빛 마시며
거침없이 내달리는

량불 붉은 얼굴들
구리빛 어깨들

산촌의 아이들인가
혹은 공장지구
아니면 탄광마을 아이들인가
아- 아-
달리는 유람선 갑판우에서도
쁘트우에서도
아- 아-

어린시절에 주실것
다 주시고도
여름한철 더위조차 몰아주시려
동해에도 명중
가장 아름다운 항만에
야영의 밝은 강물 열어
아이들을 기다려주시는
아버이 그 사랑 가슴에 다 못담아

바다를 가진 기쁨
한가슴에 다 못안아
저 아이들
누리에 내어뿜는 환희의 메아리어 !

아아 바다, 여름 바다
우리의 바다는
아이들의 바다
환희의 바다
꿈이면 가장 좋은 꿈을

것이면 가장 아름다운 것을
키우고 가다듬어
조국의 래일을 안으라고

한점 그늘 없이 구김없이
굳세게 자라
우리 혁명의 도도한 흐름
줄기차게 이어가라고
위대한 아버지 손길이
아이들을 다독여 키우는 사랑의 요람

이 요람에 자라
량볼에 피는 아이들의 웃음
그처럼 티없이 맑고
밤하늘의 별처럼
그 눈빛
밝게 빛나는 새별은

비바람 사나와도
햇빛만을 따르는 꽃송이로
붉게 붉게 피워주는
은혜로운 품이 좋아

한없이 한없이 좋아
온 바다에
구슬처럼 쏟아놓는
저 맑은 은방울 웃음소리...

그것은 아름다운 노래처럼
뜨거운 고백처럼
내 가슴 가득히 차올라
나는 끝없이 끝없이 귀기울이네

그러면
이름 못할 부드러운 빛발이
내 마음 가득히 깃들고
후더운 가슴속 어디선가 그 어디선가
뜨겁게 달콤하게
속삭이는 소리 들리네

보라 이것이 이것이
수령님 품이다
나의 조국이다

총과의 이야기

박세일

총이여 내 요즘엔
너하고만 하고싶은 말이 있구나
전우의 이름처럼 네 번호 속삭이며
진정을 더놓고있구나

《팀 스피리트 85》-
원썬놈들 새 전쟁 도발에 미쳐날뛰다는
방송원의 격분에 찬 목소리를 들으며
내 어찌해 손에 땀이 나도록
총이여, 너를 틀어잡았던지...

이 땅을 넘겨다보며
침략의 불길을 일으키려는
미제를 그대로 들바에야
나는 밋하려 군복을 입었더니
너를 밋하려 이 가슴에 안았더니

너는 들었으리
내 너를 수여받던 그날
붉게 펼쳐진 군기앞에서
조국에 다지던 선서의 목소리를...

훈련길 어디나 나와 함께
내 흘린 땀물에 씻기워

내 맞은 눈바람에 닦아져
총창도 눈부신 나의 총아

갈라진 조국을 두고 한해두해
가슴터지게 분노가 채워지듯
한알 또 한알 탄알도 만탄창
이제 더는 빈자리가 없구나

수호자의 사명으로
가슴에 받아안은 혁명의 무기여
이 땅에 준엄한 시간이 흐를수록
꿈에노 꿈에서도 너를 놓지 못해

약통실에 들어간 탄알도 격동상태
돌격선을 차지한 내 마음도 격동상태
원썬놈들 분별없이
불질하며 덤벼든다면

이 가슴에 뿜는 복수의 피줄기
총이여, 네가 불줄기로 뿜어다오
사회주의 내 조국 목숨바쳐 지켜갈
이내 심장이 뿜어대는 그 웨침
총이여 네가 총성으로 터쳐다오.

자유내 내 벗은 외 1 편

-한 통일혁명당원의 수기에서-

윤병규

최후의 시각은 다가오는가
저주로운 쿵크리트독감방아
푸득이는 이내 심장아
옥사를 뒤흔들며 소리쳐 웃던
결투의 나날들이 그림구나

피를 말려죽이고있으니
고요히 눈감을 그 시각을
이대로 묵묵히 기다린단말이나
잠자듯 숨져가는 비들기로 되느니
절벽에 부딪치는 수리가 되리

오, 산줄 알고 갈줄도 안
불타는 자유의 내 벗은
푸르른 조국의 창공을 날으며
넘치는 햇빛속에 웃으리
흐르는 달빛속에 노래하리

통일된 삼천리강산에서
아이들의 눈빛속에 너인들의 생각속에
오곡의 설레임과 피는 꽃의 향기속에
숨쉬며 속삭이며
내 살리 영생하리

생 일 연

왜 보고만 있느냐
박동무야
너의 생일연
콩떡이다!

생사를 같이하는 우리
한줌두줌 모든 콩알
씻고 닦은 주먹으로
김동무가 빳었다

어서 들게 어서
재촉하며 우는 모두
울기는 왜 울어
꾸중하며 우는 나...

아, 손에 손을 거쳐
돌고 도는 생일떡
어깨 곁고 일어서는
불같은 한덩어리!